

연구보고 09-R09

세대간 인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II

- 사회·정치 인식 및 참여를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영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연구요약

연구목적

- 사회·정치의식과 참여의 측면에서 청소년과 성인세대, 청소년층 내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 설문조사 결과 및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세대간 통합과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정치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제시

조사결과

-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도는 성인보다는 낮지만 그 격차는 크지 않음. 중·고교생의 사회·정치문제 관심도는 20,30대와 유사하고 노년층보다는 오히려 높은 수준임.
 - 사회·정치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주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친구·선배나 교사(교수)와의 대화빈도가 증가하였음.
 - 청소년들은 사회·정치문제 보도의 접촉경로로서 성인들보다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고, 인터넷의 정보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감을 나타내었음.
- 심리·사회의식
 - 청소년들은 대학생이나 성인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수준임.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개인적 요인의 자존감은 감소하는 반면, 집단적 요인 자존감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음.
 -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높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나타내어 일반성인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생, 고교생, 중학생의 순이었음.
- 사회·정치의식과 참여
 -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민주주의적 태도는 감소하고 있음. 학교교육을 통해 내면화된 민주주의적 태도가 나이가 들어 사회·정치 현실을 접하게 되면서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정치의식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성인세대와 비해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 물질주의보다는 탈물질주의, 자유주의보다는 평등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국민의식의 영역별로 일반성인은 국가주의(국가이익 중시), 대학생은 국제주의(타국과의 협력 중시), 중·고교생은 애국심(자국에 대한 애착)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정치사회적 통제감은 고교생과 대학생 가장 높고 일반성인은 중학생보다도 낮은 수준임. 학생층이 성인들에 비해 사회체제를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더 강함을 알 수 있음.
- 중·고교생들은 인터넷을 통한 간접적인 사회·정치문제 참여율이 대학생이나 일반성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인터넷이 청소년 사회참여의 주된 매체로 자리잡고 있음.
- 국가·사회 현실 인식
 -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빈부격차, 학력차별, 계층특혜, 배경중시)에 대하여 고교생이 성인이나 대학생에 비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 한국사회의 발전수준(경제적 발전, 국민 생활수준, 정치적 민주화, 국민 정치참여)에 대하여 일반성인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한편 고교생이 가장 부정적이었음.
 -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는 중·고교생들이 대학생과 일반성인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향후 예상되는 사회변화의 전망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성인세대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이론적 시사점

- 청소년층을 단일한 특성을 지닌 연령집단으로 가정하는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야 함. 청소년들은 사회·정치의식의 측면에서 교급, 지역, 가정배경별로 다양한 분화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사회통념과는 달리 청소년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수준으로서 인터넷 활용을 통해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도

가 높아가고 있음.

-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된 청소년들의 민주주의적 태도와 사회변혁에 대한 자신감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함과 더불어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청소년, 특히 고교생들의 낮은 자존감과 국가·사회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지식전달·입시준비 위주의 왜곡된 교육현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정책제언

- 청소년 권익과 참여 증진을 위해 국가정책 과정에서 세대별 균등한 기회와 참여를 보장하는 세대별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대간 통합 증진을 위해 청소년들이 성인, 노년세대와의 공동활동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식·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세대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 청소년의 사회·정치의식 형성에 있어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여 청소년단체·시설 중심의 미디어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
- 인터넷이 청소년 사회참여의 주된 경로임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토론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목차

I. 서론.....	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II. 선행이론·연구 검토.....	11
1. 세대의 개념과 이론.....	11
2. 한국사회의 세대논의.....	20
3.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효과.....	26
III. 조사의 개요.....	41
1. 조사의 대상과 방법.....	41
2. 조사의 내용과 도구.....	44
3. 표본의 특성.....	51
IV.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55
1.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55
2.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64
3. 사회·정치보도 접촉과 신뢰도.....	70
4. 요약.....	81
V. 사회·정치의식과 참여.....	85
1. 사회심리 특성.....	85
2. 사회·정치의식.....	91
3. 사회·정치참여.....	103
4. 요약.....	111

VI. 국가-사회현실 인식.....	115
1. 사회문제 인식.....	115
2. 국가 발전수준 평가.....	122
3. 사회현실 만족도와 변화 전망.....	128
4. 요약.....	132
VII. 결론.....	137
1. 연구요약과 시사점.....	137
2. 정책방향과 과제.....	143
참고문헌.....	153
부록: 조사표.....	165

표 목차

<표 II-1> 세대별 인생주기와 연령집단 구분	22
<표 II-2> 세대구분과 세대별 특성.....	24
<표 III-1> 표집설계.....	42
<표 III-2> 표본의 특성	52
<표 IV-1>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 : 배경변인별	58
<표 IV-2> 가족구성원들의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상관관계	61
<표 IV-3> 부모의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 배경변인별	62
<표 IV-4>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 배경변인별	68
<표 IV-5> 사회·정치문제 보도접촉 : 배경변인별	74
<표 IV-6> 사회·정치문제 보도신뢰도 : 배경변인별.....	80
<표 V-1> 개인/집단요인 자존감.....	86
<표 V-2> 개인/집단요인 자존감 : 배경변인별	87
<표 V-3> 권위주의적 성격 : 배경변인별.....	89
<표 V-4> 민주주의적 태도.....	91
<표 V-5> 민주주의적 태도 : 배경변인별.....	93
<표 V-6> 정치의식	94
<표 V-7> 국민의식	96
<표 V-8> 국가주의 : 배경변인별	97
<표 V-9> 국제주의 : 배경변인별	98
<표 V-10> 애국심 : 배경변인별.....	99
<표 V-11> 정치사회적 통제감.....	100
<표 V-12> 정치사회적 통제감 : 배경변인별.....	102
<표 V-13> 사회·정치참여 : 배경변인별.....	109
<표 VI-1> 사회문제 심각성 : 배경변인별.....	120
<표 VI-2> 국가발전수준 평가 : 배경변인별.....	126
<표 VI-3> 사회현실 만족도 : 배경변인별.....	131

그림 목차

[그림 IV-1]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 본인.....	56
[그림 IV-2]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 본인- 연령대별.....	57
[그림 IV-3]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 아버지.....	59
[그림 IV-4]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 어머니.....	59
[그림 IV-5]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 형제·자매.....	60
[그림 IV-6]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 교급별.....	61
[그림 IV-7]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 아버지.....	64
[그림 IV-8]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 어머니.....	65
[그림 IV-9]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 형제·자매.....	65
[그림 IV-10]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 친구·선배.....	66
[그림 IV-11]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 교사(교수).....	66
[그림 IV-12]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대화빈도 : 교급별.....	67
[그림 IV-13] 사회·정치문제 보도접촉 : TV.....	70
[그림 IV-14] 사회·정치문제 보도접촉 : 라디오.....	71
[그림 IV-15] 사회·정치문제 보도접촉 : 신문.....	71
[그림 IV-16] 사회·정치문제 보도접촉 : 시사주간지/잡지.....	72
[그림 IV-17] 사회·정치문제 보도접촉 : 인터넷.....	72
[그림 IV-18] 사회·정치문제 보도접촉 : 연령대별.....	73
[그림 IV-19] 사회·정치문제 보도 신뢰도 : TV.....	76
[그림 IV-20] 사회·정치문제 보도 신뢰도 : 라디오.....	76
[그림 IV-21] 사회·정치문제 보도 신뢰도 : 신문.....	77
[그림 IV-22] 사회·정치문제 보도 신뢰도 : 시사주간지/잡지.....	77
[그림 IV-23] 사회·정치문제 보도 신뢰도 : 인터넷.....	78
[그림 IV-24] 사회·정치문제 보도 신뢰도 : 연령대별.....	79
[그림 V-1] 개인/집단요인 자존감 : 연령대별.....	86
[그림 V-2] 권위주의적 성격 : 연령대별.....	88
[그림 V-3] 민주주의적 태도 : 연령대별.....	92
[그림 V-4] 정치의식 : 연령대별.....	95
[그림 V-5] 국민의식 : 연령대별.....	96
[그림 V-6] 정치사회적 통제감 : 연령대별.....	101

[그림 V-7] 사회·정치참여 : TV·라디오 투고	103
[그림 V-8] 사회·정치참여 : 신문·잡지 투고.....	104
[그림 V-9] 사회·정치참여 : 인터넷 글 게시	105
[그림 V-10] 사회·정치참여 : 인터넷 서명	105
[그림 V-11] 사회·정치참여 : 거리 서명	106
[그림 V-12] 사회·정치참여 : 집회·모임 참석.....	107
[그림 V-13] 사회·정치참여 : 연령대별.....	108
[그림 VI-1] 사회문제 심각성 : 성차별	116
[그림 VI-2] 사회문제 심각성 : 빈부격차.....	116
[그림 VI-3] 사회문제 심각성 : 학력차별.....	117
[그림 VI-4] 사회문제 심각성 : 일부계층 특혜.....	117
[그림 VI-5] 사회문제 심각성 : 집안/뒷배경 중시.....	118
[그림 VI-6] 사회문제 심각성 : 연령대별.....	119
[그림 VI-7] 국가발전수준 평가 : 경제적 발전.....	122
[그림 VI-8] 국가발전수준 평가 : 국민 생활수준.....	123
[그림 VI-9] 국가발전수준 평가 : 정치적 민주화.....	124
[그림 VI-10] 국가발전수준 평가 : 정치참여 수준.....	124
[그림 VI-11] 국가발전수준 평가 : 연령대별.....	125
[그림 VI-12] 사회현실 만족도.....	128
[그림 VI-13] 사회변화 전망	129
[그림 VI-14] 사회현실 만족도와 사회변화 전망 : 연령대별	130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사회는 근대화·산업화과정을 통하여 유례 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함으로써 이질적인 가치관의 동시대적 공존이라는 문화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성장환경과 역사적 경험을 달리하는 세대간 차이와 갈등이 주요한 사회현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세대문제 연구자들은 세대갈등이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변동을 겪은 사회일수록 세대간의 격차가 크고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에서는 1960년대 학생들의 체제 저항운동이 세대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청년층과 기성세대간의 관계가 한동안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구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노년층과 청·중년층간의 세대갈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engtson, 1993; 박재홍, 2001 재인용). 그러나 한국사회의 세대연구는 문제의 중요도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1970년대 청년문화의 대두, 1990년대의 신세대논의의 활성화와 더불어 세대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으나 주로 매스컴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담론의 수준에 머물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386세대의 부각과 월드컵 응원, 촛불시위 등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었지만 본격적인 세대논의와 연구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당시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회자된 X세대, N세대, W세대, R세대 등의 용어는 새로운 세대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촉발하였지만 주로 상업적·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이창호, 2008: 16) 세대문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¹. 우리사회의 세대문제에 대한 본질에 접근하기

¹ 당시 기업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고안된 세대용어는 ①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

위해서는 서구적 세대개념의 무비판적인 적용에서 벗어나 실증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과 일반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세대논의와 관련연구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주의”(원용진, 이동연, 노명우, 2006)의 만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청소년층을 단일한 특성을 지닌 연령집단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급속한 정신적·신체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선입견은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예컨대, 특정 영역에 있어서 초등학생과 고교생간 가치관의 차이는 전체로서의 청소년집단과 성인간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계층화의 진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층 내부의 분화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층을 단일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연구자의 시각은 연구방법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청소년과 성인세대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 샘플의 표집은 제한된 연령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표집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조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세대차 연구에 있어서 연구주제의 선택도 매우 민감한 문제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생활경험을 통한 고정관념에 집착하는 성인들에 비해 현상을 추상적 또는 이상적 수준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파악한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반드시 현실 행동으로 반영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기존 세대차 연구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성인과의 차이점에 못지 않게 청소년집단 내부의 차이에도 눈길을

른 서구의 개념을 빌어와 한국사회의 세대현상을 설명하려 하였고, ② 청소년의 소비지향성(X세대), 참여지향성(W, R세대), 네트워크지향성(N세대) 등이 마치 청소년층에 내재된 고유한 속성인 양 부각시켜 그와 같은 현상이 유발된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요인들을 은폐하는 데 일조하였다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 지역, 계층 등의 측면에서 청소년 하위집단들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집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현실과 이상의 괴리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의식 차원과 더불어 현실 행동 차원의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세대차의 종합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영역과 주제의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행동양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친 연속사업의 일환으로서, 청소년과 성인을 포괄하는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조사를 통해 영역별 의식·가치관·행동양식의 실태를 비교·분석하고(1~3차년도), 이를 토대로 미래사회의 변동을 전망(3차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제1차년도인 2008년에는 세대관과 교육에 대한 인식, 정보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²로 발간하였다.

연구 제2차년도인 올해에는 “사회·정치의식과 참여”를 주제로 청소년(중·고교생)과 대학생, 성인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대간 통합과 청소년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연구 마지막 해인 2010년에는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가족관련 의식과 가치관을 조사·분석하고 3개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세대론의 관점에서 예상되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할 계획이다.

² 이창호, 김종길, 이항우. (2008).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 변동전망 I: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와 관련한 선행이론과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분석하였다(제Ⅱ장). 사회과학 연구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세대의 개념과 세대차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한국사회의 세대구분을 둘러싼 논의와 세대차이에 관한 주요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사회·정치 의식 및 참여를 주제로 중·고교생과 대학생, 일반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표집방식과 조사도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였다(제Ⅲ장).

셋째, 설문조사의 주요결과를 조사영역별로 정리·분석하였다. 조사의 영역은 크게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사회·정치 의식과 참여, 국가·사회 현실 인식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각 영역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정치문제 관심도(제Ⅳ장)에서는 ①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본인과 가족구성원의 관심도, ② 사회·정치문제와 관련한 주변사람들과의 대화빈도, ③ 사회·정치문제 관련 보도를 접하는 경로와 ④ 매체별 사회·정치문제 보도내용의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사회·정치인식과 참여(제Ⅴ장)의 영역에서는 선행연구의 조사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재구성하여 ① 사회·정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특성(자존감과 권위주의적 성격), ② 민주주의적 태도(신뢰성, 타협의 정신, 관용의 태도, 비판적 태도), ③ 정치의식(집단주의 가치, 탈물질주의 가치, 평등주의 가치), ④ 국민의식(국가주의, 국제주의, 애국심), ⑤ 정치사회적 통제감(리더십 능력, 정책적 통제감) 등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사회현실 인식(제Ⅵ장) 영역에서는 ①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② 현단계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을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한 ③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

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제Ⅶ장)에서는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 뒤 세대간 통합 및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세대와 관련한 학계의 이론과 논의를 검토하여 연구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치 의식 및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의 세부주제와 설문조사의 주요항목들을 결정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생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2009년 7~8월의 두달 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조사표 시안을 개발한 뒤 서울 지역 중·고교생 125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여 조사내용을 확정하였다.

조사표는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과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중·고교생과 대학생, 성인 대상의 3종을 개발하였다. 표집방식은 본원의 통합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중학생 3,360명, 고교생 3,120명, 대학생 1,376명, 성인 1,216명을 목표표본으로 결정한 뒤 층화다단계집락표집(중·고교생), 층화다단계집락할당표집(대학생), 층화집락할당표집(일반성인)의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중·고교생 표본은 조사원 또는 담임교사 지도하에 학급 단위의 집단조사, 대학생과 성인 표본은 조사원 면접을 통한 개별조사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밖에 연구주제와 관련한 학계인사, 관계 전문가·실무자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관련부처 담당자들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연구방향 설정 및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II. 선행이론·연구 검토

1. 세대의 개념과 이론
2. 한국사회의 세대논의
3.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효과

II. 선행연구·이론 검토

1. 세대의 개념과 이론

가. 세대의 개념

“세대”(generation)는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고 학술연구에서도 이론적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세대개념은 동년배 집단, 즉 같은 시기에 태어나 유사한 성장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출생 시점에 따른 집단간 차이에 대한 관념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오랜 과거에서부터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Nash(1978)에 따르면 세대의 어원은 “출현하다”(to come into existence)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genos”로서 새로운 아이의 탄생, 새로운 또래집단의 등장, 일정한 생애단계로의 도달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박재홍, 2001). 한편, 그리스어 및 라틴어 계통의 용례에 따르면, 세대는 출생과 재생산의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어떤 시대, 인생의 어떤 시절 혹은 특정 생애주기 단계, 특정 가족이나 인종집단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어떤 경우이든 세대라는 용어는 특정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와 다른 새로운 존재의 출현이라는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따라서 한 집단과는 동질적이고 다른 집단들과는 이질적이라는 함의가 이 개념의 어원적 핵심임을 알 수 있다(Nash, 1978; 박재홍, 2003).

세대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연령에 기초한 집단내 유사성과 집단간 차이라는 함의는 세대관련 사회과학적 연구의 기본전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세대의 형성과 세대간의 역동적인 관계 등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세대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과학적 관점을 크게 다음의 다섯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³(이창호 외, 2008: 18-24).

생물학적 세대개념

세대에 대한 가장 단순한 해석은 이를 가계 계승의 단위로 보는 것이다. 가계 계승의 단위로서의 세대란 좁게는 친자관계, 넓게는 친족체계 일반의 가계서열을 지시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부모세대”나 “자식세대”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예이다. 부모-자녀 관계나 조부모-손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세대개념의 역사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대의 문제는 특히 수명의 연장과 자녀수의 감소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혼, 단순동거, 독신자의 증가 등 가족형태가 다양하게 되고 친족관계와 가족 내의 관계가 복잡화되는 오늘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혈통계보가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상진, 2002: 7).

생물학적 세대개념의 가장 큰 장점은 의미의 모호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오늘날 이 세대개념은 친족구조를 연구하는 인류학자 혹은 인구대체 현상을 중시하는 인구학자들에 의해 한층 발전되고 있으며, 지금도 다각적으로 변용·활용되고 있다(이창호 외, 2008: 19).

역사주의의 세대개념

세대가 가지는 역사적·거시사회적 의미에 처음으로 주목한 학자는 독일 역사주의를 대표하는 Wilhelm Dilthey였다. 그에 따르면, 세대개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정한 의미의 동시대인으로 표상되는 “시간에 대한 내면적 규정”(an internal measure of time)이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진정한 의미의 동시대인이란 단순히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든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세대가 공존하

³ 세대개념을 둘러싼 사회과학적 관점은 제1차년도 연구(이창호 외, 2008)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게 마련인데, 이들 상이한 세대들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서로 다른 세대는 비록 동시대를 살아 간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회세계(social world)에서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Dilthey에 의하면, 하나의 세대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기에 어떤 큰 사건을 만나 그 사건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동일한 시대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유사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발생한 대사건과 변화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다른 요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동질적인 전체로 연결되는 것이다”(Dilthey, 1875: 전상진, 2002: 13 재인용).

역사주의의 세대개념은 사회학적 세대개념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자원인 연령, 역사적 맥락, 세대 소속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생물학적 세대개념의 미시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관점은 세대가 어떤 역사적 사건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집단적 성격을 띠게 되는지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인 요인, 예컨대 동일한 내지 유사한 출생연도(출생코호트), 연령 등의 요인이 세대현상의 발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창호 외, 2008: 20).

Mannheim의 세대론

세대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사회학적 연구는 Karl Mannheim(1952)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19세기부터 A. Comte, J. S. Mill, J. Dromel 등의 학자들이 세대문제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연구의 체계성이나 사회학적 함의의 측면에서 Mannheim의 연구는 최초의 체계적인 사회학적 연구로 간주되고 있다(박재홍, 2001: 50).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첨예하게 대립하던 세대간의 알력과 투쟁, 즉 당시의 모든 사회적 참상의 책임을 기성세대에게 돌리는 새로운 세대와 이를 부당하다고 기성세대의 대립과 갈등을 역사사회학적 시각에서 비판적으

로 조명했다. 당시 세대간 대립과 갈등이 단순히 세대간 차이의 수준을 넘어 계급투쟁과 유사한 차원에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 그리고 세계관의 정립을 둘러싼 세대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Dilthey의 세대개념에 영향을 받은 Mannheim은 인간은 출생과 사망을 통해 세대교체를 겪는 생물유기체라는 점에서 세대현상의 저변에는 불가피하게 생물학적 기초가 자리잡고 있음을 전제하고, “생물학적 세대”가 “사회역사적 세대”로 전화하는 과정을 “세대위치”(generation location), “실체세대”(generation as an actuality), “세대단위”(generation unit)의 개념으로 설명한다(Mannheim, 1952). 세대위치란 동일한 역사적·문화적 권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갖는 “사회적 위치”(social location)로서 Karl Marx의 즉자적 계급(Klasse an sich) 개념과 마찬가지로 실제세대로 발전할 잠재력만을 갖고 있는 개념이다. 세대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역동적 동요(dynamic destabilization) 과정의 사회적·지적 징후에 노출됨으로써 상호간에 구체적 연대감이 형성”되고,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는 힘의 상호작용을 능동적·수동적으로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실제세대로 발전되며, 실제세대 내의 강고한 연대를 갖는 분파가 세대단위이다(박재홍, 2001: 52).

Mannheim은 공유된 경험의 효과에 주목하고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대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세대문제를 사회학적 이론 틀에 따라 정교화하고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세대를 공유된 경험을 토대로 강한 연대감을 갖고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운동 세력으로 단정함으로써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갖가지 세대현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대현상을 과학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실증적 분석도구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경험적 연구의 활용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박재홍, 2003: 12).

인구학적 세대이론 : 코호트로서의 세대

Mannheim의 세대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변용해서 경험적 연구를 위한 실행모형으로 탈바꿈시킨 학자는 N. Ryder(1965)이다. Ryder는 사회

구조와 행위를 이어주는 핵심 링크였던 역사적 경험과 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의 세대개념을 기각하고 그 대신에 코호트(cohort)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에 따르면, 세대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 세대가 어떻게 해서 역사적 의식을 공유하게 되는가가 아니라 동년배 집단이 동일한 역사적 경험에 노출된다는 사실, 즉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코호트 계승과 코호트 교체라는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 인구과정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함인희, 2002: 114). 또한 그가 보기에 세대와 코호트 개념은 모두 시간적 분석단위(unit of temporal analysis)이지만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세대개념은 친족구조에서의 시간단위로 국한시켜 사용하고, 역사적 경험의 공유를 강조하는 Mannheim식의 세대 독법은 코호트로 개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박재홍, 2003: 5).

이에 비해, 세대현상의 인구학적 기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천착하고, 이로부터 세대에 대한 체계적·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학자는 Easterlin (1987)이다. 그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미국사회의 문화에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넘어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코호트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그가 각별히 주목한 것은 미국사회에서 출생코호트의 인구 크기가 장시간을 거쳐 베이비붐과 역 베이비붐의 시기를 반복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46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출산율이 매우 높은 시기에 태어난 세대였다. 베이비붐 코호트 세대의 생애과정을 추적해 보면, 코호트 크기는 경제침체, 높은 실업률에 따른 경제적 불안 등으로 가족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는 많은 수의 은퇴인구에게 소득보장을 해 주기 위한 연방정부나 주의 재정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현역 노동자층에게 과중한 부양부담이 떠맡겨짐으로써 세대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박경숙, 2004: 20-21).

인구학적 세대이론은 코호트의 크기를 경제적 기회나 개인의 생애에 직접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인구학적 변동 추이를 적절히 감지하고 분석하는 효과적인 개념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다른 한편으로 코호트 크기와 경제순환과 같은 구조적 요인 및 개인 생애 사이의 일반화를 추구함

으로써 세대현상의 인구학적 기초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령성층화 이론

Riley와 그의 동료들(1988)은 Mannheim의 세대이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사회학적 세대담론의 부활에 일조했다. 이들의 이론은 연령성층화 이론(age stratification theory)으로 지칭되는데, 같은 코호트가 동일한 노화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문제와 코호트별 노화과정의 차이가 사회구조적 변화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색했다. 이들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연령계층” 내지 “연령계급”인데, 이는 어느 세대나 코호트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통과하게 되는 생애경로의 각 단계를 말한다(박재홍, 2003: 7).

이들은 연령이야말로 사회조직화의 핵심원리이자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키워드임을 강조한다. 연령은 계급이나 성, 인종과 같이 구조화된 사회불평등의 중요한 기반인데,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권리, 의무, 특전 등이 차등화된 역할을 맡으면서 한편으로는 늙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생코호트와 함께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변동의 과정에 참여한다. 나아가 연령성층화 이론은 시간을 개인적 시간(personal time)과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으로 구분하고, 이것들이 교차하는 과정, 특히 개인적 시간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 즉 그것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시간표(social time table)에 따라 재구성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사회적 시간표에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시기의 순서가 나타나고, 언제 결혼해야 하는가, 결혼을 한다면 몇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 등과 같이 이 시기를 언제 지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규범이 내장되어 있다. 이들이 강조하는 바, 사회적 시간은 추상적 시간이 아니라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사건이나 사회구조적 변화, 문화적 격변 등을 포괄하는 역사적 시간이다. 그런 만큼 서로 다른 역사적 시간을 통과해 온 세대는 각기 다른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세대 내부 구성원과는 동일한, 그리고 세대 외부집단과는 차별화되는 패러다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함인희, 2002: 115).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세대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과 관점은 시대에 따라 학자에 다양하다. Kertzer(1983)는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세대의 대표적 용례를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정리하고 있다(박재홍, 2001: 50-51).

첫째, 세대개념을 조부모-부모-자녀관계와 같이 “친족계보”(kinship descent)에서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법이다. 이 용법은 전통적으로 사회인류학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는데, 사회학에서는 부모-자녀간 가치관의 연속성과 단절이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인구학에서는 여성의 재생산활동을 통한 인구교체와 관련하여 이 용법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둘째, 세대를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cohort), 즉 동일시기 출생 집단으로 보는 입장인데, 인구학자들이 이 용법을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다. 동일 코호트로서의 세대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의식과 행위양식 면에서 동질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코호트 시각을 대표하는 인물이 Mannheim이다.

셋째, 세대를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life stage)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용법으로서, 예컨대 청소년세대, 대학생세대에 대한 연구들이 이러한 용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용법에서는 동일한 생애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발달 과정에서 동일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과제동질적”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세대를 특정 “역사적 시기”(historical period)에 생존한 사람들로 보는 용법이다. 이 용법은 역사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1914년 세대, 한국전쟁 체험세대와 같이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넓은 범위의 코호트를 포함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나. 세대차의 이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세대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

한 관심의 정도에 걸맞게 세대차와 관련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흔히 서구의 세대차 연구들은 세대차가 크게 존재한다는 연구, 세대차는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 없다는 연구, 그리고 세대간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연구의 세가지로 나뉘고 있다(Bengtson, 1975).

세대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심리적 접근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들 접근은 크게 현실적 집단간 갈등이론, 사회적 접촉가설, 사회정체성 이론, 커뮤니케이션 행위수용 이론 등으로 구분된다(한정란, 2006: 385-386)

첫번째 논의는 현실적 집단간 갈등이론(realistic intergroup conflict theory)이다. Turner(1975)는 제한된 자원을 세대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세대차이 및 갈등이 야기된다고 보고, 이를 “사회적 경쟁”(social competi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세대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투게 되며, 상반된 목표를 갖고 있는 각 세대집단들은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갈등을 발달시키게 된다.

두번째 논의는 사회적 접촉가설(social contact hypothesis)에 의한 것이다. 이는 세대간의 부정적인 태도가 다른 세대와의 접촉 부족에 따른 정보의 취약성과 오해에서 오는, 어느 정도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해석이다. 집단간 접촉의 부족은 다른 집단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을 만들어 낸다.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 잘 모를수록 비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Wilder, 1978). 따라서 핵가족화로 가족내에서 세대간 접촉할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세대간의 접촉과 정보를 얻을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함으로써 세대간의 부정적 태도나 편견이 초래된다는 것이다(Caspi, 1984).

세번째 논의는 세대간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는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이다. Tajfel(1978)은 집단간 차별에 있어서의 인지적 요소를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제한적인 인지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정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상들을 유목화(categorization)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는 사람을 개별적 속성을 지닌 독립된 인간

으로만 보지 않고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분류해 놓는다. 그 결과 정체성의 상당 부분은 집단구성원으로 갖게 되는 사회적 정체성으로 구성되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사회적 위치를 다른 집단들과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긍정적 차별성을 찾아내고자 한다(Tajfel & Turner, 1979). 즉 세대차이란 이러한 사회적 유목화와 사회적 정체성 유지를 위한 내집단 선호의 산물이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행위수용이론 (communication accommodation theory)을 들 수 있다(Harwood, Giles, & Ryan, 1995). 이는 언어행위 수용이론(speech accommodation theory)를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방을 얼마나 잘 수용하는가에 따라 그 행위를 수용, 배척, 과수용, 몰이해, 조화로 나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대차이는 결국 세대간 의사소통상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노인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수용 또는 배척하는 정도는 그들이 세대관계를 규정하는 사회규범에 따른 피해의 인식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사회의 세대간 태도차이는 위의 사회심리적 원인들 중 어느 한 원인에 의한 것이기 보다 네가지 접근과 동시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한정된 자원배분 문제는 세대간 이해의 차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 도시화, 가족제도의 변화는 세대간 접촉의 기회를 제한하여 상호간 어울리거나 이해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 차이를 놓고 다른 식의 집단 기준보다 세대 혹은 연령기준이 강조되는데 인지적 기제가 깊이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세대간 접촉의 감소와 함께 세대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비수용 내지 배척, 몰이해 또는 과수용 등의 부정적 인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한정란, 2006: 386).

2. 한국사회의 세대논의

사회과학 연구에서 세대의 개념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과 방법도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다. 세대개념의 의미에 따라 세대의 구분방법이 다르고,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는가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연령은 세대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연속변수인 연령을 어디에서 잘라서 서로 다른 세대로 구분할 것인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이창호 외, 2008: 26-27).

세대구분과 관련해 가장 널리 통용되는 구분은 신세대와 구세대 또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로 양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속변수인 연령을 몇 세에서 잘라 세대구분의 기점으로 삼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때로는 35세, 또 때로는 40세가 기준으로 제시되는 등 논자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30대를 중간세대로 따로 분류하여 젊은 세대, 중간세대, 기성세대로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생애의 단계라는 점에서나 역사적 경험의 공유라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한국사회학회, 2004).

세대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관점은 연대기적 시간 개념보다는 주관적·내면적 시간 개념을 중시하는 관점인데, Dilthey나 Mannheim 등 학자들이 이 관점을 취하고 있다. Mannheim의 시각에 따르면 출생코호트가 경험하는 역사적 사건의 경험이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의 청소년세대는 월드컵세대 혹은 IMF 세대 등으로 규정될 수 있고 기성세대는 유신세대 혹은 전쟁세대 등으로 불릴 수 있다. 이처럼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대부분 한국사회의 주요한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토대로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이창호 외, 2008: 28).

한국사회에서 세대논쟁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93년을 전후한 시기와 2002년이다(홍덕률, 2003). 1993년을 전후해 서태지와 아이들, 신세대, 오렌지족 등 기존의 형식을 파괴한 문화들이 등장하면서 신세대 논쟁이 거

세계 일었다. 홍덕률(2003)은 이 시기를 4·19세대나 유신세대와 같이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빌려쓰던 이전의 세대개념과 다르게 탈정치화된 문화적 세대개념이 등장한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10년 뒤인 2002년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월드컵 거리응원, 광화문 촛불시위, 노사모, 16대 대선 등으로 세대 정치논쟁이 불붙었던 시기이다. 소위 386세대들의 정치참여 확대로 장년층과 노년층이 충격과 소외를 겪었던 때였다. 이처럼 특정한 역사적·문화적 충격이 가해질 때 세대논쟁은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다(이창호, 2008: 28).

홍덕률(2003: 161-179)은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로 요약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과정에 대응하여 세대를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화세대(1953년 이전 출생)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산업현장에서 고도성장을 이끈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성장기에 경험한 공통의 역사체험으로 인해 물질주의와 성장주의, 반공·반북·친미·냉전의식, 국가주의·권위주의·집단주의 등 어느 세대보다 보수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집단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나 인권도 유보될 수 있다는 산업화세대의 “한국적 보수주의”는 건국 이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40여년 동안 우리사회의 지배이념이자 질서의 원리였다(홍덕률, 2003: 161-165).

민주화세대(1953~1969년 출생)는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970년대와 8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로서, 유신세대, 긴급조치세대로 불리는 “민주화 1세대”와 386세대로 지칭되는 “민주화 2세대”로 구분된다. 이들은 광주항쟁과 6월항쟁 등 일련의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공유하였지만, 북한과 미국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점을 갖게 된다. 즉, 386세대는 산업화세대에서 민주화 1세대로 이어진 “혈맹으로서의 미국”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한에 대한 기존관념에 도전하는 등 우리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담당하였다(홍덕률, 2003: 168-174).

정보화세대(1970년 이후 출생)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탈정치·탈이념의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일차적 관심은 개인

의 자유와 개성 추구에 있고 이전 세대와는 달리 정치와 이념에는 무관심하다. 또한 디지털매체에 둘러싸여 성장한 첫세대로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를 매우 빠르게 받아들이고 쉽게 적응한다. 사회관계에 있어서도 수직적 인간관계와 조직문화에 부정적이며 수평적 인간관계와 탈권위적 조직문화를 선호한다(홍덕률, 2003: 174-178).

황상민·김도환(2004: 32-33)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출생동시집단들이 공유하는 역사적 사건, 행동방식, 의식특성을 인생주기(life-cycle)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다음의 여섯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표 II-1> 세대별 인생주기와 연령집단 구분

세대계열	현재 연령대	출생 년도	청소 년기	현재의 인생주기와 발달과업
해방전후 복구세대	60대 이상	1925- 1934	1943- 1954	성인후기: 일생에 대한 정리, 사회적 고립에 의해 우울·경직성 증가, 친숙한 것에 대한 애착 증가, 유산 남기려는 성향 증가
근대화 세대	50대	1940- 1949	1959- 1969	중년절정기: 관조와 내적인 탐색의 시기. 은퇴, 성역할에서 벗어나기 시작
경제부흥기 세대	40대	1950- 1959	1969- 1979	중년기: 중년위기를 거쳐 적합한 새로운 삶을 모색해서 안정찾기, 후배양성/지도, 전문지식과 자기이해에 있어 보다 성숙
민주화 세대 (386세대)	30대	1960- 1969	1979- 1989	성인초기와 안정기: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성공을 위해 최선/책임감과 개입으로 자신투자/스스로 성취/자녀양육
자율화 세대 (X세대)	20대	1970- 1979	1989- 1999	성인입문기: 이상, 꿈, 에너지, 희망, 자신에 대한 비전/일을 준비, 스승찾기, 친밀감 형성, 최초의 인생구조 창조
신인류 세대 (N세대)	10대	1980- 1990	1998- 2010	청소년기: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시도, 자아정체감 형성, 또래의 영향, 자아중심적 성향

출처: 황상민, 김도환(2004: 33)

먼저 최고령 코호트 집단인 “해방전후 복구세대”는 농업중심의 경제체제 하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절대빈곤층을 이루었던 식민지시대를 거쳐 해방과 한국전쟁을 경험하였다. “근대화 세대”는 군사정권하에서 반공의식 함양, 학

력수준 증가, 이농현상 대두와 같은 시대적 상황 아래 청소년기를 보냈다. “경제부흥기 세대”는 유신독재 시절 새마을운동, 수출진흥 정책,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고조되고 본격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7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이다. “민주화 세대”는 소위 386세대로 지칭되는 집단으로서,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통금이나 교복 등 각종 규제가 해제되던 시대를 경험하였다. “자율화 세대”(X세대)의 청소년기는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민주화가 정착되던 시기로서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20대에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인류 세대”(N세대)는 후기산업사회가 만들어놓은 사회 환경에서 사이버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세대이다.

함인희(2007)는 그동안의 세대구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세대를 크게 근대화/산업화세대, 386/민주화세대, 정보화/디지털세대로 구분한다. 19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한국 경제발전의 주역인 근대화/산업화세대는 가족보다 일을 중요시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세대이다. 386/민주화세대는 1980년대 민주화 경험을 공유한 집단으로 경제적 풍요와 1997년 외환위기를 동시에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정보화/디지털 세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화, 세계화, 네트워크화를 경험한 집단으로 한국적 가치보다 세계적 기준을 중요시하며 적극적인 문화소비층이다. 또한 탈정치화되어 있으며 문화코드로 동질감을 확보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창호, 2008: 28 재인용).

박재홍(2005, 2009)은 한국사회에서 ① 식민지 경험, ② 한국전쟁 경험, ③ 산업화와 정보화 경험, ④ 사회운동 경험과 국내외 정치상황이 세대의식 형성의 주요 계기라고 보고, 이에 기초하여 세대를 전쟁체험/산업화 1세대, 민주화/산업화 2세대, 탈냉전/정보화세대의 세가지로 크게 구분하였다.

전쟁체험/산업화 1세대는 전통적인 유교교육의 영향에 따라 인간관계를 위계질서로 파악하고, 개인보다는 가족, 직장, 국가공동체를 중시한다. 또한 궁핍과 혼란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근면 검소한 생활에 익숙하고 강인한 생존욕구와 의지를 보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보수주의와 반공주의적 지향

을 갖기도 한다(박재홍, 2005: 184).

민주화/산업화 2세대는 이전 세대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나 서구식 근대적 교육을 받고 자라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세대이다. 이들은 성장기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다시 다음의 세가지 세대로 나뉜다. 먼저 4·19/6·3세대(30년대말~40년대 출생)는 해방 후 근대적 교육을 받은 첫세대로서 학교에서 배운 자유·평등사상이 4·19혁명의 이념적 자원이 되었다. 유신세대(50년대 출생)는 반독재 저항의식과 민중에 대한 부채의식이 강한 반면 냉소적이고 현실도피적인 이중성도 보인다. 한편, 386세대는 강한 현실 변혁의지를 가진 세대로서 1987년 민주대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박재홍, 2005: 183-184).

<표 II-2> 세대구분과 세대별 특성

출생시점	1930년대 말경			1970년경	
	전쟁체험/ 산업화1세대	민주화/산업화 2세대			탈냉전/ 정보화세대
세대구분		4.19/6.3세대	유신세대	386세대	
세대특성	권위주의 공동체의식 유교문화에 익숙	출생시점 경과에 따라 옆의 특성이 점차 약화됨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 혼재 민주주의, 민족주의 이념, 반독재 저항의 식 공유			탈권위주의 개인주의 유교적 가치 경시
	근검절약 정신 강인한 생존의지 보수주의 반공주의	민주화운동 1세대 한글교육 1세대 후진 양성	폭압적 통치체제 좌절감 냉소주의	반미 사회주의 이념 현실 변혁의지 강한 세대 연대감	소비·여가 중시 지구화·정 보화 마인드

자료 : 박재홍(2005: 184)

탈냉전/정보화세대는 전쟁체험/산업화 1세대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들은 권위주의와 유교적 문화를 구시대적 유물로 보고 개인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며 근검절약보다는 소비와 여가활용에 익숙하다. 지구화, 정보화 마인드로 무장한,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온갖 콤플렉스로부터 자유로운 첫 세

대이기도 하다(박재홍, 2005: 184).

박재홍(2009)는 이와 같은 세대구분에 기초하여 각 세대별 인구구성비를 추산하였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식민지와 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전체인구의 9%에 불과하고 탈냉전/정보화세대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여, 한국사회의 무게중심이 199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신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로 기울어진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은 세대구분의 기준을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경험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구분은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임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박재홍, 2001).

3.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효과*

가.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관점

참여의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상이한 두 가지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하나는 청소년의 의존성, 무능력, 수동성, 피보호성을 강조하여 청소년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의 문턱을 높이려 함에 반해서,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 스스로의 독립성, 능력, 능동성, 자주성을 강조하여 청소년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다. 전자를 보수적인(전통적인) 견해라고 한다면, 후자를 급진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적인 견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준비시켜 장차 온전한 정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능을 부여하려 함에 반해서, 급진적인 견해는 성인과 청소년의 차이를 크게 인정하지 않고 동등한 수준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청소년에게 권능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청소년들의 참여능력과 참여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청소년의 개념 및 본질 규정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김영인, 2007).

참여와 관련한 양자의 견해는 모두 문제가 있다. 보수적인 견해는 청소년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청소년의 미성숙성을 이유로 보호와 준비를 주장하지만, 청소년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경로 마련이 부족하다. 반면 급진적인 견해는 청소년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여와 관련해서 청소년은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공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을 홀로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다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성인들과의 협력 하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참여의 기회를 통해서 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력이 청소년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김영인, 2007).

* 집필 : 김영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 글에서는 청소년을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놓여 있는 과도기적인 존재나 주변인이 아니라, 참여능력이 있고 참여를 통해서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학습력이 있는 독자적인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지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회적 존재로 규정한다.

참여에 대한 개념 규정도 청소년에 대한 규정처럼 다양하다.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Nagel(1987)은 참여를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하며, Hart(1997)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Vroom은 참여를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느끼는 영향력의 정도”라고 하며, Lischenron은 “참여는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상호 연관된 영향(influence), 상호작용(interaction),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천정웅, 2004, 재인용). Winter(1997)는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라고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이 관심을 가진 사안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취하는 활동”이라고 한다. 한편, 국내학자인 박세일(2003)은 참여를 “자신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의사결정에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반영시키는 노력”으로 보며, 김영인(2002)은 “정치공동체의 일반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에 관련된 정부, 시민사회, 직장의 의사결정 또는 집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자발적인 행위”로 규정한다. 이외에 박효중(2006)은 “공공선이나 공공정책과 연관된 시민의 관습적 혹은 비관습적 활동을 포괄하는 직접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

참여에 대한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면, 참여는 “일반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영역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선택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참여는 전문적인 정치인이나 로비스트가 아닌 일반구성원의 행위라는 점, 공적인 영역의 의사결정에 관련된다는 점, 참여주체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라는 점, 단순한 인식이나 의사가 아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는 점

등의 특성을 지닌다(김영인, 2007).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과 참여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청소년참여를 정의하면, 청소년참여는 “참여능력이 있고 참여를 통해서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학습력이 있는 독자적인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지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회적 존재인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영역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선택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참여에 대한 관점은 청소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앞에서 본 것처럼 청소년을 의존성, 무능력, 수동성, 피보호성의 시각으로 보면 청소년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 반면 청소년을 독립성, 능력, 능동성, 자주성의 시각으로 보면 청소년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을 양극단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성인들과의 협력하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시민학습력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 보면 청소년참여에 대해서 전향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은 참여를 통해서 시민학습을 하게 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참여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도 청소년참여에 대한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참여에 대한 관점은 엘리트민주주의론과 참여민주주의론에 따라서 달라진다(김영인, 2003).

엘리트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는 정치적 방법일 뿐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결의를 만들어내더라도 민주주의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Schumpeter, 1993 ; Walker, 1966), 시민에 의한 것만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민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런 엘리트민주주의론은 인간의 정치적 합리성과 참여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이에 따라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엘리트민주주의론은 청소년참여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

참여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를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개인의 도덕적 발달, 공공선 등을 체화시키고 있는 이념으로서 정치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윤리적 가치이자 목적이며, 이를 달성할 정치적 수단이자 방법으로 보는

입장이다(Bachrach, 1967). 참여민주주의론에서는 윤리적 가치로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의 직접적인 지배와 참여를 주장하며(Rousseau, 1964), “참여 없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을 내세워 시민들의 참여를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Parry, Moyser & Day, 1992; Barber, 1984). 이와 같은 참여민주주의론에 따르면, 청소년참여에 대해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청소년참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생각건대 “사람은 참여과정에서의 경험과 토론에 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다”는 Mill(1948)의 말이나, “사적인 것이 공적으로, 종속성이 상호의존성으로, 갈등이 협력으로, 허가가 자기 입법으로, 결핍이 사랑으로, 노예신분이 시민성으로의 변형가능성이 참여 맥락에서 나타난다”는 Barber(1984)의 말처럼 참여는 교육적으로 참여자를 변형시키는 기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교육감수성이 높은 발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의 교육적 변형효과,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참여의 시민성 함양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⁴를 보더라도 참여 자체가 지니는 시민학습 기제는 인정될 수 있다. 규범적으로 보더라도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공공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이런 청소년의 참여권이 기본적 권리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참여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 청소년참여의 효과

청소년참여가 지니는 기능과 효과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참여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여가 지니는 효과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

⁴ Nie & Verba(1975), Finkel(1985, 1987), Leighley(1991), Parry, Moyser and Day(1992), 김원태(2001), 김영인(2002), 박가나(2001, 2008), 김명정(2009) 등의 경험연구에서 참여의 시민성함양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게 제시되고 있지만(Pateman, 1970; Verba & Nie, 1972; Parry, Moyser and Day, 1992; Thompson, 1970; Nagel, 1987; Richardson, 1983; Barber, 1984), 엘리트민주주의론자들은 참여의 효과(도구적 효과, 통합적 효과, 본질적 효과, 시민교육적 효과)의 대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참여민주주의론자들은 참여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참여를 통해서 참여자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도구적 효과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효과(통합적 효과, 본질적 효과, 시민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양 민주주의 진영의 견해가 갈린다(김영인, 2002). 생각컨대 진정한 사회통합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동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과정은 필수적으로 전제된다는 점에서 참여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회가 안정적인 선진국들의 시민참여 수준이 불안정한 개발도상국보다는 높다는 Thompson (1970)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외에 참여가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의 본질적인 참여욕구를 실현한다는 본질적 효과나 참여과정에서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져 시민성이 함양되어 간다는 시민교육 효과도 참여의 시민성 함양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볼 때 부인하기 어렵다.

참여주체와 영역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청소년참여가 참여의 한 유형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청소년참여의 효과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청소년참여의 효과는 그 효과의 방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참여가 참여주체인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 자신에 대한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가 참여 대상이자 영역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에 대한 효과이다. 참여자 자신에 대한 효과는 본질적 효과, 인권보장적 효과, 시민교육적 효과로 세분화될 수 있고, 공동체에 대한 효과는 투입적 효과, 통합적 효과, 통제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질적 효과는 청소년참여를 통해서 청소년 스스로 자존감과 자기실현감을 가지는 것이다.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아리스토텔

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정치공동체를 갖지 않는 자는 신이거나 동물 중 하나”라고 한 점에서 보듯이 정치공동체에의 참여는 인간본성과 불가분성을 갖는다. 청소년참여의 본질적 효과는 정치적 동물로서 청소년의 본질적인 참여욕구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인권보장적 효과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이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고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참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참여권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자신의 삶과 미래에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참여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 지닌 당연한 인권이다.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인권내용을 집대성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참여의 권리를 아동의 당연한 인권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도 참여의 인권적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시민교육적 효과는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의 시민성을 학습하고 시민으로서 생활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Richardson(1983)은 “참여는 참여자의 자기존중과 존엄성 획득, 참여자의 지적 능력과 자신감 개발,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 발견 등의 시민교육적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참여가 지니는 이런 시민교육적 기능이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발휘되어 “청소년참여→청소년의 자기개발→청소년의 존재양식의 발전적 변화”라는 동태적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청소년참여의 시민교육적 효과이다. 여기에서 “존재양식의 발전적 변화”라 함은 청소년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투입적 효과는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의견, 아이디어, 에너지 등을 정치과정, 정책과정, 의사결정과정 등에 투입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정책이나 법·제도, 청소년시설과 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견, 아이디어, 열정은 참여를 통해서 정치가, 정책입안자, 입법가, 시설과 단체의 운영자 등에게 전달된다. 정치가, 정책입안자, 입법가, 시설과 단체의 운영자 등에게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는 청소년 정책이나 법·제도, 청소년시설이나 단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

통합적 효과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가면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결속력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며 제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기관 운영 등에 대해 정당성을 더 많이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Aristoteles(1996)의 “서로 다른 자들이 정치참여 과정을 통해서 각각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이것이 모여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시민들은 스스로 통치하고 통치 받는 최선의 국가를 이룬다”라는 말처럼 청소년들은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 높은 이해와 일체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성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통제적 효과는 청소년참여를 통해서 기성세대 중심인 정치가, 공무원, 입법자, 청소년시설과 단체 운영자 등의 권력남용이나 사적 이익 추구를 통제하는 것이다.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청소년들의 의사나 요구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하려고 할 때 청소년참여는 이를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선거권을 가진 청소년들의 참여는 권력자들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정책결정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오늘날 정보사회의 인터넷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여론을 표출하고 집약하여 행동화함으로써 청소년참여의 통제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 청소년참여의 유형

청소년참여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다. 먼저 정보사회 특성을 고려해 참여활동의 공간이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오프라인 청소년참여와 온라인 청소년참여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청소년참여는 전통적인 참여공간인 실제의 장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매체와 기술 없이도 가능하다. 온라인 청소년참여는 정보·통신매체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가상공간인 인터넷 무대를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매체와 기술을 활용한 참여이다. 온라인 청소년참여는 오프라인에 비해서 정보·통신매체 활용기술이 필요한 반면 참여비용이 저렴하다. 청소년세대의 특성상 온라인 청소년참여가 활발하다. 최근의

촛불집회에서 보듯이 온라인 청소년참여를 통해서 의제를 설정하여 공론을 모은 뒤 구체적인 행동전략을 수립하여 온라인 청소년참여와 오프라인 청소년참여를 결합시키기도 한다.

청소년참여는 제도성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적 청소년참여와 비제도적 청소년참여로 구분될 수 있다. 제도적 참여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화 되어 있거나 법규범화 되어 있는 청소년참여를 말한다. 제도적 참여에 속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선거참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들 수 있다. 비제도적 참여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화 되어 있지 않거나 법규범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참여를 말한다. 비제도적 참여에 속하는 것으로 집회나 시위에 대한 참여를 들 수 있다. 청소년참여의 실재를 보면 청소년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와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참여경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참여의 유형을 나누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국가 권력을 토대로 하는 국가기능 또는 정치과정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이다. 이 기준에 의해서 청소년참여는 청소년 사회참여와 청소년 정치참여로 분류된다.

청소년 사회참여는 국가기능 또는 정치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 사회의 공공영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청소년 사회참여는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의 일에 관여하는 것으로, 그 예로 시민사회나 지역사회의 공공영역 활동에 관여하는 자원봉사활동, NGO활동,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 정치참여는 국가기능 또는 정치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정책·정치영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기준에 따라서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다. 청소년 정치참여의 장소적 수준에 따라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정치참여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적 정치참여,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직접 하지 않고 대표자를 뽑는 선거참여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비선거참여로 세분화 될 수 있

는 것이다. 또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정책참여와 정치과정참여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청소년의 정책참여는 청소년이 국가의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정책참여는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제설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서 법률로 제도화될 때 가능하고 지속적인 성격을 지닌다. 오늘날 청소년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참여가 강조되고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를 두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과정참여는 청소년들이 선거과정에 참여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서 정치 집회 및 시위, 정치적 결사체의 형성, 공직자 접촉 및 로비, 정당활동, 인터넷상의 모임과 토론 등에 참여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각종 지방선거 등에의 참여는 청소년 정치과정참여의 중요한 모습이다. 19세로 선거연령이 인하되어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과 더불어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도 선거기간 동안 다양한 선거과정에 참여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선거쟁점에 대해 토론과 숙고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치과정참여를 활발하게 전개하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모임과 토론은 정보화세대로서 청소년들의 장점을 살리고, 공간적, 경제적, 시간적 제약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많이 선호되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보듯이 오프라인에서의 정치 집회 및 시위에도 많이 참여하며, 정당에 따라서는 청소년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있어 정당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라. 청소년참여를 통한 정치사회화와 정치의식 형성

청소년은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학습경험을 갖게 된다. 이런 청소년참여과정에서의 학습경험은 청소년의 중요한 정치사회화 경로가 된다. 청소년기는 정치사회화에 있어서 민감기로서(이순형, 1994) 참여를 통한 청소년기의

정치사회화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성인 시민이 되어서 맞이할 여러 인생 단계들의 정치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간단계이며(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교육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높은 가소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정치사회화는 정신역동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김광웅, 방은령, 2001).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역동이론은 Freud의 이론을 통해서 정치사회화를 설명한다. Freud는 유아기와 아동기에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개인의 성격과 자아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이라고 보았다. Freud의 관점을 청소년기의 정치사회화에 적용하면 청소년은 가족(또는 부모)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아서 정치의식과 자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Greenstein, Easton, Hess 등에 의하면 부모와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아동이 정치 권위에 대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식을 형성한다고 한다(김광웅, 방은령, 2001, 재인용). 이 이론은 정치사회화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을 잘 설명하지만 다른 사회화 매개체의 영향을 소홀히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유아기나 아동기의 경험을 결정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행동주의자의 강화이론과 Bandura의 모방학습이론을 통해서 정치사회화를 설명한다. 강화이론에 의하면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바람직한 반응에 강화(보상)를 줌으로써 개인은 그 반응을 내면화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은 정치사회화에 있어 바람직한 정치의식과 행동적 반응을 보일 때마다 강화를 받음으로써 이 정치의식을 내면화하고 정치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Bandura의 모방학습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모델의 관찰과 모방을 통해 모델과 동일시함으로써 태도와 행동을 학습한다. 모델에는 살아 있는 인간,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 등이 있다(변영계, 2000). 이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은 정치인,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정치적 역할이나 내용 등의 모방을 통해서 정치의식과 행동을 학습한다. 사회학습이론은 정치사회화에 있어 보상이나 대중매체의 역할을 잘 설명하지만 정치사회

화를 단순한 자극-반응의 관계로 봄으로써 정치학습자의 능동성을 무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인지발달이론은 Piaget의 동화, 조절, 평형화 이론을 통해서 정치사회화를 설명한다. Piaget에 의하면 인지구조를 바탕으로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적 능력을 발달시킨다. 구체적으로 환경으로부터의 정보를 기존의 인지구조에 따라 처리하는 동화와 환경으로부터의 정보를 기존의 인지구조에 따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인지구조를 수정하는 조절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지적 능력은 발달해 간다. Piaget의 인지구조 발달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외에 성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은 정치환경 또는 문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때로는 정치문화에 동화해가고 때로는 자신의 인지구조를 조절해가면서 정치의식이나 행동을 형성·발전시키게 된다. 이 이론은 정치사회화에 있어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구조의 발달을 잘 설명하지만, 감정의 발달을 소홀히 취급한다는 문제점이 있다(이동신, 1986).

위와 같은 이론에 의해서 설명되는 청소년의 정치사회화는 가족, 학교, 동료집단, 대중매체 등의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Bar-Tal & Saxe, 1990; Sears, 1990). 가족은 청소년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강력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학교는 공식적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동료집단은 우정을 토대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정치의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박종남(1997)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치의식 형성에 있어서 동료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중에서도 신문과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크다(이동신, 1986).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보편화된 인터넷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통한 이런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청소년의 정치의식은 형성·발전된다. 청소년의 정치의식은 청소년 자신의 정치생활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청소년은 가정, 학교, 교회, 각종 사회집단 등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정치의식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이 집단과 이 집단을 토대로 하는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은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정, 학교, 인터넷상의 모임 등과 같은 자신의 생활의 장에서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청소년이 어떤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소속집단의 민주주의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은 참여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정치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치의식은 한층 더 중요성을 가진다.

더 나아가 청소년은 점차 성인 시민이 되어서 주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정치의식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치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성인기의 정치의식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⁵, 일반적으로 상당 부분 지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Sears, 1990; 이순형, 1994). 특히 지속모형(Conover & Searing, 1994)과 중간모형(Dawson, Prewitt and Dawson, 1977)에 입각하면 청소년의 정치의식은 장래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잠재적 원동력이 된다.

청소년의 정치의식은 정치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상호 변증법적인 교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 개인의 독특한 정치의식과 행동은 외부적이고 맥락적인 실재에 의해서 조건지워지나 이 실재를 그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구성하는가에 개인의 정치의식과 행동의 독특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청소년의 참여과정은 개인의 발달과 사회환경요소에 의해 영

⁵ Conover & Searing(1994)은 지속모형(endurance model)과 발달모형(developmental model)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정치의식과 신념은 대부분 변하지 않고 성인기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후자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정치의식과 신념은 변화되어 거의 성인기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Dawson, Prewitt and Dawson(1977)은 초기모형(primacy model), 중간모형(intermediate model), 근접모형(recency model)에 의해서 성인기의 정치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초기모형은 아동 초기의 정치의식 형성, 중간모형은 아동 후기와 청소년기의 정치의식 형성, 근접모형은 성인기의 정치의식 형성이 성인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향을 받는 정치학습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정체성 등이 형성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사회의식과 정체성은 청소년 개인의 인지적·정의적 구조뿐 아니라 청소년이 속한 사회의 정체성과 참여과정에서 부딪히는 정치문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Sigel, 1989).

청소년의 정치의식은 공동체에 관한 일을 이성적으로 질서지우려고 하는 요구에 대한 일반적인 자각과 관련된다. 이성적인 질서지우기는 단순한 질서일뿐 아니라 윤리적 질서, 정의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다. 이러한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뿐 아니라 타인의 자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의식의 이러한 두가지 형태, 즉 개인의 주관적인 인성과 국가 또는 공동체에 의한 집단자아에 대한 자각이 정치의식의 뿌리이다(Lea, 1982). 이러한 정치의식은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수행에 관계되기 때문에 청소년이 함양하는 시민성의 중심요소가 된다.

청소년의 정치의식은 청소년이 정치현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와 관련된 태도를 총칭한다. 이러한 정치의식은 다양한 하위요소로 구성되지만 이 중 정치신뢰, 정치관심도, 정치관용, 정치참여의식 등⁶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민들의 불신, 무관심, 비관용, 낮은 정치참여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정치의식의 요소들이 오늘날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의 기본적인 심리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⁶ 정치신뢰는 정치인과 정치기구의 능력과 도덕성, 효율성 등에 대한 믿음으로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사회자본이다. 정치관심은 정치에 대한 흥미,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정치관용은 자신이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의 이념이나 의사표현, 활동 등을 용인하는 것으로 다원민주주의 실현의 전제가 된다. 정치참여의식은 정치과정에 관여하고자 하는 심리적 정향으로서 구체적으로 투표 또는 집회, 시민단체, 접촉 등과 같은 비투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심리상태이다.

Ⅲ.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대상과 방법
2. 조사의 내용과 도구
3. 표본의 특성

Ⅲ.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대상과 방법

가. 조사대상

본 연구는 사회·정치의식과 참여의 측면에서 청소년과 성인세대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은 크게 청소년과 성인의 두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각 조사대상별 모집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은 법률상으로는 9~24세의 연령집단으로 정의되지만(청소년기본법),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반영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 해당 학령기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높은 취학률⁷을 고려할 때 소수에 불과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성인”은 취업·결혼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30대 이상 연령층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성인과 더불어 “대학생” 집단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대학생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단계에 있는 집단으로서 사회·정치의식의 측면에서 두 집단과의 비교가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단, 성인집단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대학생의 연령층은 30세 미만으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별 구체적인 모집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중·고교생 : 조사시점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단,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등 특수학교 제외)에 재학중인 학생
- ② 대학생 : 조사시점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대학 및 대학교(교대, 방송통신대, 산업대, 기술대 등 특수학교 제외)에 재학중인 30세 미만의 학생

⁷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중학교 취학률은 93.2%, 고등학교 취학률은 90.0%에 달한다.

③ 일반성인⁸ : 조사시점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30세 이상의 성인

나. 표집 및 조사방식

본 조사의 목표표본은 본원의 통합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중학생 3,360명, 고교생 3,120명, 대학생 1,376명⁹, 성인 1,216명으로 결정하였다. 학생집단은 교육통계연보(2008)를, 성인집단은 인구주택총조사(2005)를 표집틀로 하여 중·고교생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대학생은 층화다단계집락할당표집, 성인은 층화집락할당표집의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III-1> 표집설계

모집단	표집틀	표집방법	조사방법
중·고교생	교육통계연보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집단조사
대학생	교육통계연보	층화다단계집락할당표집	개별조사
일반성인	인구주택총조사	층화집락할당표집	개별조사

조사대상 집단별 표집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 : ① 전국을 12개 행정구역(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으로 층화한 뒤 지역별 학생수를 고려하여 목표표본 할당. ② 층화지역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학교 수 결정(학교당 1개 학년 추출 후 1개 학급 전원조사 원칙). ③ 학교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¹⁰을 적용하여 조사대상 학교 선정¹¹. ④ 선정된 학교에서 1개 학년을 추출¹²한 뒤,

⁸ 대학생의 상당수도 법적으로는 성인(성년)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30세 이상 연령층을 “일반성인”으로 표현하였다.

⁹ 데이터 검증작업을 거쳐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표본은 1,363명이다.

¹⁰ 12개 지역별로 중학교 리스트 정렬→12개 지역별 중학교 학생수 누적→12개 지역별 중학교 전체 학교 학생수를 정해진 학교수로 나누어 추출간격 결정→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학교 추출

¹¹ 단, 실사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학교, 학급수가 2개 이하인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학교는 제외.

해당학년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최종 조사대상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고등학생 : 층화의 기준으로 지역과 더불어 학교계열(일반고, 전문고)을 설정하였으며, 그 이후의 표집절차는 중학교와 동일.

대학생 : ① 모집단을 6개 권역(서울/경기/인천,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경상/부산/대구/울산)과 대학 유형(2·3년제, 4년제)별로 층화하여 층화섹터별 학생수를 고려하여 목표표본 할당. ② 4년제대학은 64명, 2·3년제 대학은 32명을 기본 표집인원¹³으로 하여 층화섹터별 조사대상 학교 수 결정. ③ 학교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을 적용하여 조사대상 학교 선정. ④ 선정된 학교에서 기본 표집인원에 해당하는 표본 추출.

일반성인 : ① 전국을 12개 행정구역으로 층화하여 층화지역별 인구수(30세 이상)를 기준으로 목표표본 할당. ② 층화지역별로 연령구간별 x 성별 비례 최소 추출인원수(추출단위)를 산정하고 조사대상 세부 행정단위(읍면동) 수 결정. ③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¹⁴을 적용하여 조사대상 지역 선정. ④ 선정된 지역별로 최소 추출인원수에 해당하는 표본 추출.

조사는 2009년 7월에서 8월 두달간에 걸쳐 실시되었고 중·고교생은 학급 단위의 집단조사, 대학생과 일반성인은 조사원 면접에 의한 개별조사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통계의 분석은 SPSS(v. 1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카이스퀘어 검증, 상관관계분석, 평균값 차이분석(T-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¹² 각 학교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을 순차적으로 추출

¹³ 학교당 기본 표집인원 기준 : 학년수(4년제 4, 2·3년제 2)x계열수(2: 인문사회계, 이공계)x성별(2)

¹⁴ 12개 지역별 읍면동 인수수 누적→12개 지역별 읍면동 전체 인구수를 정해진 읍면동 수로 나누어 추출간격 결정→난수를 발생시켜 starting point를 정한 후 추출간격에 해당되는 읍면동 결정

2. 조사의 내용과 도구

가. 조사내용

조사의 내용은 크게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사회·정치의식과 참여, 국가·사회현실 인식의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정치문제 관심도는 ①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본인과 가족구성원의 관심도, ② 사회·정치문제와 관련한 주변사람들과의 대화빈도, ③ 사회·정치문제 관련 보도를 접하는 경로와 ④ 매체별 사회·정치문제 보도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정치의식과 참여 영역에서는 ① 사회·정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특성(자존감과 권위주의적 성격), ② 민주주의적 태도(신뢰성, 타협의 정신, 관용의 태도, 비판적 태도), ③ 정치의식(집단주의 가치, 탈물질주의 가치, 평등주의 가치), ④ 국민의식(국가주의, 국제주의, 애국심), ⑤ 정치사회 통제감(리더십 능력, 정책적 통제감)을 다루었다.

국가·사회현실 인식 영역에서는 ①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② 현단계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을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한 ③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나. 조사도구

조사에 활용된 주요 조사도구(척도)는 사회심리 영역의 자아존중감과 권위주의적 성격, 사회·정치의식 영역의 민주주의적 태도와 정치의식, 국민의식, 정치사회 통제감 등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이들 척도에 대한 적합성과 신뢰도를 검증한 뒤 부분적인 문항 수정작업을 거쳐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각 척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요인 자아존중감

지금까지 사회·심리 영역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가 가장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Rosenberg 척도의 문항내용이 개인주의에 기반한 서구문화에 편향되어 공동체적·집단주의적 전통이 강한 문화권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Crocker, Luhtanen, Blaine, & Broadnax, 1994; Luhtanen & Crocker, 1992; Markus & Kitayama, 1991). 즉, Crocker 등은 집단주의를 추구하고 소속집단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있어 자존감은 서구에서 주장하는 독립된 자아(independent self)와는 구별되는 상호의존적 자아¹⁵(interdependent self)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rocker et al., 1994).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자존감 측정에 있어서 집단주의적 관점을 한유화, 정진경(2007)의 2요인 자존감 척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 척도의 문화적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5)과 상호의존적-독립적 자아개념(Markus & Kitayama, 1991)에 기초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고안된 12개의 문항(개인주의적 요인 6, 집단주의적 요인 6)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에서는 응답항목이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4개 항목(“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에서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의 집단별로 전체 척도가 .85, .82, .71이었고, 요인별로는 개인요인 자존감이 .74, .73, .61, 집단요인 자존감은 .79, .77, .62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성격

“권위주의적 성격”(authoritarian personality)은 Adorno 등(1950)에 의해

¹⁵ 독립된 자아란 타인이나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를 이해하는 것으로 개인의 속성에 맞추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상호의존적 자아는 자아개념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타인의 안녕과 반응을 자신의 자존감 형성의 준거틀로 활용하고 이를 자신의 인지, 동기 및 감정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충래, 2000, p. 111).

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서, 이들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권위주의 성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을 밝혀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potentiality for Fascism scale, F-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를 활용한 후속연구를 통해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인지 측면에서 인지적 경직성과 애매함을 못 참는 특성이 있고(Block & Block, 1951), 태도 측면에서 소수집단의 성원을 배척하고 보수적인 정치·경제적 태도를 지니고 권력자나 권위자의 태도를 수용하며(Izzett, 1971), 보수적·권위주의적인 후보들에게 투표하는(Higgins & Kuhlman, 1965) 성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dorno 등의 F-척도는 백인, 우파(right wing) 중심의 편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척도의 수정·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Adorno 등의 F-척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변안한 민경환(1989)의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를 조사에 활용하였다. 이 척도를 활용하여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척도의 내적 신뢰도가 낮은 수준(.51)으로서 조사에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이에 따라 F-척도의 9가지 구성요인을 모두 반영하는 선에서, 요인분석과 문항내용을 통해 14 개 문항을 제외¹⁷하고 21개 문항만을 본조사에 활

¹⁶ 이와 같은 낮은 신뢰도는 같은 척도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경환(1989), 서영석·이정림·차주환(2006)의 연구(각각 .86, .89)와 뚜렷하게 대비되는데, 이것은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부적합한 내용의 문항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¹⁷ 원래의 척도에서 제외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2. 과립치한, 불량배, 걸인 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앨 수만 있다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5. TV에서 키스 장면 등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6.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격한 교육과 강인한 결단력 그리고 가족과 나라를 위해 분투하려는 의지이다. 7. 사람은 모두 천성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8. 사람들은 팔자에 따라 살게 마련이다. 12. 아이가 몇 명이 되더라도 남자 아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16. 관혼상제는 남부럽지 않게 치러야 한다. 18. 우리사회에서 성문란이 가장 큰 도덕적인 타락이다. 20.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궁합이 중요하다. 23. 간통을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한다. 25. 내 자식은 맞고 들어오는 아이보다 때리고 들어오는 아이로 만들겠다. 27. 경쟁에서 이기고 볼 일이다. 28. 실제로는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남에게 잘못되

용하였다. 또한 문항의 내용을 평이한 형태로 다듬고 응답항목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에서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중·고교생이 .82, 대학생이 .90, 일반성인이 .81로서 크게 향상되었다.

정치의식

정치의식(political consciousness)은 정치현상에 대한 인식·평가·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정치문화에 대한 수용과 반응의 과정, 즉 정치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어 나타나는 산출물을 의미한다(김영인, 2003: 79). 본 연구에서 정치의식 측정을 위해 활용할 조사척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적 태도”로서, 광진영(1990)이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기로 한다. 광진영은 정치사회화와 관련한 선행이론들(Cohen, 1971; Dahl, 1976; Lasswell, 1951)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민이 갖추어야 할 민주주의적 태도로서 “신뢰성” “타협의 정신” “관용의 태도” “비판적 태도” “정치적 효능감”의 다섯가지를 들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 다른 조사항목(정치사회적 통제감)과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정치적 효능감”을 제외한 13개 항목을 조사에 활용하였다. 조사 완료 후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를 측정한 결과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의 집단별로 전체 척도가 .85, .91, .80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요인별로는 “신뢰성”이 .75, .76, .66, “타협의 정신”이 .69, .77, .59, “관용의 태도”가 .69, .77, .57, “비판의식”이 .62, .77, .62로 나타났다.

둘째, 박희봉, 이희창(2006)이 개발한 “정치이데올로기”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집단/개인주의 가치” “물질/탈물질주의 가치” “자유/평등주의 가치”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개인주의 가치”는 모두 6개의 항목으로서 전통적 유교주의, 가족주의, 집단주의, 의식(儀式)주의를 측정

어 보이는 일들을 공중 앞에서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9. 위대한 지도자가 시대를 만든다. 33. 혼자 있게 되면 잡념이 생기게 되므로 혼자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35. 우리의 명예에 모욕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탈물질주의적 가치”는 Inglehart(1997)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탈물질주의는 참여, 환경보존 등 경제발전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안정·사회안정 정책을 선호하는 물질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Inglehart, 1997). “자유/평등주의적 가치”는 5개 항목으로서, 평등주의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국가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자유주의는 이와 상반되는 태도를 의미한다.

조사 완료 후 측정된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의 집단별로 “개인/집단주의”가 .69, .70, .55, “물질/탈물질주의”가 .78, .75, .59, “자유/평등주의”가 .68, .72, .58로서 일반성인 표본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국민의식

국민의식은 일상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개념이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인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Kosterman과 Feshbach(1989)는 Tajfel(1978)의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기초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국민의식을 측정하는 척도인 “national identity scale”을 개발하였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자기개념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으로 구성된다. 소속집단(내집단)으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적 정체성의 원천은 국가, 민족, 종교, 직업, 학력, 계층 등 다양한데, 이중 국가를 통해 부여되는 국민의식(national identity)은 사회적 정체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사회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Kosterman과 Feshbach(1989)의 척도는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의식, 다른 국가·국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하는 척도로서 널리 활용되어 왔는데, Karasawa(1994)는 이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국민의식의 구성요소로서 “국가주의”(nationalism),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애국심”(patriotism) “국가유산(에 대한 태도)”(national heritage)의 다섯가지를 추출한 뒤 부분적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arasawa 척도에 대한 내용검토를 통해 우리사회에 적용하기 어려운 “국가유산” 영역의 문항을 제외¹⁸한 4개 영역의 총 14 문항을 활용하였다.

조사 완료 후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를 측정한 결과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의 집단별로 “국가주의”가 .75, .67, .49, “국제주의”가 .53, .48, .38, “애국심”이 .68, .54, .55로서, 일반성인 표본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분석에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정치사회적 통제감

임파워먼트는 1960년대 브라질의 교육가인 Paulo Freire의 철학에 바탕을 둔 개념(유평수, 2008)으로, 행위자의 자기효능감을 고양(enhancing)시킴으로써(Conger & Kanungo, 1988),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Torre, 1986)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 문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치사회적 영역에서의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성인세대와 비교하기로 한다. 조사에 활용된 척도는 Zimmerman과 Zahniser(1991)의 정치사회적 통제감(socio-political control) 척도이다. 정치사회적 통제감은 한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정치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효능에 대한 믿음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라고 할 수 있다(Zimmerman, 1991).

정치사회적 통제감 척도는 리더십 능력(leadership competence)과 정치(책)적 통제감(policy control)의 두가지 요인을 측정하는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본 조사에서는 이중 16개의 문항을 활용)되어 있는데, 이 요인점수를 조합

¹⁸ Karasawa 척도에서 “국가유산” 영역은 Kosterman과 Feshbach(1989)의 척도를 일본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으로서 일본의 고유한 문화유산 관련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본 조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함으로써 한 개인의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의 수준과 형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두 점수가 모두 높은 경우, 두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 둘 중 하나는 높은 반면 하나는 낮은 경우 등으로서 한 개인이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임파워먼트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정치적 통제감은 높지만 리더십 능력은 낮은 사람은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활동을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다(Marc A. Zimmerman & Zahniser, 1991: 202).

조사 완료 후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를 측정한 결과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의 집단별로 전체 척도가 .67, .62, .61로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3. 표본의 특성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표본의 특성을 개관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중·고교생은 6,784명(중학생 3,350, 고교생 3,434)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지역권역별¹⁹로는 시군부²⁰ 거주자가 50.7%로서 과반수에 달하였고, 광역시가 34.6%, 서울 거주자가 14.7%였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중·고교생 표본이 10대로 구성되어 있고, 부친의 학력별²¹로는 고교/전문대 졸업자가 55.0%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대졸 이상이 37.4%, 중졸 이하가 7.6%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정의 경제수준²²은 중간층이 43.9%로서 다수였으며, 상층과 하층이 각각 32.1%, 하층이 24.0%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 표본(1,363명)은 성별 비율은 중·고교생과 마찬가지로 모집단 인구구성을 반영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며 지역권역별로는 시군부가 50.0%로서 다수였고, 광역시가 33.3%, 서울이 16.7%로 나타났다. 대학생층은 모두 2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친의 학력별로는 고교/전문대 졸업자가 61.3%였으며 대졸 이상이 29.1%, 중졸 이하는 9.5%에 머물렀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중간층 51.4%로서 가장 많았고, 상층 31.0%, 하층 17.6%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일반성인 표본(1,220명)의 경우, 남녀 성비는 거의 동일하였으며, 지역권역별로는 광역시 거주자가 중·고교생, 대학생 표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28.7%로서 다수였고, 이어서 60대 이상이 23.0%였으며 50대가 19.7%로서 가장 적었다. 본인의 학력은 고교/전문대 졸업자가 약 6할(59.1%)에 달했으며 중졸 이하, 대졸 이상 학력자

¹⁹ 지역권역은 자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²⁰ 서울·광역시 이외의 행정구역 전체를 포괄함.

²¹ 7점 척도의 응답항목(“1. 학교 안다님” ~ “7. 대학원 졸업”)을 3점 척도로 리코드한 결과임.

²² 7점 척도의 응답항목(1~7)을 3점 척도로 리코드한 결과임.

는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간층이 50.0%로서 가장 많았고 하층과 상층은 각각 26.5%, 23.5%로서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III-2> 표본의 특성

		중·고교생		대학생		성인	
		명	%	명	%	명	%
전체		6,784	100.0	1,363	100.0	1,220	100.0
성별	남자	3,581	52.8	755	55.4	600	49.2
	여자	3,203	47.2	608	44.6	620	50.8
지역권역	서울	995	14.7	227	16.7	250	20.5
	광역시	2,347	34.6	454	33.3	330	27.0
	시군부	3,442	50.7	682	50.0	640	52.5
연령대	10대	6,784	100.0	-	-	-	-
	20대	-	-	1,363	100.0	-	-
	30대	-	-	-	-	350	28.7
	40대	-	-	-	-	350	28.7
	50대	-	-	-	-	240	19.7
	60대+	-	-	-	-	280	23.0
부친학력	중졸 이하	502	7.6	130	9.5	-	-
	고졸·전문대졸	3,614	55.0	836	61.3	-	-
	대졸 이상	2,456	37.4	397	29.1	-	-
본인학력	중졸 이하	-	-	-	-	239	19.6
	고졸·전문대졸	-	-	-	-	721	59.1
	대졸 이상	-	-	-	-	260	21.3
가정경제 수준	하	1,602	24.0	240	17.6	323	26.5
	중	2,938	43.9	700	51.4	610	50.0
	상	2,147	32.1	423	31.0	287	23.5

IV.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1.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2.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3. 사회·정치보도 접촉과 신뢰도

IV.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이 장에서는 ①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본인과 가족구성원의 관심도, ② 사회·정치문제와 관련한 주변사람들과의 대화빈도, ③ 사회·정치문제 관련 보도를 접하는 경로와 ④ 매체별 사회·정치문제 보도내용의 신뢰도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1.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사회·정치문제 관심: 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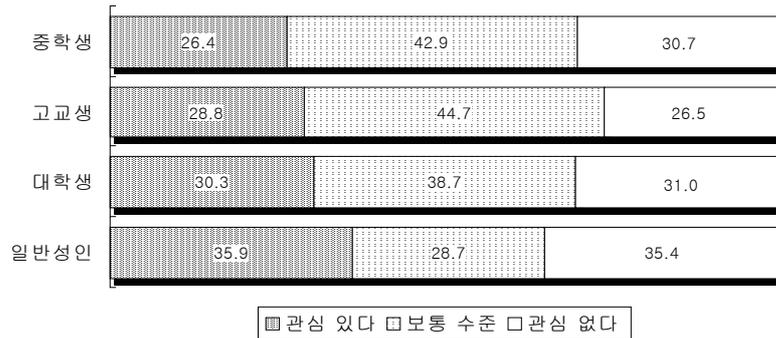
평소에 우리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였다²³.

응답결과([그림 IV-1])를 보면 사회·정치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성인이 35.9%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생(30.3%), 고교생(28.8%)의 순이었으며, 중학생이 26.4%로 가장 적었다. 일반성인이 청소년들보다, 또한 청소년층의 경우 교급이 올라갈수록 우리사회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사회·정치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무관심층의 비율도 일반성인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즉, 무관심층의 비율은 고교생이 26.5%로서 중학생(30.7%)보다는 낮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다시 증가(31.0%)한 뒤 일반성인에 이르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청소년기에서 성인단계로 옮겨갈수록 사회·정치문제

²³ 조사표의 응답항목은 “전혀 관심이 없다”에서 “매우 관심이 있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지만, 본문에서 빈도분포 분석은 3점 척도로 재구성한 값을, 평균값(차이검증)은 원래의 5점 척도 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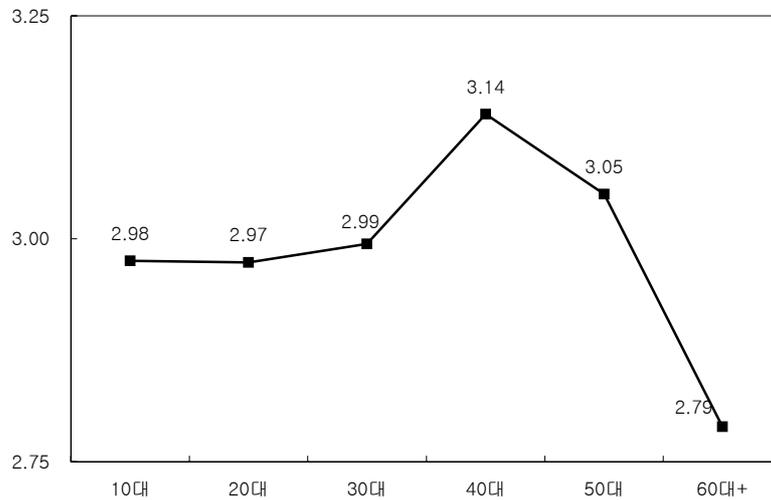
에 대한 관심증과 무관심증이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IV-1]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 본인

사회·정치문제 관심도에 대한 응답결과의 연령대별 평균값을 환산한 결과는 [그림 IV-2]와 같다. 10대에서 30대까지는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왕성한 사회활동이 시작되는 40대에 이르러 급격하게 증가한 뒤 5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60대 이후에는 청소년들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그림 IV-1]에서 성인층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무관심층의 상당수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10대 청소년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20, 30대와 유사한 수준이고 60대 이상의 노년층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임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V-2]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 본인- 연령대별

사회·정치문제 관심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결과(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하면 <표 IV-1>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대학생과 일반성인은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었다($p < .001$). 반면 중·고교생은 여자가 남자보다 관심도가 다소 높은 수준이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지역별로는 대학생과 일반성인은 서울이 광역시나 시군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었으나($p < .05$, $p < .001$) 중·고교생의 경우 세 지역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부친의 학력별로는 중·고교생은 대졸 이상, 대학생은 중졸 이하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뚜렷하게 대비되었다($p < .001$, $p < .01$). 일반성인은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중·고교생과 일반성인은 상층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반면($p < .001$), 대학생은 하층이 가장 높게 나타나($p < .05$) 대조를 이루었다.

<표 IV-1>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2.98(.98)	2.97(.99)	3.00(1.03)
성별	남자	2.96(1.03)	3.08(1.02)	3.27(1.08)
	여자	2.99(.92)	2.85(.94)	2.74(.90)
	통계	t=- .91	t=4.32***	t=9.12***
지역	서울	2.97(.97)	3.13(.99)	3.24(.97)
	광역시	2.98(1.00)	2.95(1.02)	3.11(1.07)
	시군부	2.97(.96)	2.94(.96)	2.85(1.00)
	통계	F= .14	F=3.35*	F=16.23***
부친학력	중졸 이하	2.96(1.04)	3.14(.86)	2.64(1.04)
	고졸·전문대졸	2.91(.96)	2.90(1.00)	2.98(.99)
	대졸 이상	3.08(.99)	3.08(1.00)	3.40(.99)
	통계	F=22.99***	F=6.87**	F=35.69***
가정경제 수준	하	2.92(.99)	3.10(.97)	2.84(.98)
	중	2.92(.94)	2.90(.96)	2.98(1.04)
	상	3.10(1.01)	3.02(1.04)	3.22(1.03)
	통계	F=24.71***	F=4.13*	F=10.61***

주 1) 통계 : * p< .05, ** p< .01, *** p< .001(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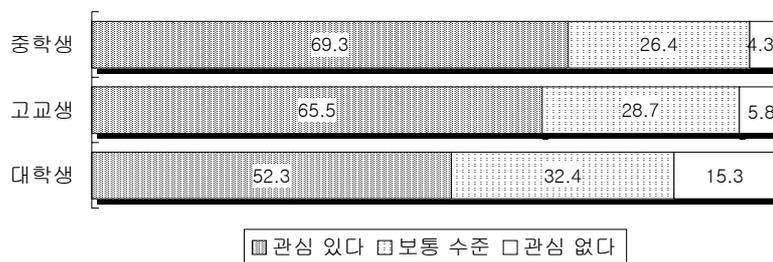
사회·정치문제 관심: 가족

중·고교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가족, 즉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자매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게 하였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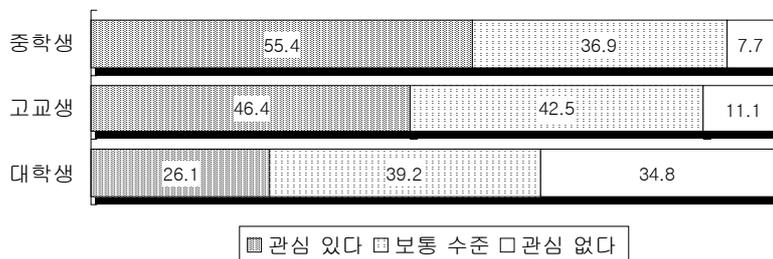
먼저 아버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그림 IV-3]), 세 집단 모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중학생이 69.3%로서 가장 많았고, 고교생이 65.5%였으며 대학생이 52.3%로서 가장 적었다. 아버지가 사회·정치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고교생이 모두 1할 미만인

²⁴ 조사표의 응답항목은 “전혀 관심이 없다”에서 “매우 관심이 있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지만, 본문에서 빈도분포 분석은 3점 척도로 재구성한 값을, 평균값(차이검증)은 원래의 5점 척도 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반면 대학생이 15.3%로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아버지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성인의 경우 40대 이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IV-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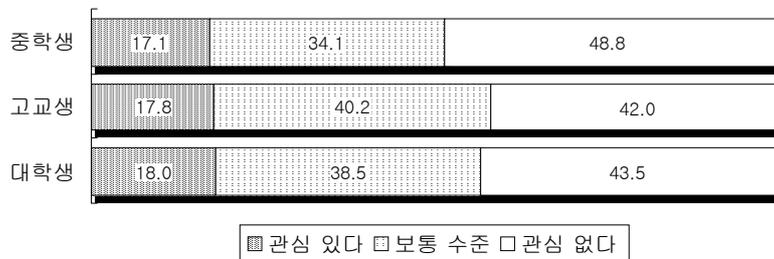
[그림 IV-3]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 아버지



[그림 IV-4]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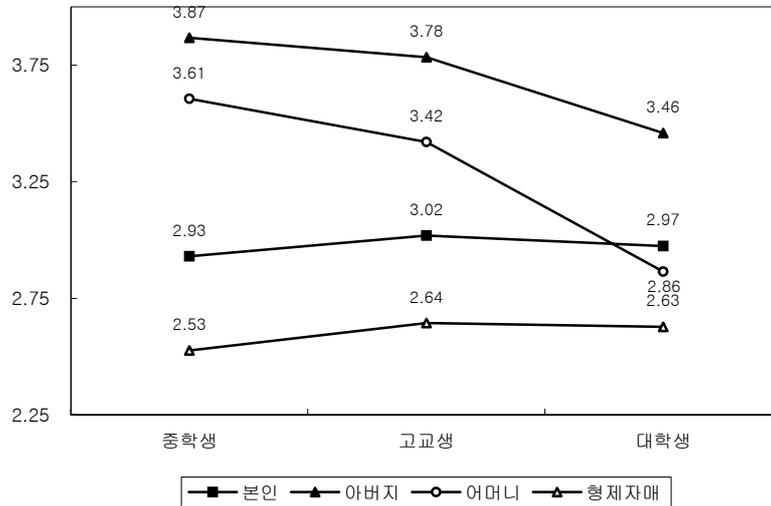
어머니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평가([그림 IV-4])에서는 관심이 있다는 응답률은 중학생이 55.4%, 고교생이 48.4%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1할 안팎 수준이었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에는 보통수준이 가장 많았으며(39.2%), 관심이 있다(26.1%)보다는 관심이 없다(34.9%)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사회·정치문제에 대해 관심이 더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제·자매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과 고교생, 대학생 세 집단 모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4할을 상회(48.8%, 42.0%, 43.5%)하여 다수를 차지하였고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2할 미만에 머물렀다(17.1%, 17.8%, 18.0%). 이처럼 형제·자매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게 평가된 것은 이들도 대부분 청소년층에 속하고 형제·자매의 나이가 자기보다 어린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IV-5]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 형제·자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족구성원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그림 IV-6]과 같다.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어머니, 본인의 순이었으며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도 평가가 가장 낮았다. 고교생의 경우에도 관심도의 아버지, 어머니, 본인, 형제·자매의 순으로 중학생과 동일하였으나 자신과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격차가 감소경향을 나타내어, 대학생에 이르러서는 어머니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관심도에 대한 평가는 청소년들의 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경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감소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림 IV-6]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 교급별

자신과 가족구성원들의 사회·정치문제 관심도에 대한 평가결과의 상관관계를 산출해 보면 다음의 <표 IV-2>와 같다. 중·고교생과 대학생 모두 부모, 형제·자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청소년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가족구성원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계수의 크기는 중·고교생, 대학생 모두 형제·자매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순이었다.

<표 IV-2> 가족구성원들의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상관관계

	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본인	-	.33***	.26***	.34***
아버지	.44***	-	.59***	.20***
어머니	.40***	.53***	-	.26***
형제·자매	.51***	.40***	.51***	-

주 1) 통계(Spearman's rho) : * p< .05, ** p< .01, *** p< .001

2) 우상은 중·고교생, 좌하는 대학생의 통계임

가족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배경변인별로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응답결과를 합산²⁵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3> 부모의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전체		3.67(.77)	3.16(.88)
성별	남자	3.66(.82)	3.14(.86)
	여자	3.69(.71)	3.19(.90)
	통계	t=-1.84	t=-.86
지역	서울	3.66(.78)	3.32(.74)
	광역시	3.66(.77)	3.22(.96)
	시군부	3.69(.76)	3.07(.84)
	통계	F=1.38	F=8.38**
부친학력	중졸 이하	3.48(.84)	3.22(.76)
	고졸·전문대졸	3.61(.76)	3.07(.89)
	대졸 이상	3.80(.75)	3.34(.86)
	통계	F=63.35***	F=13.23***
가정경제 수준	하	3.51(.78)	3.20(.84)
	중	3.63(.74)	3.13(.82)
	상	3.84(.77)	3.19(.97)
	통계	F=88.48***	F=.81

주 : * p< .05, ** p< .01, *** p< .001(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먼저 성별로는 중·고교생, 대학생 모두 여자가 평가한 부모의 사회·정치문제 관심도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지역별로는 중·고교생은 지역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학생은 서울, 광역시, 시군부의 순으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부친의 학력별로는 중·고교생, 대학생 모두 통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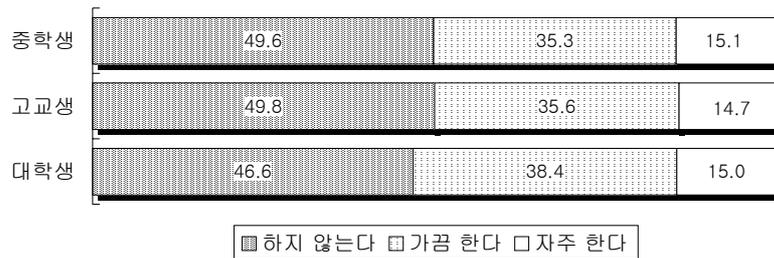
²⁵ 가족구성원 중 형제·자매에 대한 응답결과를 제외한 것은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의 비율이 중·고교생의 경우 16.6%(대학생은 5.5%)에 달하여 결측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었다.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p < .001$), 두 집단 모두 대졸 이상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중·고교생은 상층 집단으로 올라갈수록 부모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 < .001$), 대학생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청소년들이 평소에 주변사람들과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어느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등 가족과 친구·선배, 교사(교수) 등과의 대화빈도를 조사하였다²⁶.

먼저 아버지와의 대화빈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세 집단 모두 사회·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수준에 달하여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자주 대화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세 집단 모두 15% 안팎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대학생의 대화빈도가 중·고교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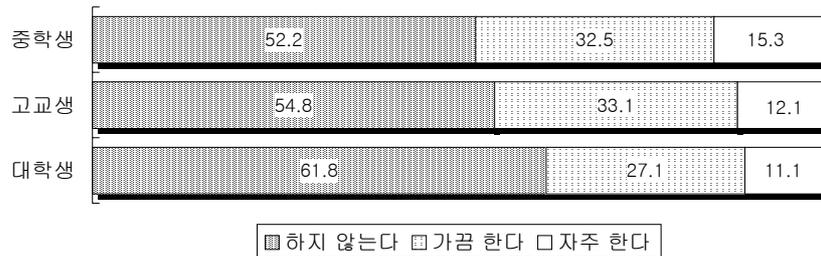


[그림 IV-7]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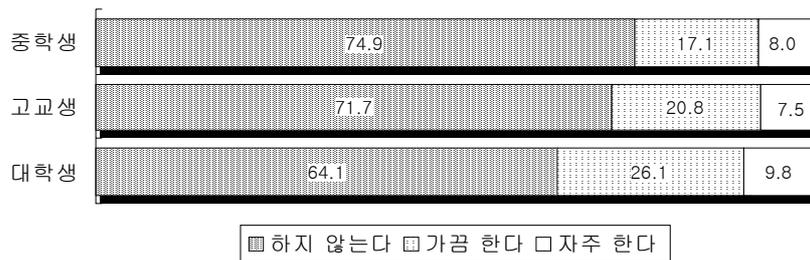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어머니와의 대화빈도는 [그림 IV-8]과 같다. 세 집단 모두 대화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대학생이 61.8%로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교생은 비슷한 수준이었다(52.2%, 54.8%). 이와는 반대로 자주 대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이 15.3%로서 고교생과 대학생(12.1%, 11.1%)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버지와의 대화빈도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중학생과 고교생의 경우에는 사회·

²⁶ 조사표의 응답항목은 “전혀 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자주 한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지만, 본문에서 빈도분포 분석은 3점 척도로 재구성한 값을, 평균값(차이검증)은 원래의 5점 척도의 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정치문제에 관한 대화빈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지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대화빈도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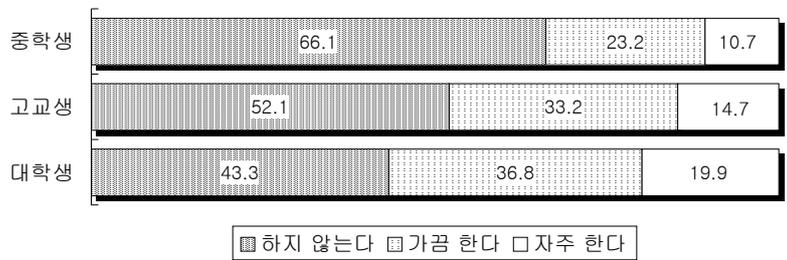
[그림 IV-8]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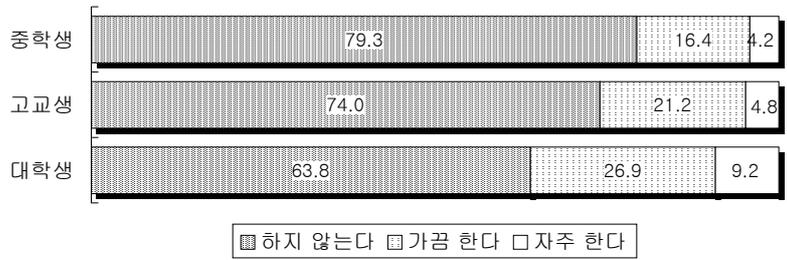
[그림 IV-9]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 형제·자매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형제·자매와의 대화빈도를 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위의 [그림 IV-9]와 같다.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중학생이 74.9%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교생(71.7%), 대학생(64.1%)의 순이었다.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률은 세 집단간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끔 대화한다는 응답한 청소년은 대학생이 26.1%로서 고교생(20.8%), 중학생(17.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어머니와의 대화빈도에 대한 응답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형제·자매와의 대화빈도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평소에 사회·정치문제에 관하여 친구나 선배와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한 교급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그림 IV-10]과 같다. 가끔 또는 자주 대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세 집단간 차이가 매우 현저하였는데, 대학생이 56.7%로서 가장 많았고, 고교생이 47.9%였으며 중학생이 33.9%로서 가장 적었다. 교급이 올라갈수록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이와 관련한 친구나 선배와의 대화빈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V-10]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 친구·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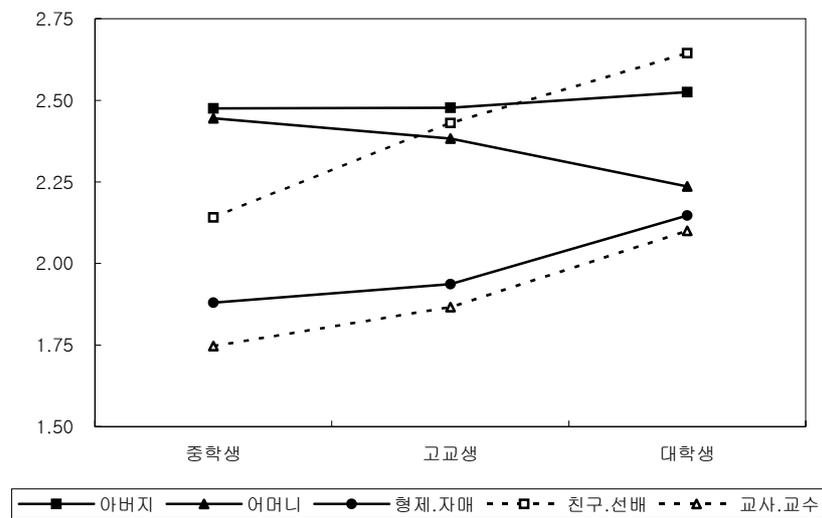


[그림 IV-11]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 교사(교수)

학교 교사(대학생의 경우에는 교수)와 사회·정치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빈도를 교급별로 비교해 보면([그림 IV-11]), 자주 또는 가끔 대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학생이 36.2%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교생(26.0%), 중학생(20.7%)의 순이었다. 앞서 친구·선배의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사

(교수)와의 대화빈도도 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세 집단 모두 교사(교수)보다는 동년배인 친구·선배와의 대화빈도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대상별 대화빈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의 하위집단별로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그림 IV-12]와 같이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대화빈도의 순위가 아버지가 가장 높고 이어서 어머니, 친구·선배, 형제·자매, 교사의 순이었다. 그러나 고교생이 되면서 친구·선배와의 대화빈도가 어머니보다 높아졌고 이어서 대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대화빈도를 상회하였다.



[그림 IV-12]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대화빈도 : 교급별

전체적으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친구·선배, 형제·자매, 교사(교수)와의 대화빈도는 증가하는 반면, 어머니와의 대화빈도는 감소하였고, 아버지와의 대화빈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경향은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 미치는 대상별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정치문제에 관한 청소년들의 대화빈도가 배경변인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의 4가지 유형의 대화 상대(아버지, 어머니, 친구·선배, 교사·교수)²⁷별 응답결과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표 IV-4> 사회·정치문제 대화빈도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전체		2.24(.77)	2.38(.78)
성별	남자	2.20(.81)	2.41(.81)
	여자	2.29(.73)	2.35(.74)
	통계	t=4.97***	t=1.39
지역	서울	2.22(.76)	2.56(.78)
	광역시	2.26(.77)	2.32(.79)
	시군부	2.24(.78)	2.36(.76)
	통계	F=1.28	F=7.89**
부친학력	중졸 이하	2.18(.80)	2.31(.74)
	고졸·전문대졸	2.21(.77)	2.36(.78)
	대졸 이상	2.32(.76)	2.43(.79)
	통계	F=16.64***	F=1.65
가정경제 수준	하	2.16(.74)	2.37(.77)
	중	2.21(.76)	2.33(.76)
	상	2.35(.81)	2.47(.81)
	통계	F=30.46***	F=4.31*

주 1) 통계 : * p< .05, ** p< .01, *** p< .001(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먼저 성별로는 중·고교생은 여자가 남자보다 주변사람들과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대화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001),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화빈도의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중·고교생은 세 지역간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대학생은 서울 대학생의 대화빈도가 광

²⁷ 표본 중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의 비율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에(중·고교생의 경우 16.1%) 결측치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형제·자매와의 대화빈도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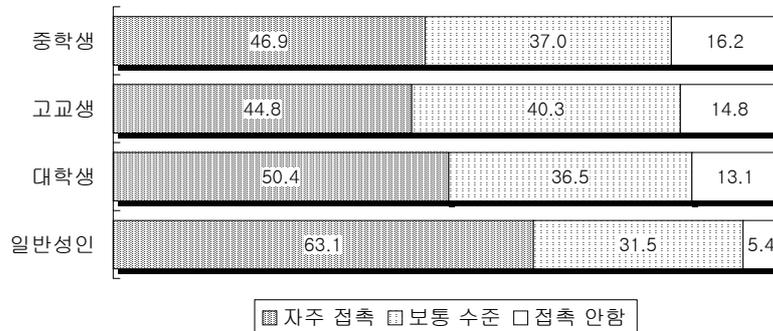
역시, 시군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p < .001$). 부친의 학력별로는 두 집단 모두 부친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대화빈도가 증가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중·고교생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중·고교생, 대학생 모두 상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중·하층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평소에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대화를 더 자주 나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p < .05$).

3. 사회·정치보도 접촉과 신뢰도

사회·정치문제 보도 접촉 매체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보도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V, 라디오, 신문, 시사주간지/잡지, 인터넷 등의 다섯가지 매체를 제시하고 그 접촉빈도를 조사하였다²⁸.

먼저 TV를 통해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보도를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일반성인이 63.1%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생(50.4%), 중학생(46.9%)의 순이었으며 고교생이 44.8%로서 가장 적었다. 반면에 TV의 사회·정치문제 보도를 보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성인이 5.4%에 불과한 반면 중학생과 고교생은 15% 안팎으로서 성인의 세 배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사회·정치문제의 보도매체로서 TV의 이용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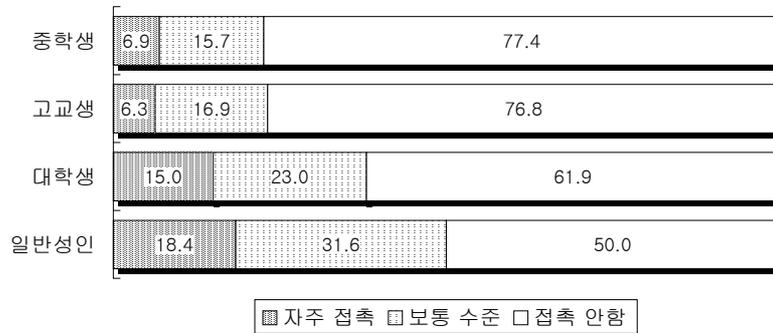


[그림 IV-13] 사회·정치문제 보도접촉 :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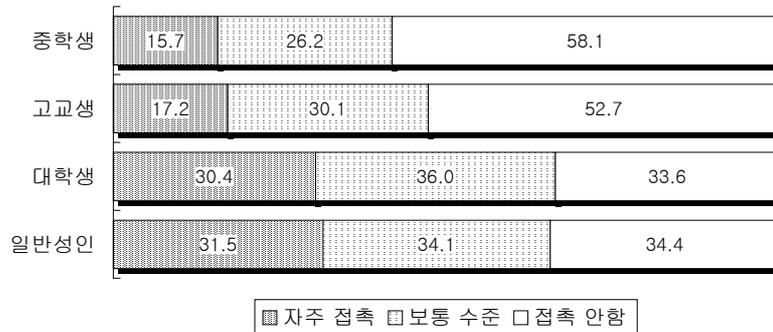
라디오를 통해 사회·정치문제 관련 보도를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성인이 18.4%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생이 15.0%였으며,

²⁸ 조사표의 응답항목은 “전혀 보지(듣지) 않는다”에서 “매우 자주 본다(듣는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지만, 본문에서 빈도분포 분석은 3점 척도로 재구성한 값을, 평균값(차이검증)은 원래의 5점 척도의 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중학생과 고교생은 모두 1할 미만에 머물렀다(6.9%, 6.3%). 라디오의 사회·정치문제 보도를 거의 또는 전혀 접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률은 모든 집단에서 과반수를 넘었고 중학생과 고교생은 7할 수준에 달하였다. TV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사회·정치문제 보도매체로서의 라디오를 접하는 비율이 증가하지만, 전체적인 이용도에 있어서는 TV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4] 사회·정치문제 보도접촉 : 라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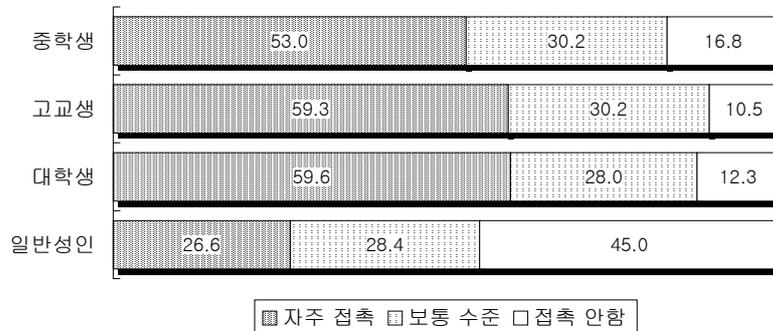
[그림 IV-15] 사회·정치문제 보도접촉 : 신문

사회의 시사적 이슈를 다루는 시사주간지와 잡지를 통한 사회·정치문제 보도의 접촉빈도는 다음의 [그림 IV-16]과 같다.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학생이 16.4%로서 가장 많고, 일반성인이 10.8%로서 그 다음이며

중·고교생의 응답률은 그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2%, 5.7%). 사회·정치문제 보도 접촉의 매체로서 시사주간지·잡지의 활용도는 비교대상이 된 다섯가지 매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대학생들이 주된 구독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16] 사회·정치문제 보도접촉 : 시사주간지·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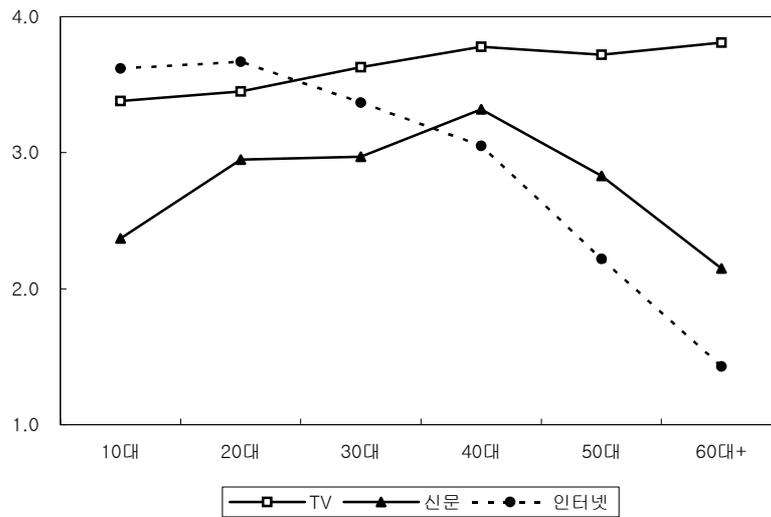
[그림 IV-17] 사회·정치문제 보도접촉 : 인터넷

우리사회에서 인터넷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그 활용도도 다양한 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뉴스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보도매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 기존 매체의 영역을 점차 잠식하면서 특히 인

쇄매체를 기피하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시사정보의 입수경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회·정치문제 관련 보도 접촉빈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그림 IV-17]). 즉, 고교생과 대학생의 약 6할(59.3%, 59.6%), 중학생의 5할(53.0%) 가량이 인터넷을 통해 사회·정치문제 보도를 자주 접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성인은 26.6%에 머물렀다. 사회·정치문제 관련 보도의 접촉매체로서 인터넷을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성인 45.0%에 달하는 반면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층은 모두 2할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10세 단위의 연령대별로 TV, 신문, 인터넷을 통한 사회·정치문제 접촉빈도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다음의 [그림 IV-18]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IV-18] 사회·정치문제 보도접촉 : 연령대별

10대와 20대는 인터넷의 접촉빈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TV, 신문의 순이었으나 30대는 TV, 인터넷, 신문의 순이었고, 40대 이후부터는 인터넷의 접촉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TV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접촉빈도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접촉빈도는 20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신문은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40대를 기점으로 접촉빈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령대별 사회·정치문제 관련 보도 접촉방식을 요약하면, 10대와 20대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고 30, 40대는 세가지 매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50대 이후부터는 TV의 의존도가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소에 사회·정치문제에 관한 보도를 어느 정도 자주 접촉하고 있는지를 배경변인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 매체별 접촉빈도 응답결과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표 IV-5>). 그 결과 전체적으로 세 집단 중 대학생의 접촉빈도가 가장 높았으며(2.95), 다음이 일반성인(2.77)이었고 중·고교생의 접촉빈도가 가장 낮았다(2.61).

<표 IV-5> 사회·정치문제 보도접촉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2.61(.71)	2.95(.72)	2.77(.74)
성별	남자	2.58(.74)	2.98(.73)	2.99(.75)
	여자	2.65(.68)	2.92(.71)	2.56(.66)
	통계	t=-4.05***	t=1.75	t=10.61***
지역	서울	2.64(.71)	3.07(.64)	2.99(.66)
	광역시	2.61(.71)	2.87(.70)	2.87(.70)
	시군부	2.60(.71)	2.97(.75)	2.63(.76)
	통계	F=.98	F=6.20**	F=25.90***
부친학력	중졸 이하	2.46(.72)	2.83(.77)	2.04(.60)
	고졸·전문대졸	2.55(.69)	2.96(.72)	2.86(.64)
	대졸 이상	2.73(.73)	2.98(.69)	3.20(.63)
	통계	F=60.22***	F=2.07	F=231.22***
가정경제 수준	하	2.51(.70)	2.85(.74)	2.52(.73)
	중	2.57(.69)	2.92(.71)	2.77(.71)
	상	2.74(.73)	3.08(.71)	3.06(.70)
	통계	F=57.35***	F=9.80***	F=44.01***

주 1) 통계 : * p< .05, ** p< .01, *** p< .001(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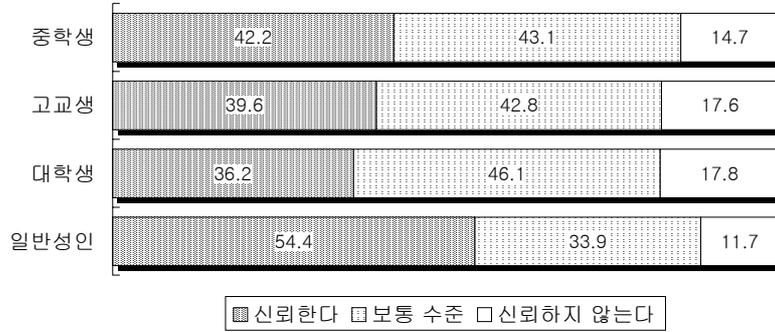
성별로 중·고교생은 여자가 남자보다 접촉빈도가 높았지만($p<.001$), 대학생은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성인은 중·고교생과는 반대로 남자의 접촉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대학생과 일반성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p<.01$, $p<.001$), 모두 서울 지역 거주자들이 다른 두 지역보다 접촉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부친의 학력별로는 중·고교생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p<.001$) 학력이 높을수록 접촉빈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성인의 경우에는 학력(본인)별 차이가 매우 현격하였고 학력이 올라갈수록 접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세 집단 모두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접촉빈도를 나타내었다($p<.001$).

사회·정치문제 보도 신뢰도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한 사회·정치문제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 TV와 라디오, 신문, 시사주간지/잡지, 인터넷의 5가지 매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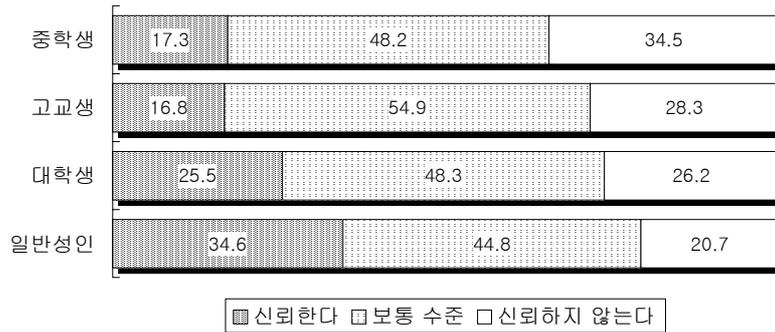
응답결과를 보면 먼저 TV의 경우([그림 IV-19]) 일반성인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과반수 이상(54.4%)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과 고교생, 대학생은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절반에 못미쳤고(42.2%, 39.6%, 36.2%).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생과 고교생이 17%대로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학생이 14.7%였으며 일반성인이 11.7%로서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TV의 사회·정치문제 보도에 대하여 청소년층보다는 성인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었고 청소년층에서는 대학생보다 중·고교생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었다.

²⁹ 조사표의 응답항목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신뢰하고 있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지만, 본문에서는 이를 3점 척도로 재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IV-19] 사회·정치문제 보도 신뢰도 :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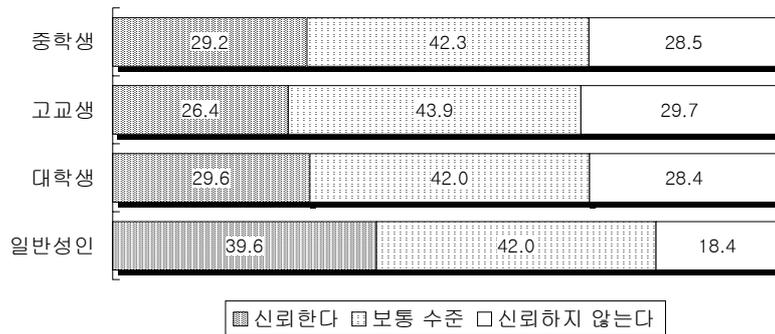
라디오의 사회·정치문제 보도에 대하여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성인이 34.6%로서 가장 다수였고, 다음으로 대학생(25.5%)의 순이었으며 중학생과 고교생은 1할대에 머물렀다(17.3%, 16.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중학생이 34.5%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고교생(28.3%), 대학생(26.2%)의 순이었고 일반성인이 20.7%로서 가장 낮았다. TV와 비교하여 라디오의 사회·정치문제 보도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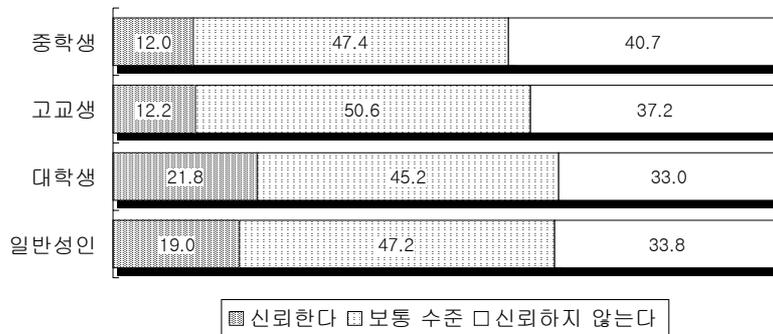
[그림 IV-20] 사회·정치문제 보도 신뢰도 : 라디오

신문의 사회·정치문제 보도에 대하여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성인

이 39.5%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생과 중학생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며(29.6%, 29.2%), 고교생이 26.4%로서 가장 낮았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청소년층 세 집단이 약 3할 수준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낸 반면 일반성인은 18.4%로서 가장 낮았다.



[그림 IV-21] 사회·정치문제 보도 신뢰도 :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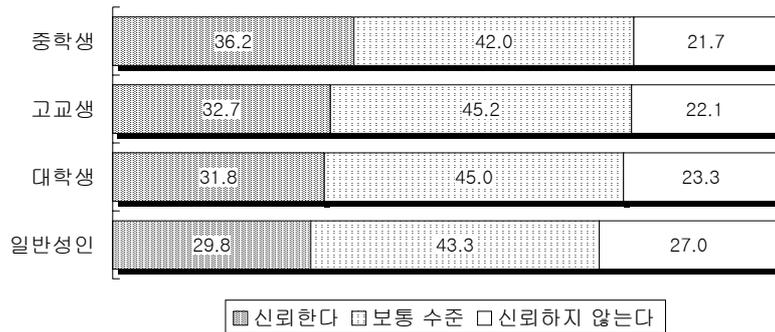


[그림 IV-22] 사회·정치문제 보도 신뢰도 : 시사주간지/잡지

시사주간지/잡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그림 IV-22]),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생이 21.8%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성인이 19.0%였으며 고교생과 중학생은 12%대의 낮은 응답률(12.2%, 12.0%)을 나타내었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과 고교생이 대학생·일반성인

집단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대학생은 시사주간지/잡지를 통한 사회·정치문제의 접촉빈도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가장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회·정치문제 보도에 대하여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이 36.2%로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고교생(32.7%), 대학생(31.8%), 일반성인(29.8%)의 순이었으나 집단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일반성인이 27.0%로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상이 된 다른 매체들은 모두 성인과 대학생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인 반면 인터넷은 연소집단인 중·고교생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중·고교생들은 인터넷을 통한 사회·정치문제의 접촉빈도와 신뢰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생은 접촉빈도는 높지만 신뢰도는 중·고교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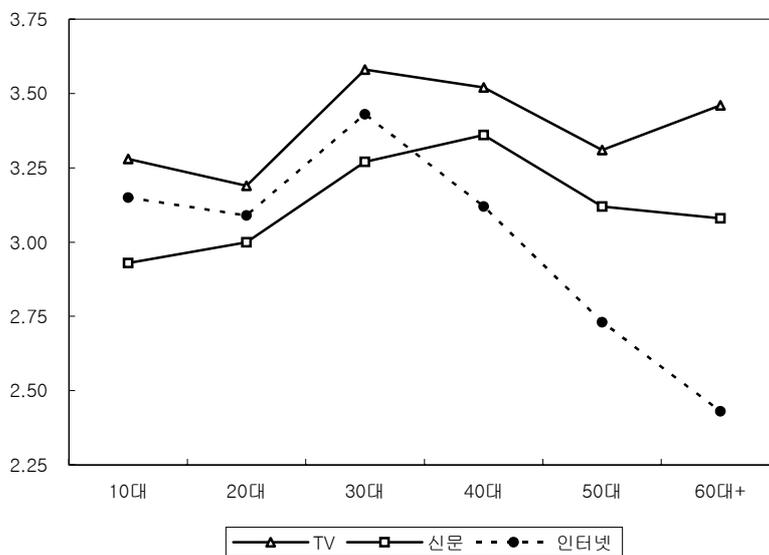


[그림 IV-23] 사회·정치문제 보도 신뢰도 : 인터넷

사회·정치문제 보도의 신뢰도를 연령대별로 비교하기 위해 접촉빈도가 높은 TV, 신문, 인터넷의 신뢰도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 [그림 IV-24]와 같다. 10대에서 30대까지는 신뢰도의 순위가 TV, 인터넷, 신문이었는데 40대부터는 인터넷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신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 TV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보도는 가장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매체별 신뢰도의 변화추세를 보면 TV와 인터넷은 10대에서 20대로 올

라가면서 신뢰도가 다소 감소한 뒤 20대 이후 상승하여 30대를 정점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 반면, 신문은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신뢰도가 상승하여 40대가 가장 신뢰하는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대까지는 세가지 매체간 신뢰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50대와 60대 이상은 인터넷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인하여 매체간 신뢰도 격차가 현격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IV-24] 사회·정치문제 보도 신뢰도 : 연령대별

사회·정치문제 보도에 대한 신뢰도가 배경변인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이 된 다섯가지 매체의 신뢰도 응답결과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표 IV-6>과 같다. 여기서 평균값 수치는 특정 매체가 아닌 다섯가지 매체를 종합한 전체 신뢰도를 의미한다.

먼저 성별로는 중·고교생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01$)가 확인되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대학생도 여자의 신뢰도가 다소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고 일반성인은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대학생은 시군부 거주자, 일반성인은 서울 거주자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부친의 학력

별로는 중·고교생, 대학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p < .001$), 중졸 이하 집단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이 공통적이었다. 일반성인의 경우에도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집단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사회·정치문제 보도신뢰도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2.93(.75)	3.02(.71)	3.12(.71)
성별	남자	2.89(.80)	3.01(.73)	3.12(.76)
	여자	2.98(.69)	3.04(.69)	3.12(.65)
	통계	$t = -4.73^{***}$	$t = -.82$	$t = .14$
지역	서울	2.96(.74)	2.96(.62)	3.35(.55)
	광역시	2.93(.75)	2.98(.69)	3.26(.64)
	시군부	2.93(.76)	3.07(.75)	2.96(.76)
	통계	$F = .82$	$F = 3.71^*$	$F = 39.91^{***}$
부친학력	중졸 이하	2.77(.82)	2.84(.75)	2.72(.77)
	고졸·전문대졸	2.91(.75)	3.08(.72)	3.21(.67)
	대졸 이상	3.00(.73)	2.96(.66)	3.25(.63)
	통계	$F = 23.31^{***}$	$F = 9.29^{***}$	$F = 51.08^{***}$
가정경제 수준	하	2.89(.77)	2.94(.71)	3.00(.70)
	중	2.91(.74)	3.01(.70)	3.13(.71)
	상	3.01(.76)	3.09(.73)	3.24(.68)
	통계	$F = 14.78^{***}$	$F = 3.46^*$	$F = 9.36^{***}$

주 1) 통계 : * $p < .05$, ** $p < .01$, *** $p < .001$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4. 요약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일반성인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생, 고교생의 순이었으며, 중학생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관심도의 수준에서 성인과 청소년층간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층별로는 40대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의 관심도가 가장 낮았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10대 청소년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20-30대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60대 이상의 노년층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중·고교생과 일반성인은 상층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반면, 대학생은 하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를 평가하게 한 결과 중·고교생, 대학생 모두 아버지의 관심도를 자신보다 높게 평가한 반면, 어머니의 관심도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낮게 평가하여 대학생은 어머니의 관심도가 자신보다 낮다고 응답하였다. 대체로 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사회·정치문제와 관련하여 주변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빈도를 비교하면 중·고교생은 아버지와의 대화빈도가 가장 높은 반면, 대학생은 친구·선배와의 대화빈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친구·선배, 형제·자매, 교사(교수)와의 대화빈도는 증가하는 반면, 어머니와의 대화빈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중·고교생, 대학생 모두 상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중·하층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평소에 사회·정치문제에 관하여 부모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보도를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접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고교생과 대학생은 인터넷을 통한 접촉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TV, 신문의 순이었으나 일반성인은 TV, 신문, 인터넷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연령층별 사회·정치문제 관련 보도 접촉방식을 요약하면, 10, 20대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고 30, 40대는 세 가지 매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50대 이후부터는 인

터넷 이용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TV의 의존도가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정치문제 보도에 대한 매체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TV의 보도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과 신문에 대한 평가는 집단별 차이가 현저하였다. 즉, 중·고교생과 대학생은 인터넷, 일반성인은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에서 30대까지는 신뢰도의 순위가 TV, 인터넷, 신문의 순이었는데 40대 이후 부터는 인터넷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신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V. 사회·정치의식과 참여

1. 사회심리 특성
2. 사회·정치의식
3. 사회·정치참여
4. 요약

V. 사회·정치의식과 참여

이 장에서는 사회·정치의식과 관련된 주요선행연구의 조사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재구성하여, ① 사회·정치의식 관련 심리적 특성(자존감과 권위주의적 성격), ② 민주주의적 태도(신뢰성, 타협의 정신, 관용의 태도, 비판적 태도), ③ 정치의식(집단주의 가치, 탈물질주의 가치, 평등주의 가치), ④ 국민의식(국가주의, 국제주의, 애국심), ④ 정치사회적 통제감(리더십 능력, 정책적 통제감) 등을 측정하여 분석하였고, 아울러 ⑤ 청소년과 일반성인의 직·간접적인 사회·정치 참여경험을 조사하였다.

1. 사회심리 특성

2요인 자존감

지금까지 사회·심리 영역의 연구에서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가 가장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척도는 개인주의에 기반한 서구문화에 편향되어 공동체적·집단주의적 전통이 강한 문화권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자존감 측정에 있어서 집단주의적 관점을 도입한 한유화, 정진경(2007)의 2요인 자존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문항은 개인주의적 요인, 집단주의적 요인 각 6문항씩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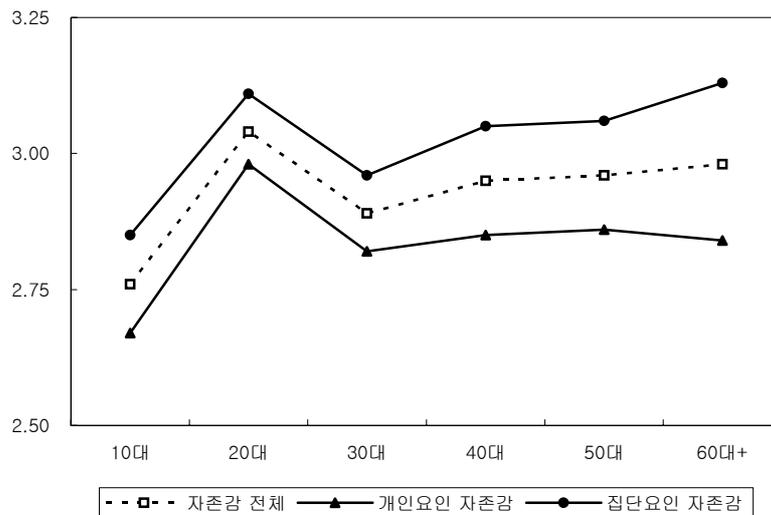
먼저 집단유형별로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전체 자존감 점수는 대학생이 가장 높고, 다음이 일반성인이었으며 고교생과 중학생은 이들 두 집단과 큰 격차를 두고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요인별 자존감의 평균값은 네 집단 모두 집단주의적 요인 점수가 개인주의적 요인 점수보다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한국인의 자존감은 개인의 성향과 관계 없이 집단주의적 요인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한유화, 정진경(2007: 1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표 V-1> 개인/집단요인 자존감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자존감(전체)	2.74(.42)	2.78(.38)	3.04(.37)	2.94(.31)
개인요인 자존감	2.66(.46)	2.69(.43)	2.98(.43)	2.84(.40)
집단요인 자존감	2.83(.47)	2.88(.44)	3.11(.41)	3.04(.35)

주: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그림 V-1] 개인/집단요인 자존감 : 연령대별

연령대별 자존감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위의 [그림 V-1]과 같다. 전체 자존감 점수는 10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가 급격히 상승하여 20대에 접어들면서 정점에 도달한다. 이후 30대까지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다음 40대부터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존감의 요인별로는 40대

이후 집단주의적 요인 점수가 개인주의적 요인 점수보다 높은 상승폭을 나타내어 노년기인 60대 이후에 집단주의적 요인점수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최고치를 나타낸 반면 개인주의적 요인점수는 40-50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존감 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는 다음의 <표 V-2>와 같다.

<표 V-2> 개인/집단요인 자존감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2.76(.40)	3.04(.37)	2.94(.31)
성별	남자	2.74(.43)	3.07(.38)	2.96(.32)
	여자	2.79(.38)	3.01(.35)	2.93(.30)
	통계	t=-4.34***	t=2.77**	t=1.44
지역	서울	2.80(.40)	3.11(.38)	2.91(.36)
	광역시	2.76(.39)	3.00(.38)	2.97(.32)
	시군부	2.75(.41)	3.05(.35)	2.94(.29)
	통계	F=5.54**	F=6.65**	F=2.48
부친학력	중졸 이하	2.65(.43)	2.93(.38)	2.95(.29)
	고졸·전문대졸	2.73(.39)	3.04(.37)	2.93(.31)
	대졸 이상	2.84(.40)	3.07(.36)	2.96(.33)
	통계	F=80.38***	F=7.21**	F=.84
가정경제 수준	하	2.68(.39)	3.01(.38)	2.89(.31)
	중	2.73(.39)	3.02(.35)	2.95(.32)
	상	2.88(.40)	3.09(.38)	2.99(.30)
	통계	F=132.44**	F=5.81**	F=7.82***

주 1) 통계 : * p<.05, ** p<.01, *** p<.001(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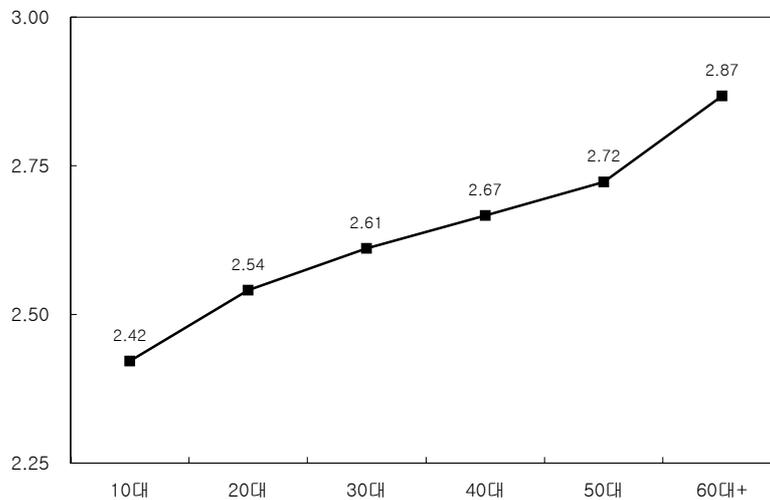
먼저 성별로는 중·고교생은 여자가 자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p<.001), 대학생과 일반성인은 남자의 자존감 점수가 더 높았고 대학생집단에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지역별로는 중·고교생과 대학생은 서울 지역 거주자의 자존감 점수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05), 일반성인들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

인되지 않았다. 부친의 학력별로는 중·고교생, 대학생 모두 부친의 학력이 올라갈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p < .001$, $p < .01$), 일반성인은 학력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 수준별로는 세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자존감 점수도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위주의적 성격

권위주의 성격은 민경환(1989)의 한국판 권위주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간이척도를 활용하였다. 원래의 35개 문항을 21의 문항으로 축약한 뒤 문항의 내용을 평이한 형태로 수정하고 응답항목을 4개로 조정(원 척도에서는 5개)하였다.

조사결과 집단유형별 권위주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일반성인이 2.7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생이 2.54로서 중간이었으며, 중·고교생이 2.42로서 가장 낮았다(<표 V-3> 참조).



[그림 V-2] 권위주의적 성격 : 연령대별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0세 단위의 연령대별로 비교한 앞의 [그림 V-2]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즉, 권위주의적 성향은 10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50대에서 노년층인 60대 이상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연령과 권위주의적 성향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권위주의 점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3> 권위주의적 성격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2.42(.38)	2.54(.45)	2.71(.34)
성별	남자	2.47(.39)	2.56(.46)	2.71(.34)
	여자	2.36(.35)	2.51(.44)	2.71(.33)
	통계	t=12.15***	t=2.13*	t=-.01
지역	서울	2.40(.39)	2.38(.41)	2.69(.29)
	광역시	2.42(.37)	2.52(.43)	2.73(.32)
	시군부	2.43(.38)	2.61(.47)	2.70(.36)
	통계	F=2.82	F=24.61***	F=1.51
부친학력	중졸 이하	2.47(.40)	2.41(.39)	2.82(.31)
	고졸·전문대졸	2.43(.37)	2.59(.46)	2.69(.33)
	대졸 이상	2.40(.38)	2.48(.45)	2.66(.37)
	통계	F=7.86***	F=14.43***	F=17.53***
가정경제 수준	하	2.45(.37)	2.44(.39)	2.71(.31)
	중	2.40(.36)	2.50(.44)	2.68(.35)
	상	2.42(.40)	2.66(.48)	2.76(.33)
	통계	F=6.21**	F=23.08***	F=5.43**

주 1) 통계 : * p< .05, ** p< .01, *** p< .001(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먼저 성별로는 중·고교생과 대학생은 여자보다 남자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p<.05). 그러나 일반성인의 경우 권위주의적 성향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대학생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p < .001$) 서울보다는 광역시·시군부 거주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부친의 학력별로는 중·고교생은 부친의 학력이 낮을수록 권위주의 점수가 높았으나($p < .001$), 대학생은 중간집단인 고졸/전문대졸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p < .001$), 일반성인은 학력(본인)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중졸 이하)의 점수가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여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중·고교생은 하층집단이, 대학생과 일반성인은 상층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2. 사회·정치의식

민주주의적 태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민주주의적 태도는 광진영(1990)이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뢰성” “타협의 정신” “관용의 태도” “비판적 태도” 등 네가지 요인의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단계별 4점 서열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집단유형별 응답결과 평균값을 비교하면 요인점수를 종합한 전체 점수에서 중학생이 2.92로서 가장 높고, 이어서 고교생(2.86), 대학생(2.71)의 순이며 일반성인이 2.49로서 가장 낮았다. 민주주의적 태도를 구성하는 네가지 요인점수에 있어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집단일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내면화된 민주주의적 태도가 나이가 들어 사회·정치 현실을 접하게 되면서 점차 희석화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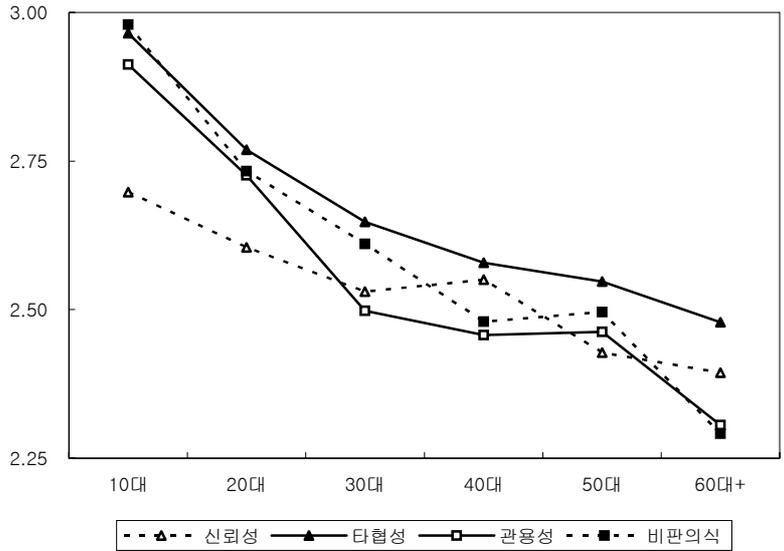
<표 V-4> 민주주의적 태도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민주적태도	2.92(.45)	2.86(.44)	2.71(.56)	2.49(.40)
신뢰성	2.75(.62)	2.65(.60)	2.60(.61)	2.48(.57)
타협의 정신	3.01(.58)	2.92(.57)	2.77(.66)	2.57(.53)
관용의 태도	2.93(.60)	2.90(.60)	2.73(.66)	2.44(.52)
비판의식	3.00(.58)	2.96(.57)	2.73(.65)	2.48(.50)

주: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민주주의적 태도를 구성하는 네가지 요인의 연령대별 평균값을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V-3]과 같다. 네가지 요인 모두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지속적인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급격한 감소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30대에서 50대까지는 점진적인 상승과 감소경향이 혼재하다가 60대 이상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V-3] 민주주의적 태도 : 연령대별

네가지 요인점수를 종합한 민주주의적 태도의 평균값을 배경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V-5>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중·고교생과 대학생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민주주의적 태도를 나타내었으나($p < .001$, $p < .05$) 일반성인의 경우에는 남녀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고교생과 대학생은 서울 지역 거주자가 광역시나 시군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p < .01$, $p < .001$), 일반성인의 경우에는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별로는 중·고교생(부친의 학력)과 일반성인(본인의 학력)은 고졸/대졸 이상 집단의 점수가 중졸 이하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p < .05$, $p < .001$) 대학생은 반대로 중졸 이하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중·고교생은 하층 집단이 가장 점수가 낮은 반면($p < .05$), 대학생과 일반성인은

상층에 비해 중·하층의 민주주적 태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p<.001, p<.01).

<표 V-5> 민주주의적 태도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2.89(.45)	2.71(.56)	2.49(.40)
성별	남자	2.84(.47)	2.67(.56)	2.50(.41)
	여자	2.94(.42)	2.76(.55)	2.49(.39)
	통계	t=-9.28***	t=-2.90**	t=.36
지역	서울	2.93(.44)	2.86(.53)	2.50(.34)
	광역시	2.88(.44)	2.72(.52)	2.52(.37)
	시군부	2.89(.45)	2.65(.58)	2.47(.43)
	통계	F=4.68**	F=11.79***	F=1.67
부친학력	중졸 이하	2.84(.47)	2.90(.42)	2.40(.36)
	고졸·전문대졸	2.89(.44)	2.65(.57)	2.51(.39)
	대졸 이상	2.90(.45)	2.76(.56)	2.52(.44)
	통계	F=3.88*	F=13.99***	F=8.52***
가정경제 수준	하	2.86(.43)	2.85(.49)	2.51(.38)
	중	2.90(.43)	2.74(.55)	2.51(.41)
	상	2.90(.47)	2.58(.59)	2.42(.39)
	통계	F=4.3*	F=20.80***	F=5.50**

주 1) 통계 : * p< .05, ** p< .01, *** p< .001(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정치 의식

정치 의식 또는 정치 이데올로기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희봉, 이희창(2006)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박희봉, 이희창(2006)은 Inglehart(1997) 등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집단주의/개인주의” “물질주의/탈물질주의” “자유주의/평등주의”의 세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예비 조사를 통하여 문항의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다듬어서 “집단주의 가치” “탈

물질주의 가치” “평등주의 가치”의 세 요인³⁰, 17개의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세 요인의 집단유형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V-6>과 같다. 집단가치는 일반성인의 척도점수가 가장 높고(2.88) 다음이 대학생(2.75)이며 중학생(2.65)과 고교생(2.63)은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탈물질가치는 고교생(3.05)이 가장 높고 이어서 대학생(2.99), 중학생(2.94)의 순으로서 학생집단이 일반성인(2.9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가치는 대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2.81), 고교생과 일반성인이 동일한 점수(2.77)를 나타냈으며 중학생이 가장 낮았다(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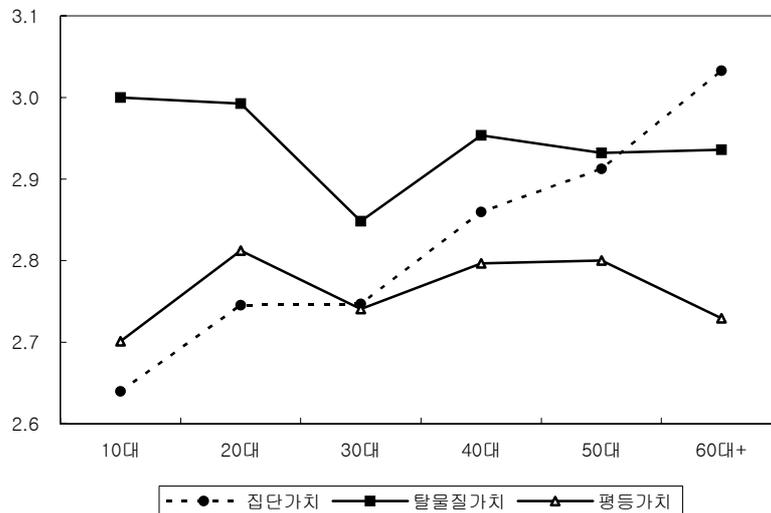
<표 V-6> 정치의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집단가치	2.65(.48)	2.63(.45)	2.75(.44)	2.88(.37)
탈물질가치	2.94(.50)	3.05(.49)	2.99(.45)	2.91(.38)
평등가치	2.63(.51)	2.77(.48)	2.81(.48)	2.77(.41)

주: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정치의식을 구성하는 세 요인의 연령대별 분포는 다음의 [그림 V-4]와 같다. 집단가치는 10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가 이후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탈물질가치와 평등가치는 연령대별로 유사한 변화패턴을 나타냈는데 20대에서 30대 사이에 감소추세를 나타내다가 40대에서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³⁰ 여기서 집단주의 가치는 전통의 보존과 공동체적 윤리를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개인주의 가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탈물질주의 가치는 참여, 환경보존 등 경제발전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안정, 사회안정 정책을 선호하는 물질주의와 대비되는 개념(Inglehart, 1997)으로, 평등주의 가치는 경쟁 위주의 경제성장보다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국가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자유주의 가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림 V-4] 정치의식 : 연령대별

국민의식

국민의식(national identity)은 국가를 통해 부여되는 사회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의식, 다른 국가·국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rasawa (1994)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Karasawa의 척도는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주의”(nationalism)와 다른나라와의 협력과 평화적인 공존을 중시하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자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나타내는 “애국심”(patriotism)의 세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서열척도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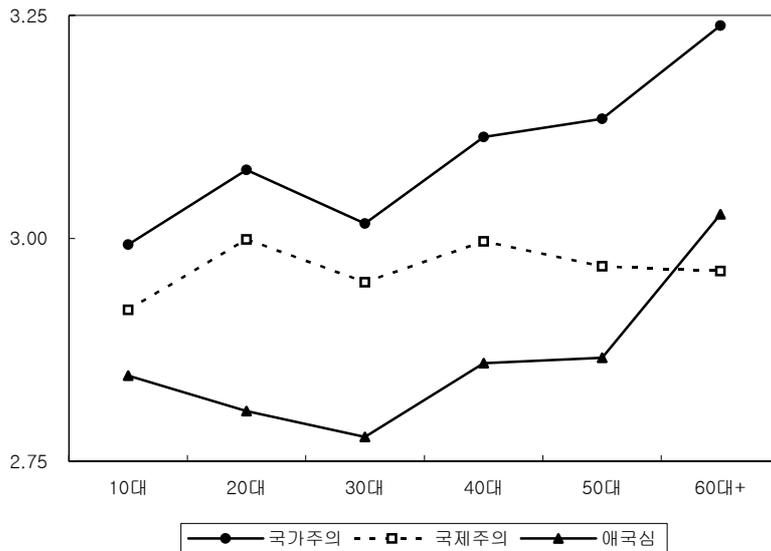
먼저 각 요인에 대한 집단유형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V-10>과 같다. 국가주의에 있어서는 일반성인의 점수가 가장 높고 (3.12), 다음으로 대학생(3.08), 고교생(3.02)의 순이었으며 중학생이 가장 낮았다(2.97). 국제주의는 대학생(3.00), 일반성인(2.97), 중학생(2.93), 고교생 (2.91)의 순이었으며, 애국심은 중학생(2.90), 일반성인(2.88), 대학생(2.81),

고교생(2.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일반성인은 국가주의, 대학생은 국제주의, 애국심은 중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V-7> 국민의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국가주의	2.97(.49)	3.02(.47)	3.08(.42)	3.12(.36)
국제주의	2.93(.48)	2.91(.44)	3.00(.41)	2.97(.37)
애국심	2.90(.55)	2.79(.54)	2.81(.43)	2.88(.42)

주: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그림 V-5] 국민의식 : 연령대별

국민의식의 각 요인별 점수를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위의 [그림 V-5]와 같다. 국가주의는 3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최고령층인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제주의의 척도점수는 연령대별로 소폭으로 증가·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10대가 가장 낮고 20대와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국심의 척

도점수는 10대에서 30대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최고령층인 60대 이상의 점수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국가주의 척도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V-11>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중·고교생은 여자의 점수가 남자보다 높았으나($p < .05$) 일반성인은 남자가 더 수준이었다($p < .001$). 대학생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대학생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p < .01$), 시군부 거주자가 서울·광역시 거주자에 비해 국가주의 성향이 더 강하였다. 학력별로는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국가주의 점수가 높은 수준이었고 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중·고교생은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반면에 일반성인은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높은 국가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p < .05$).

<표 V-8> 국가주의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2.99(.48)	3.08(.42)	3.12(.36)
성별	남자	2.98(.52)	3.09(.42)	3.16(.37)
	여자	3.01(.43)	3.06(.41)	3.08(.36)
	통계	$t = -2.10^*$	$t = 1.25$	$t = 3.61^{***}$
지역	서울	2.99(.48)	3.04(.46)	3.10(.34)
	광역시	3.00(.47)	3.03(.43)	3.13(.38)
	시군부	2.99(.48)	3.12(.39)	3.12(.36)
	통계	$F = .22$	$F = 5.95^{**}$	$F = .29$
부친학력	중졸 이하	2.97(.52)	3.03(.40)	3.19(.36)
	고졸·전문대졸	3.00(.46)	3.09(.41)	3.12(.36)
	대졸 이상	3.00(.48)	3.06(.43)	3.06(.36)
	통계	$F = .86$	$F = 1.66$	$F = 7.78^{***}$
가정경제 수준	하	3.00(.47)	3.05(.43)	3.16(.36)
	중	2.96(.46)	3.07(.42)	3.12(.37)
	상	3.03(.49)	3.11(.41)	3.08(.36)
	통계	$F = 12.55^{***}$	$F = 1.91$	$F = 3.50^*$

주 1) 통계 : * $p < .05$, ** $p < .01$, *** $p < .001$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국제주의 척도점수를 배경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먼저 성별로는 세 집단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 중·고교생과 대학생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 < .01$). 지역별로는 중·고교생과 일반성인은 세 집단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대학생은 시군부 거주자의 국제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친(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별로는 세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세 집단 모두 상층 집단의 국제주의 성향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중·고교생과 대학생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 < .001, p < .05$).

<표 V-9> 국제주의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2.92(.46)	3.00(.41)	2.97(.37)
성별	남자	2.93(.49)	3.03(.42)	2.99(.37)
	여자	2.90(.42)	2.96(.40)	2.95(.37)
	통계	$t=2.88^{**}$	$t=3.47^{**}$	$t=1.81$
지역	서울	2.92(.46)	2.99(.44)	2.94(.36)
	광역시	2.92(.45)	2.95(.44)	2.98(.39)
	시군부	2.92(.46)	3.03(.38)	2.98(.36)
	통계	$F=.05$	$F=5.31^{**}$	$F=1.39$
부친학력	중졸 이하	2.90(.51)	2.97(.42)	2.96(.34)
	고졸·전문대졸	2.92(.45)	2.99(.43)	2.97(.38)
	대졸 이상	2.92(.46)	3.02(.38)	2.98(.36)
	통계	$F=.72$	$F=.97$	$F=.08$
가정경제 수준	하	2.91(.46)	2.94(.38)	2.96(.36)
	중	2.90(.44)	3.00(.41)	2.97(.36)
	상	2.95(.48)	3.03(.44)	2.99(.39)
	통계	$F=9.01^{***}$	$F=4.30^*$	$F=.41$

주 1) 통계 : * $p < .05$, ** $p < .01$, *** $p < .001$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애국심 척도점수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V-13>과 같다. 성별로는 중·고교생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p<.01$) 남자 보다는 여자의 척도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중·고교생 중 시군부 거주자들이 서울·광역시 거주자에 비해 애국심 성향이 높은 수준이었다($p<.01$). 부친의 학력별로는 중·고교생은 중간층인 고졸/전문대졸 집단이, 대학생은 학력수준이 가장 낮은 중졸 이하 집단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p<.001$, $p<.01$). 일반성인의 경우에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애국심 척도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일반성인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중/하층 집단의 애국심 점수가 상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표 V-10> 애국심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2.85(.55)	2.81(.43)	2.88(.42)
성별	남자	2.83(.57)	2.82(.45)	2.87(.41)
	여자	2.87(.52)	2.79(.42)	2.88(.43)
	통계	$t=-2.95^{**}$	$t=.98$	$t=-.47$
지역	서울	2.84(.55)	2.79(.50)	2.88(.43)
	광역시	2.82(.54)	2.82(.42)	2.90(.44)
	시군부	2.87(.55)	2.81(.42)	2.86(.41)
	통계	$F=4.76^{**}$	$F=.30$	$F=.82$
부친학력	중졸 이하	2.84(.56)	2.93(.44)	3.05(.43)
	고졸·전문대졸	2.87(.53)	2.78(.42)	2.84(.41)
	대졸 이상	2.81(.56)	2.82(.46)	2.81(.41)
	통계	$F=7.78^{***}$	$F=7.51^{**}$	$F=26.58^{***}$
가정경제 수준	하	2.82(.55)	2.83(.48)	2.90(.42)
	중	2.85(.53)	2.80(.41)	2.89(.42)
	상	2.86(.57)	2.80(.45)	2.81(.42)
	통계	$F=2.49$	$F=.55$	$F=4.41^*$

주 1) 통계 : * $p<.05$, ** $p<.01$, *** $p<.001$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정치사회적 통제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집단의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를 비교하기 위하여 Zimmerman과 Zahniser(1991)가 개발한 정치사회적 통제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정치사회적 통제감은 한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정치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효능에 대한 믿음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Zimmerman, 1991). 이 척도는 리더십 능력과 정책적 통제감³¹(policy control)의 두가지 요인의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서열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먼저 집단유형별 정치사회 통제감 점수를 비교해 보면 고교생과 대학생(모두 2.58), 중학생(2.57)이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일반성인(2.52)이 가장 낮았다. 하위요인별로는 리더십 능력은 대학생이 가장 높았고(2.58), 중학생과 고교생은 동일한 점수를 나타냈으며(2.52), 일반성인이 가장 낮았다(2.50). 정책적 통제감에서는 고교생이 가장 높고(2.63), 이어서 중학생(2.62), 대학생(2.59)의 순이었으며 역시 일반성인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2.54).

<표 V-11> 정치사회적 통제감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2.57(.33)	2.58(.31)	2.58(.29)	2.52(.28)
리더십 능력	2.52(.43)	2.52(.41)	2.58(.36)	2.50(.35)
정책적 통제감	2.62(.38)	2.63(.38)	2.59(.37)	2.5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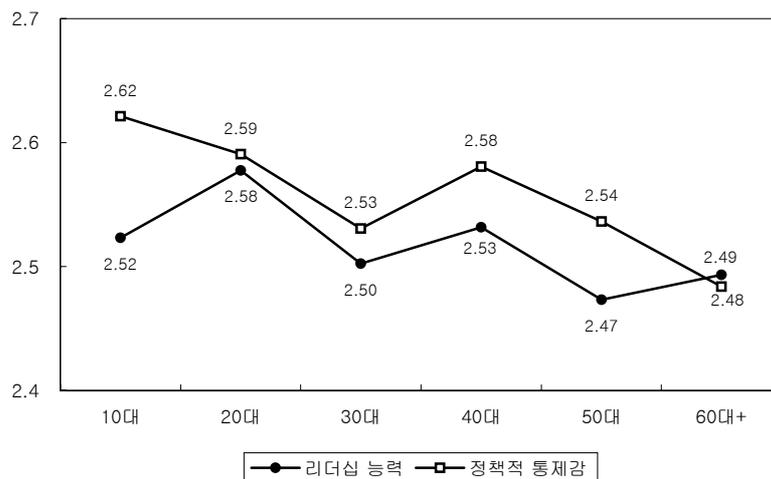
주 :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전체적으로 아직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 단계인 학생청소년들이 일반성인과 비교하여 사회·정치적 현실을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변화시

³¹ “정책적 통제감”은 정치·사회적 현실을 자신의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을 의미한다(Zimmerman, 1991).

킬 수 있다는 신념이 더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사회적 통제감의 두가지 요인점수를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V-6]과 같다. 정책적 통제감은 10대를 정점으로 30대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40대에 상승한 뒤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리더십 능력은 20대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뒤 20대를 정점으로 하여 감소와 증가를 거듭하는 패턴을 나타냈었다. 두 요인 모두 40대가 30대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점이 특징인데, 이것은 사회생활 초입단계엔 30대에 비해 40대는 자신의 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V-6] 정치사회적 통제감 : 연령대별

배경변인별로 정치사회적 통제감 점수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V-15>와 같다. 성별로는 중·고교생은 여자의 점수가 남자보다 높은 반면($p < .001$), 대학생과 일반성인은 남자의 정치사회적 통제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p < .001$). 지역별로는 대학생과 일반성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두 집단 모두 서울지역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정치사회적 통제감을 나타내었다($p < .01$, $p < .001$). 부친의 학력

별로는 중·고교생과 대학생 모두 대졸 이상 집단이 그 이하의 학력층보다 척도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p < .001$, $p < .01$). 일반성인의 경우에도 본인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사회적 통제감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중·고교생과 일반성인은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통제감이 증가하였고($p < .001$), 대학생의 경우에는 중간층과 비교하여 상/하층의 척도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V-12> 정치사회적 통제감 : 배경변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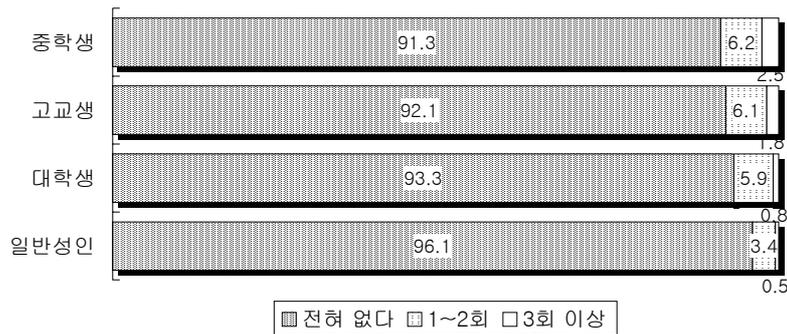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2.57(.32)	2.58(.29)	2.52(.28)
성별	남자	2.56(.32)	2.60(.30)	2.57(.29)
	여자	2.59(.32)	2.56(.28)	2.47(.25)
	통계	$t = -3.52^{***}$	$t = 2.20^*$	$t = 5.90^{***}$
지역	서울	2.58(.33)	2.64(.32)	2.59(.33)
	광역시	2.58(.33)	2.58(.27)	2.55(.27)
	시군부	2.57(.31)	2.57(.29)	2.48(.25)
	통계	$F = 1.44$	$F = 5.27^{**}$	$F = 18.85^{***}$
부친학력	중졸 이하	2.52(.31)	2.60(.29)	2.43(.25)
	고졸·전문대졸	2.55(.31)	2.57(.28)	2.53(.27)
	대졸 이상	2.62(.33)	2.62(.31)	2.58(.30)
	통계	$F = 35.30^{***}$	$F = 5.00^{**}$	$F = 20.26^{***}$
가정경제 수준	하	2.53(.32)	2.61(.30)	2.46(.27)
	중	2.55(.30)	2.56(.28)	2.53(.28)
	상	2.63(.34)	2.61(.30)	2.56(.27)
	통계	$F = 62.06^{***}$	$F = 5.97^{**}$	$F = 11.89^{***}$

주 1) 통계 : * $p < .05$, ** $p < .01$, *** $p < .001$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3. 사회·정치참여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성인의 직·간접적인 사회·정치 참여 경험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회·정치문제와 관련하여 ① TV/라디오 프로그램에 의견을 보낸 경험, ② 신문/잡지에 글을 투고한 경험, ③ 인터넷상에 의견을 올린 경험, ④ 인터넷상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경험, ⑤ 거리 서명운동에 참여한 경험, ⑥ 집회나 모임(촛불시위 등)에 참여한 경험과 그 빈도를 조사하였다³².

먼저 1년간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회·정치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투고한 경험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림 V-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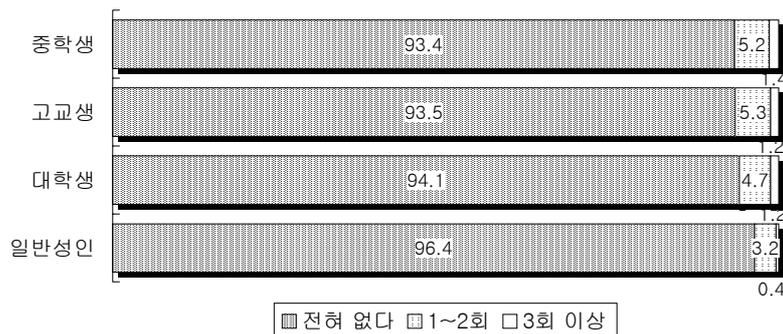
[그림 V-7] 사회·정치참여 : TV·라디오 투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9할을 상회하여 집단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번 이상 투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이 8.7%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교생(7.9%), 대학생(6.7%)의 순이었으며 일반성인이 3.9%로서 가장 적었다. TV나 라디오에 사회·정치문제 관련 의견을 투고하는 것은 청소년층이나 성인 모두에게

³² 조사표의 응답항목은 “전혀 없다”에서 “5회 이상 참여”에 이르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지만, 본문에서 빈도분포 분석은 3점 척도로 재구성한 값을, 평균값(차이검증)은 원래의 5점 척도 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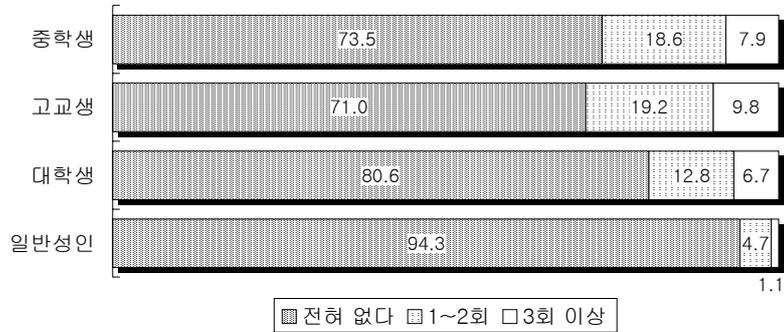
매우 드문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집단간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중·고교생 집단의 경험자 비율이 일반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에 사회·정치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투고한 경험자의 비율은 중학생과 고교생이 6할대로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학생이 5.9%, 일반성인은 3.6%에 머물렀다. TV/라디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경험자의 비율이 9할 이상에 달하여 신문·잡지에 자신의 의견을 투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신문/잡지의 투고 경험자 비율이 TV/라디오보다 낮은 것은 매체 접촉빈도의 차이가 그 주된 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V-8] 사회·정치참여 : 신문·잡지 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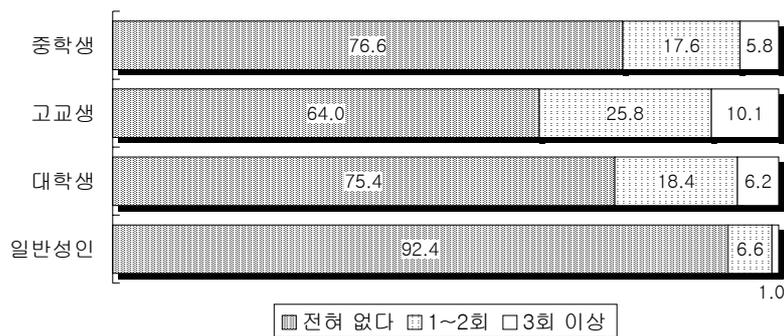
지난 1년간 인터넷에 사회·정치문제와 관련한 글을 올린 경험이 있는 비율([그림 V-9])은 고교생이 29.0%로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학생(26.5%), 대학생(19.4%)의 순이었으며 일반성인은 1할에도 못미치는 소수(5.9%)였다. 일반성인의 경우에는 경험자의 비율이 TV/라디오나 신문/잡지의 경우와 거의 다를 바 없지만 청소년층은 인터넷을 통한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층 내부에서도 고교생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많고 가장 연소집단 중학생의 경험자 비율이 대학생보다 높은 것도 주목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V-9] 사회·정치참여 : 인터넷 글 게시

종래에는 주로 가두에서 전개되던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서명운동이 인터넷의 활성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인터넷 청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가상공간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서명운동에 지난 1년간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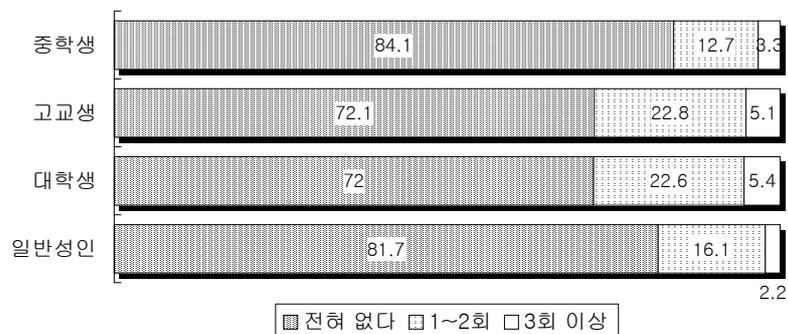
응답결과를 보면 한번 이상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교생이 36.0%로서 가장 높았고, 대학생과 중학생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며(24.6%, 23.4%) 일반성인이 7.6%로서 소수에 머물렀다.



[그림 V-10] 사회·정치참여 : 인터넷 서명

인터넷 글 게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층의 참여율이 일반성인보다 높고, 청소년층 중에서도 고교생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험자의 비율을 비교할 때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서명에 참여하는 것이 인터넷을 통한 보다 일반화된 참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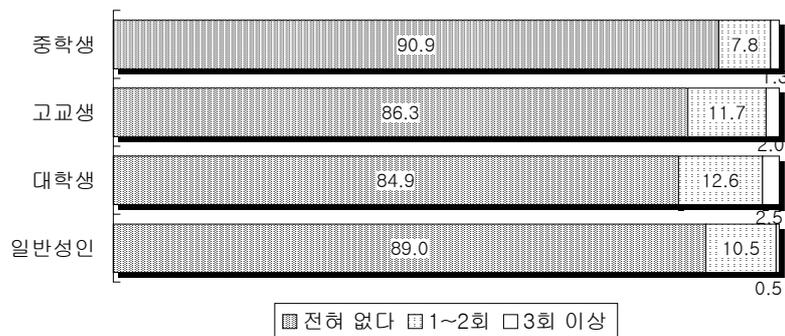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아닌 가두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서명운동에 지난 1년간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한번 이상 참여한 경험자의 비율은 대학생과 고교생이 각각 28.0%, 27.9%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어서 일반성인이 18.3%였고 중학생이 15.9%로서 가장 낮았다. 중·고교생의 경우 일반성인과는 달리 인터넷서명 참여율이 거리서명 참여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상공간에서는 학생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성인의 거리서명 참여율이 인터넷서명 참여율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것은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차이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세대간 인터넷 이용률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11] 사회·정치참여 : 거리 서명

지난 1년간 사회·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집회나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한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학생이 15.1%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교생(13.7%), 일반성인(11.0%)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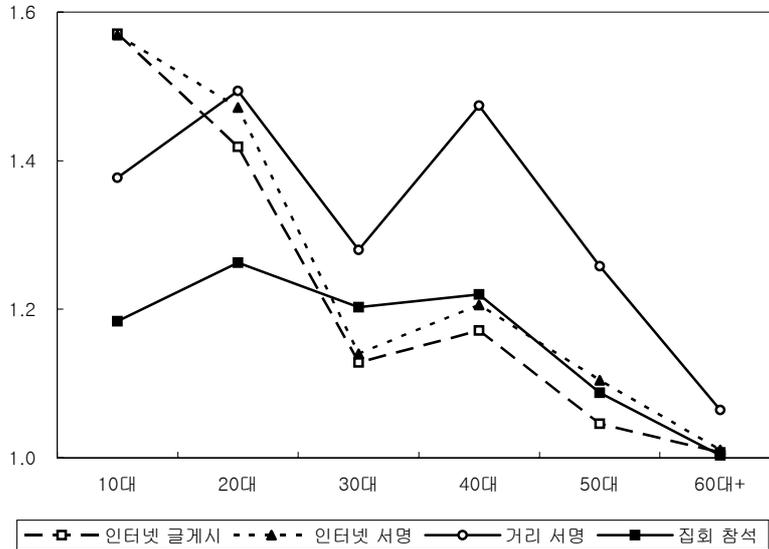
순이었고 중학생이 9.1%로서 가장 낮았다. 대학생의 높은 집회참여율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고교생이 일반성인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고 일반성인과 중학생간의 격차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번 조사의 조사대상 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본 조사에서는 2008년 이후 조사시점 현재(중·고교생의 경우에는 2009년 7월)까지의 참여 경험을 측정했는데, 이 기간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과거에 시위·집회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중·고교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림 V-12] 사회·정치참여 : 집회·모임 참석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중·고교생들의 높은 집회참여율은 청소년층들에 관심을 갖는 주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시기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의사표현과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참여경험의 정도를 연령대별로 비교하기 위해 각 참여유형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이중에서 청소년층과 일반성인 모두 참여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TV/라디오 및 신문/잡지 투고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참여도 평균값은 다음의 [그림 V-13]과 같다.



[그림 V-13] 사회·정치참여 : 연령대별

10대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참여(글 게시, 서명 참여)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는 거리 서명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부터 인터넷을 통한 참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30대에 최저점에 이르렀다가 40대에 소폭 상승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인터넷 이외의 거리서명, 집회·모임 참석의 참여율은 연령대별로 “M”자형의 커브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두가지 참여행동 모두 20대와 40대를 정점으로 하여 그 전후의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30대의 참여율이 40대는 물론 10, 20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 기간이 취업 후 직장생활에 몰입하는 시기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참여의 모든 유형에 있어서 10대가 50대 이후의 노년층보다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이 된 여섯가지 유형의 사회·정치참여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집단 유형별, 배경변인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V-13>과 같다.

먼저 집단유형별 사회·정치참여도의 평균값을 보면 중·고교생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대학생이었으며 일반성인이 이들 학생집단과 큰 격차를 두고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과는 달리 중·고교생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에 청소년들의 이용도가 높은 인터넷을 통한 참여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성인의 경우에는 50대 이후,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의 매우 낮은 참여율이 전체 평균값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13> 사회·정치참여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1.33(.55)	1.31(.58)	1.13(.33)
성별	남자	1.33(.59)	1.35(.64)	1.17(.39)
	여자	1.33(.50)	1.27(.50)	1.08(.26)
	통계	t=-.07	t=2.57*	t=4.47***
지역	서울	1.33(.56)	1.39(.66)	1.12(.29)
	광역시	1.35(.57)	1.32(.59)	1.16(.40)
	시군부	1.31(.53)	1.28(.54)	1.11(.31)
	통계	F=4.46*	F=3.44*	F=2.76
부친학력	중졸 이하	1.32(.54)	1.45(.69)	1.02(.13)
	고졸·전문대졸	1.31(.51)	1.26(.52)	1.13(.35)
	대졸 이상	1.36(.59)	1.38(.65)	1.21(.38)
	통계	F=6.40**	F=10.15***	F=21.39***
가정경제 수준	하	1.33(.53)	1.37(.62)	1.08(.29)
	중	1.29(.51)	1.30(.59)	1.12(.32)
	상	1.38(.60)	1.29(.54)	1.19(.38)
	통계	F=15.54***	F=1.82	F=9.03***

주 1) 통계 : * p< .05, ** p< .01, *** p< .001(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성별로는 중·고교생의 경우에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대학생과 일반성인은 남자의 참여도가 여자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p<.001). 지역별로는 중·고교생과 대학생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05), 서울·광역시에 비해 시군부 거주자들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것은 현실공간의 사회·정치

참여 활동(거리서명, 집회·모임 참석)이 대부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별로는 중·고교생(부친의 학력)과 일반성인(본인의 학력)의 경우에는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대졸 이상 집단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반면($p < .01$, $p < .001$), 대학생은 부친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참여도를 나타내어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가정의 경제수준 별로도 중·고교생과 일반성인은 상층이 중·하층에 비해 높은 참여도를 나타낸 반면, 대학생은 하층 집단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면에서 중·고교생과 일반성인은 상층집단이, 대학생은 하층집단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요약

사회·심리특성

자아존중감의 척도점수를 집단유형별로 비교하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일반성인이었으며 고교생과 중학생은 이들 두 집단과 큰 격차를 두고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의 자존감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가 20대에 접어들면서 정점에 도달한 뒤 30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별 점수를 보면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개인주의적 요인 자존감은 감소하는 반면, 집단주의적 요인 자존감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권위주의적 성격의 척도점수는 일반성인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생, 고교생의 순이었고 중학생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연령층이 높은 집단일수록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경향을 나타내어 특히 50대에서 60대 이상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사회·정치의식

민주주의적 태도의 척도점수는 중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고교생, 대학생의 순이었고 일반성인이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경향을 나타내어 60대 이상의 민주주의적 태도 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내면화된 민주주의적 태도가 나이가 들어 사회·정치 현실을 접하게 되면서 점차 희석화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의식을 “집단주의 가치” “탈물질주의 가치” “평등주의 가치”의 세가지 측면에서 집단유형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집단주의 가치는 일반성인의 척도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이 대학생이었고, 중학생과 고교생은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탈물질주의 가치와 평등주의 가치는 모두 학생집단이 일반성인에 비해 낮은 척도점수를 나타내었다. 청소년층이 일반

성인과 비교하여 정치의식의 측면에서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 물질주의보다는 탈물질주의, 자유주의보다는 평등주의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식을 “국가주의” “국제주의” “애국심”의 세가지 요인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가주의적 성향은 일반성인의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생, 고교생의 순이었으며 중학생이 가장 낮았다. 국제주의의 경우에는 대학생, 일반성인, 중학생, 고교생의 순이었으며, 애국심은 중학생, 일반성인, 대학생, 고교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일반성인은 국가주의, 대학생은 국제주의, 애국심은 중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정치사회적 통제감에 대한 척도점수를 비교하면 고교생과 대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다음이 중학생이었으며 일반성인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하위요인별로는 리더십 능력에 있어서는 대학생, 정책적 통제감에서는 고교생이 가장 높았으며 두 요인 모두 일반성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아직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 단계인 학생청소년들이 일반성인과 비교하여 사회·정치적 현실을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더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정치참여

작년부터 조사시점 현재까지 사회·정치문제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참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고교생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글 게시, 서명 참여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참여는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30대에 최저점에 이르렀다가 40대에 소폭 상승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인터넷 이외의 거리서명, 집회·모임 참석의 참여율은 연령대별로 “M”자형의 커브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두가지 참여행동 모두 20대와 40대를 정점으로 하여 그 전후의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30대의 참여율이 40대는 물론 10-20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 기간이 취업 후 직장생활에 몰입하는 시기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VI. 국가·사회현실 인식

1. 사회문제 인식
2. 국가 발전수준 평가
3. 사회현실 만족도와 변화전망
4. 요약

VI. 국가·사회현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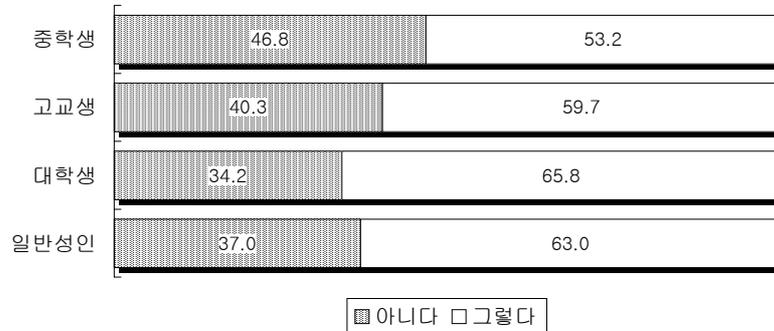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세대가 ①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② 현단계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을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한 ③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1. 사회문제 인식

우리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을 어느 정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사회문제는 “성차별” “빈부격차” “학력차별” “일부계층 특혜” “집안/뒷배경 중시”의 다섯 가지 영역이었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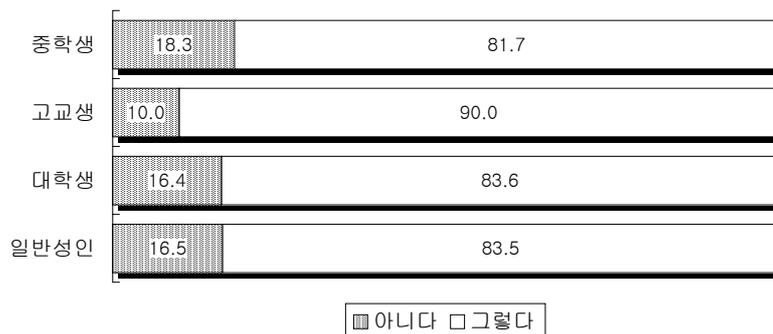
먼저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그림 VI-1])를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대학생이 65.8%로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일반성인(63.0%), 고교생(59.7%)의 순이었으며 중학생이 53.2%로서 가장 낮았다. 중·고등학교의 학교 현장에서는 대학이나 일반사회에 비교하여 성차별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³³ 조사표의 응답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에서 빈도분포 분석은 2점 척도로 변환한 값을, 평균 값 차이검증은 원래의 4점 척도 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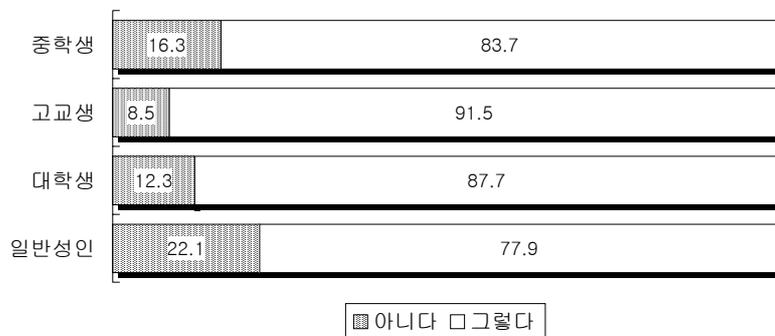
[그림 VI-1] 사회문제 심각성 : 성차별

빈부격차 문제의 심각성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고교생이 90.0%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생과 일반성인이 83%로서 유사한 수준이었고, 중학생이 81.7%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단계인 고교생들이 빈부격차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춘기 특유의 민감성과 더불어 일반사회 못지 않게 학교현장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을 둘러싼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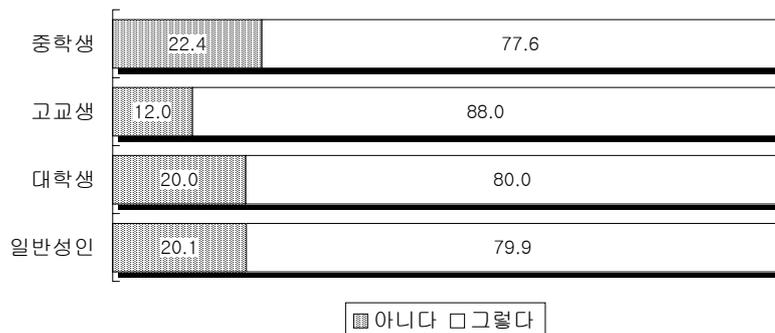


[그림 VI-2] 사회문제 심각성 : 빈부격차

학력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고교생의 91.5%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네 집단 중 가장 다수였으며, 이어서 대학생(87.7%), 중학생(83.7%)의 순이었으며 일반성인이 77.9%로서 가장 적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 단계인 학생청소년 집단이 성인들보다 학력차별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력차별의 심각성에 대하여 고교생들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가 대학진학 등 진로문제로 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고 있는 시기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VI-3] 사회문제 심각성 : 학력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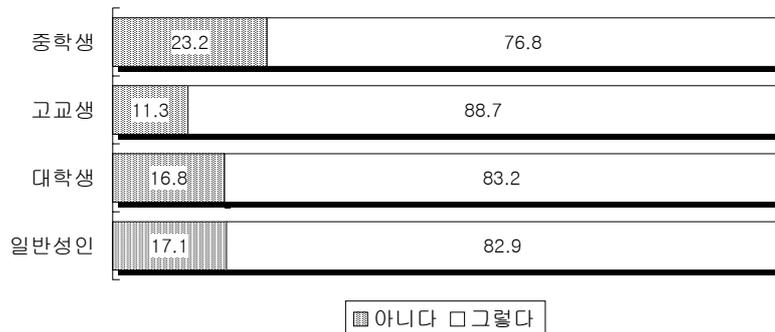


[그림 VI-4] 사회문제 심각성 : 일부계층 특혜

일부계층에 대한 특혜의 존재([그림 VI-4])에 대해서는 고교생의 88.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네 집단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대학생과 일반성인이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고(80.0%, 79.9%) 중학생이 77.6%로서 가장 적었다. 고교생과 다른 세 집단간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내부에서 학생의 계층적 배경을 둘러싼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을 앞두고 가정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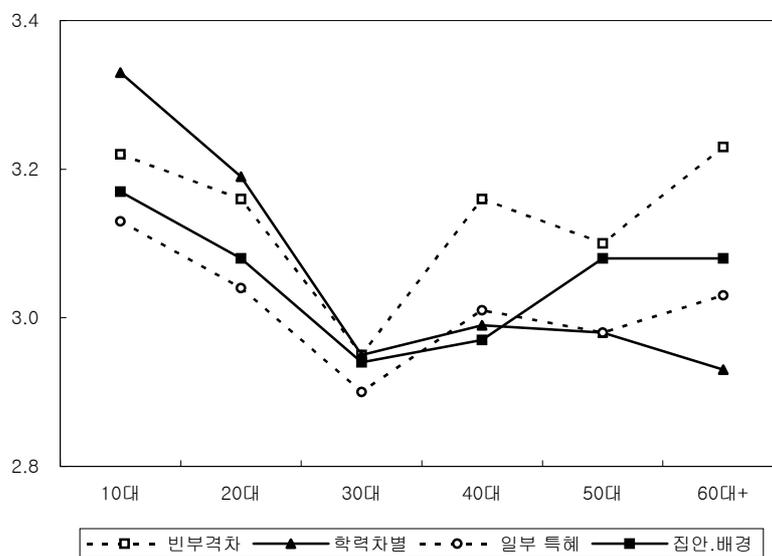
집안/뒷배경 중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고교생이 88.7%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대학생과 일반성인이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고(83.2%, 82.9%) 중학생이 76.8%로서 가장 적었다. 아직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 단계인 고교생들이 이처럼 집안/뒷배경 중시 풍조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의 현장에도 본인의 실력 못지 않게 집안의 배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I-5] 사회문제 심각성 : 집안/뒷배경 중시

유형별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연령대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조사항목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그림 VI-6]과 같다. 심각성의 인식정도에 있어서 10대와 20대는 학력차별, 빈부격차, 집안/뒷배경 중시, 일부계층 특혜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40대부터는 학력차별보다는 빈부격차의 문제가 보다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대 이하의 학생청소년들은 학력차별을, 40대 이후 중장년세대는 빈부격차를 우

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로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다섯가지의 사회문제 유형 모두에서 30대의 심각성 인식 수준이 가장 낮은 점이 주목되는데, 이 시기는 학교졸업 이후 직장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VI-6] 사회문제 심각성 : 연령대별

조사대상이 된 다섯가지의 사회문제 유형 중 성차별 문제를 제외한 네 항목³⁴의 응답결과 평균값을 산출하여 집단유형별, 배경변인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VI-1>과 같다. 이 지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간주할 수 있는데 먼저 집단유형별 사회문제 심각성 인식의 평균값을 보면 중·고교생이 가장 높

³⁴ 성차별 문제를 제외한 것은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남녀간 응답결과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여 전체 평균값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왔고 다음이 대학생이었으며 일반성인은 이들 학생집단과 큰 격차를 두고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성인보다는 아직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인 학생층이 사회문제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다.

<표 VI-1> 사회문제 심각성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3.21(.64)	3.12(.54)	3.01(.45)
성별	남자	3.16(.67)	3.09(.54)	3.02(.47)
	여자	3.28(.59)	3.16(.53)	3.00(.43)
	통계	t=-8.04***	t=-2.37*	t=.81
지역	서울	3.22(.64)	3.08(.52)	2.95(.48)
	광역시	3.26(.63)	3.17(.57)	3.07(.51)
	시군부	3.18(.64)	3.10(.52)	3.01(.39)
	통계	F=11.11***	F=2.94	F=5.94**
부친학력	중졸 이하	3.17(.64)	3.16(.53)	3.02(.40)
	고졸·전문대졸	3.21(.64)	3.09(.56)	3.01(.45)
	대졸 이상	3.24(.64)	3.16(.50)	3.00(.47)
	통계	F=2.74	F=3.10*	F=.25
가정경제 수준	하	3.34(.60)	3.26(.48)	3.11(.41)
	중	3.17(.63)	3.14(.53)	3.01(.45)
	상	3.18(.66)	3.01(.56)	2.91(.46)
	통계	F=40.44***	F=16.96***	F=15.83***

주 1) 통계 : * p< .05, ** p< .01, *** p< .001(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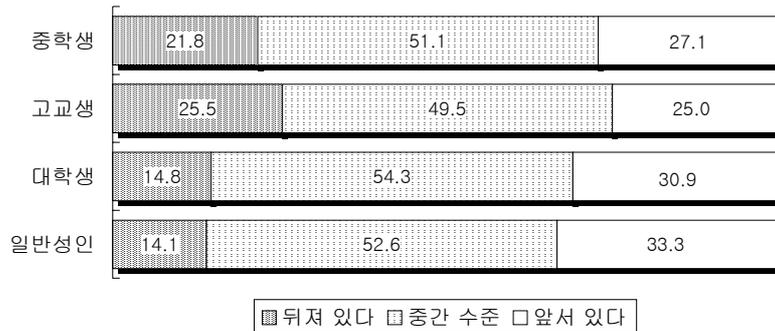
성별로는 중·고교생과 대학생은 여학생의 심각성 평가점수가 남자보다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p<.05). 지역별로는 세 집단 모두 광역시 거주자가 서울과 시군부에 비해 심각성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중·고교생과 일반성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p<.01). 이것은 도시화의 수준에서 중간단계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친의 학력별로는 대학생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

졸 이하의 최저학력층과 대졸 이상의 최고학력층의 점수가 중간집단(고졸·전문대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세 집단 모두 하층의 심각성 평가점수가 중·상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2. 국가 발전수준 평가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성인이 한국사회의 영역별 발전수준을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³⁵. 조사대상 영역은 “국가의 경제적 발전 수준” “국민들의 생활수준” “국가의 정치적 민주화 수준” “국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의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국가의 경제적 발전수준에 대하여 앞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일반성인이 33.3%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학생(30.9%), 중학생(27.1%)의 순이었으며 고교생이 25.0%로서 가장 적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OECD 회원국이 되었고 제반 경제지표에서도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스스로를 선진국의 국민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뒤져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교생이 25.5%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학생(21.6%)이었으며 대학생과 일반성인이 가장 적었다(14.8%, 14.1%). 일반성인보다는 학생층, 특히 고교생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대하여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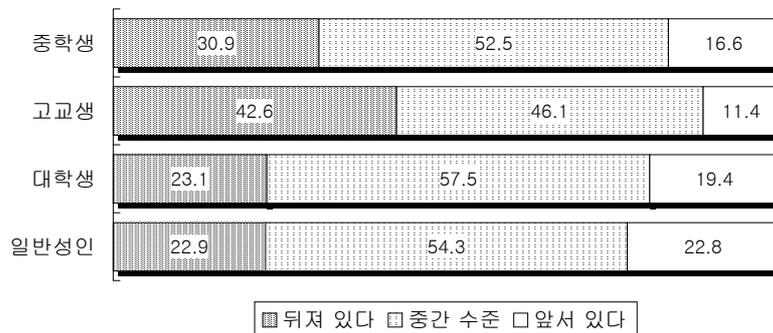


[그림 VI-7] 국가발전수준 평가 : 경제적 발전

³⁵ 조사표의 응답항목은 “매우 뒤쳐져 있다”에서 “매우 앞서 있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에서 빈도분포 분석은 3점 척도로 변환한 값을, 평균값(차이검증)은 원래의 5점 척도 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앞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성인이 22.8%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생(19.4%), 중학생(16.6%)의 순이었으며 고교생이 11.4%로서 가장 낮았다. 반면에 뒤져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교생이 42.6%에 달하여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학생(30.9%)이었으며 대학생과 일반성인은 23% 안팎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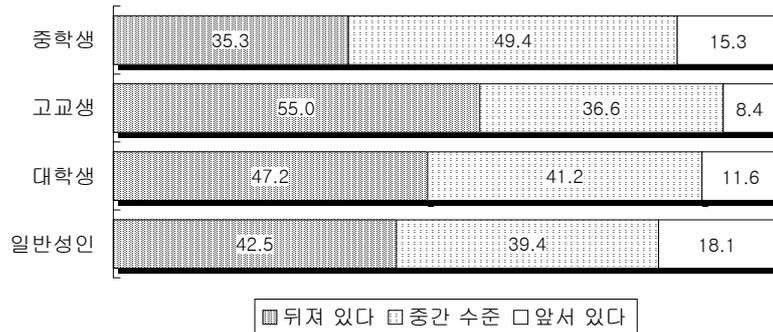
경제발전 수준과 더불어 국민 생활수준에 있어서도 일반성인에 비해 학생층, 특히 고교생들이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 경제발전 수준에 대한 평가보다 국민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실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이에 못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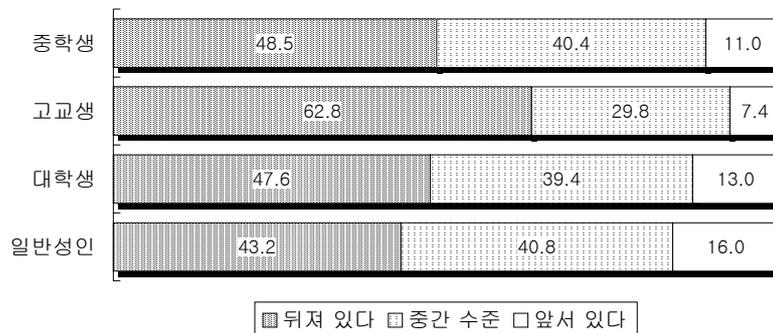
[그림 VI-8] 국가발전수준 평가 : 국민 생활수준

국가의 정치적 민주화 수준에 대해서 다른나라에 비해 앞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성인이 18.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학생(15.3%), 대학생(11.6%)의 순이었으며 고교생은 8.4%에 불과했다. 중학생을 제외한 다른 세 집단은 모두 뒤져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비율은 고교생이 55.0%로서 가장 높았고, 대학생과 일반성인도 4할을 상회하였다(47.2%, 42.5%). 앞서의 경제발전 수준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면 청소년과 성인들은

경제보다는 정치적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9] 국가발전수준 평가 : 정치적 민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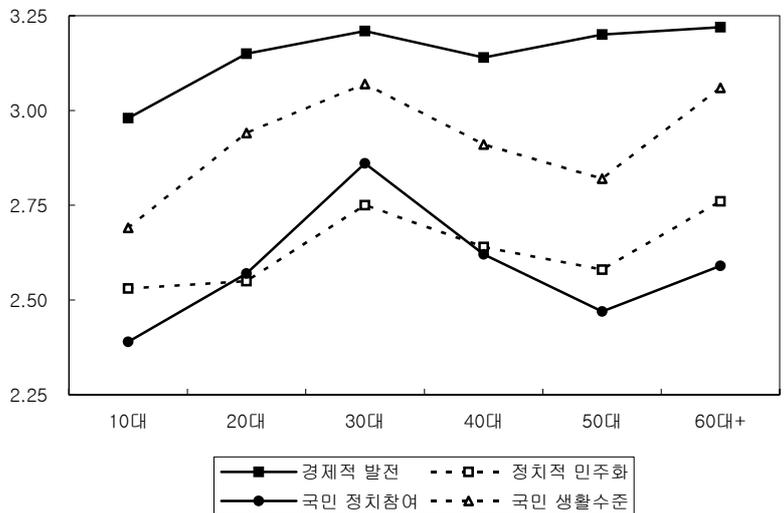
[그림 VI-10] 국가발전수준 평가 : 정치참여 수준

국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그림 V-10]),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성인이 16.0%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학생(13.0%), 중학생(11.0%)의 순이었으며 고교생이 7.4%로서 가장 적었다. 고교생의 경우 뒤져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8%에 달하여 4할 대신 다른 세 집단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국가 발전수준 평가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된 4가지 영역에서 모두 고교생의 평가가 현저하게 낮은 점이 특

징적이라할 수 있다.

국가발전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VI-11]과 같다.

20·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경제적 발전수준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고 다음이 국민 생활수준, 정치적 민주화수준의 순이었으며 국민 정치참여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20·30대의 경우에는 경제적 발전, 국민 생활수준에 이어서 국민 정치참여 수준이 정치적 민주화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적 발전(경제발전 수준, 국민생활수준)을 정치적 발전(정치적 민주화, 국민 정치참여)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하였고 그 격차도 상당히 큰 편이었다. 연령대별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모든 영역에서 30대가 60대와 더불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즉, 30대는, 10·20대는 물론 중장년층인 40·50대보다도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젊은층일수록 국가·사회현실에 비판적일 것이라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VI-11] 국가발전수준 평가 : 연령대별

국가발전 수준 평가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4가지 영역의 발전수준 평가에 대한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다음의 <표 VI-2>와 같이 나타났다.

<표 VI-2> 국가발전수준 평가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2.65(.66)	2.80(.60)	2.88(.60)
성별	남자	2.71(.70)	2.87(.60)	2.96(.62)
	여자	2.59(.60)	2.72(.59)	2.79(.57)
	통계	t=7.57***	t=4.65***	t=4.88***
지역	서울	2.68(.64)	2.74(.58)	2.80(.56)
	광역시	2.62(.67)	2.70(.62)	2.83(.61)
	시군부	2.66(.65)	2.90(.58)	2.93(.61)
	통계	F=3.94*	F=17.58***	F=5.88**
부친학력	중졸 이하	2.57(.69)	2.71(.60)	2.95(.54)
	고졸·전문대졸	2.64(.64)	2.83(.59)	2.81(.61)
	대졸 이상	2.68(.66)	2.78(.63)	3.00(.60)
	통계	F=6.32**	F=2.58	F=12.47***
가정경제 수준	하	2.49(.65)	2.65(.61)	2.75(.57)
	중	2.65(.61)	2.76(.56)	2.87(.59)
	상	2.78(.68)	2.96(.63)	3.03(.61)
	통계	F=96.84***	F=24.73***	F=16.91***

주 1) 통계 : * p< .05, ** p< .01, *** p< .001(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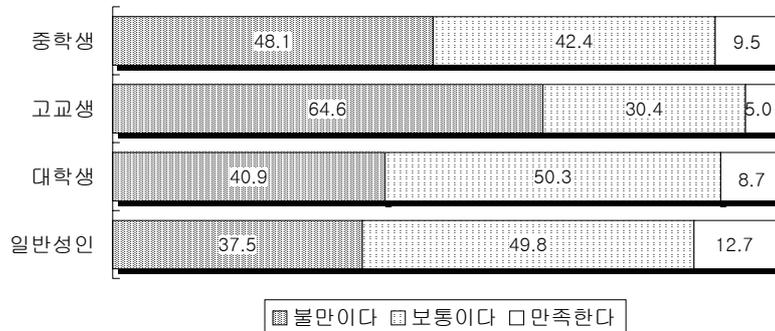
먼저 집단유형별 전체 평균값을 비교하면 일반성인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이 대학생이며 중·고교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세 집단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국가 발전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지역별로는 중·고교생은 서울 거주자의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는데(p<.05), 대학생과 일반성인은 시군부 거주자의 평가점수가 대도시 거주자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p<.001, p<.01). 부친의 학력별로는 중·고교생은 학력이 높을수록 평가점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 < .01$), 대학생은 부친의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성인은 중졸 이하, 대졸 이상 학력층이 중간층인 고졸/전문대졸 집단보다 국가 발전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세 집단 모두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국가 발전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 < .001$).

3. 사회현실 만족도와 변화 전망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성인이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는지를 조사하였다³⁶.

응답결과를 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성인이 12.7%로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세 집단은 모두 1할 미만의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불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교생이 64.6%에 달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생(48.1%), 대학생(40.9%)의 순이었으며 일반성인이 37.5%로서 가장 적었다. 가장 연소집단인 중·고교생, 그중에서도 고교생의 만족도가 대학생과 일반성인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점이 주목된다. 고교생이 아직 사회진출하기 이전 단계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높은 불만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특징인 심리적 불안감과 더불어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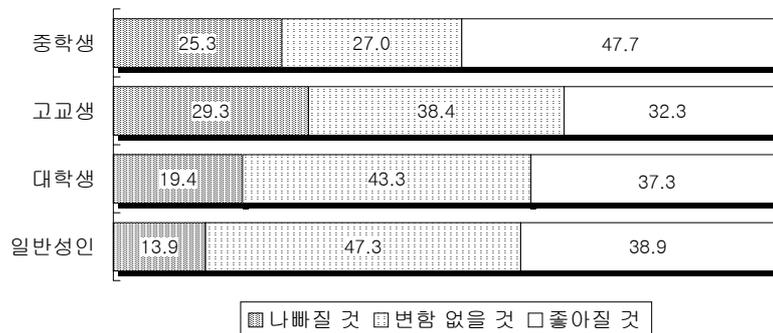


[그림 VI-12] 사회현실 만족도

³⁶ 조사표의 응답항목은 “매우 불만이다”에서 “매우 만족한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에서 빈도분포 분석은 3점 척도로 변환한 값을, 평균값(차이검증)은 원래의 5점 척도 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사회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더불어 앞으로 4~5년 뒤에 우리사회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³⁷. 응답 결과를 보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중학생이 47.7%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반성인과 대학생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38.9%, 37.3%) 고교생이 32.3%로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교생이 29.3%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학생(25.35%), 대학생(19.45%)의 순이었으며 일반성인(13.95%)이 가장 적었다.

앞서 사회현실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와 종합해 보면, 네 집단 모두 현재의 사회현실에 대해서는 만족보다 불만을 느끼는 비율이 높지만, 장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현실에 대하여 가장 많은 불만을 나타내었던 고교생의 경우에도 장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비관적인 전망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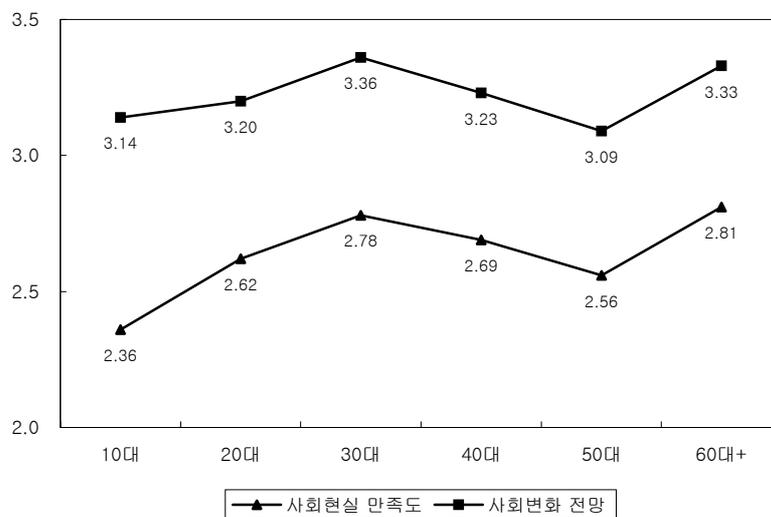


[그림 VI-13] 사회변화 전망

사회현실 만족도와 사회변화 전망에 대한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VI-13]과 같다. 먼저 모든 연령대에서 걸쳐 사회현실보다는 앞으로의 변화전망에 대하여 긍정적(낙관적)으로 평가하고

³⁷ 조사표의 응답항목은 “훨씬 나빠질 것이다”에서 “훨씬 좋아질 것이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에서 빈도분포 분석은 3점 척도로 변환한 값을, 평균값(차이검증)은 원래의 5점 척도 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현실 만족도의 경우 10대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한편 30대를 기점으로 증가-감소한 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도 연령대별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으나 연령간 격차가 보다 완만하고 50대가 가장 부정적(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VI-14] 사회현실 만족도와 사회변화 전망 : 연령대별

사회현실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배경변인별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 VI-4>와 같다. 집단유형별 전체 평균값은 일반성인이 가장 높았고 대학생이 중간이었으며, 중·고교생이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중·고교생은 남자의 만족도가 여자보다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1$). 한편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대학생은 남자, 일반성인은 여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지역별로는 중·고교생은 서울 지역 거주자가, 일반성인은 광역시 거주자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p < .05$, $p < .01$). 부친의 학력(중·고교생, 대학생)과 본인의 학력(일반성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세 집단 모두 경제수준이 올라갈수록 사회

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 < .001$).

<표 VI-3> 사회현실 만족도 : 배경변인별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성인
전체		2.36(.90)	2.62(.79)	2.72(.73)
성별	남자	2.40(.95)	2.65(.82)	2.69(.77)
	여자	2.31(.84)	2.57(.76)	2.75(.69)
	통계	$t=4.28^{***}$	$t=1.87$	$t=-1.32$
지역	서울	2.40(.89)	2.67(.76)	2.75(.64)
	광역시	2.31(.91)	2.56(.76)	2.82(.75)
	시군부	2.38(.90)	2.64(.82)	2.65(.74)
	통계	$F=4.60^*$	$F=2.20$	$F=5.66^{**}$
부친학력	중졸 이하	2.33(.94)	2.55(.86)	2.74(.78)
	고졸·전문대졸	2.37(.89)	2.65(.79)	2.70(.73)
	대졸 이상	2.34(.91)	2.58(.76)	2.75(.68)
	통계	$F=.90$	$F=1.64$	$F=.44$
가정경제 수준	하	2.21(.90)	2.43(.84)	2.56(.71)
	중	2.39(.87)	2.57(.73)	2.73(.72)
	상	2.43(.94)	2.79(.83)	2.87(.75)
	통계	$F=31.79^{***}$	$F=18.29^{***}$	$F=14.00^{***}$

주 1) 통계 : * $p < .05$, ** $p < .01$, *** $p < .001$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2) 부친학력 : 일반성인은 본인의 학력임

4. 요약

우리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을 어느 정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성차별” “빈부격차” “학력차별” “일부계층 특혜” “집안/뒷배경 중시”의 다섯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성차별을 제외한 나머지 네가지 문제의 심각성 인식수준에서 고교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교생들이 대학진학을 앞두고 앞으로 겪게될 학력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학생의 가정/계층 배경을 둘러싼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발전수준을 “국가의 경제적 발전 수준” “국민들의 생활수준” “국가의 정치적 민주화 수준” “국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의 네가지 항목에 걸쳐 평가하게 하였다. 네가지 측면 모두에 걸쳐 일반성인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앞서 있다)이었고, 대학생과 중학생이 중간이었으며, 고교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뒤쳐져 있다)하였다. 청소년층과 일반성인 모두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적 발전(경제발전 수준, 국민생활수준)을 정치적 발전(정치적 민주화, 국민 정치참여)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하였고 그 격차도 상당히 큰 편이었다. 또한 네 집단 모두 국가적 차원(경제적 발전, 정치적 민주화)보다는 국민 생활 차원(국민 생활수준, 정치참여)의 발전수준을 낮게 평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연소집단인 중·고교생, 그중에서도 고교생의 만족도가 대학생과 일반성인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점이 주목된다. 고교생이 아직 사회진출하기 이전 단계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높은 불만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특징인 심리적 불안감과 더불어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사회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더불어 앞으로 4~5년 뒤에 우리사회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학생, 일반성인, 대학생, 고교생

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현실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와 종합해 보면, 네 집단 모두 현재의 사회현실에 대해서는 만족보다 불만을 느끼는 비율이 높지만, 장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현실에 대하여 가장 많은 불만을 나타내었던 고교생의 경우에도 장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비관적인 전망보다 다수를 차지하였다.

VII. 결론

1. 연구요약과 시사점
2. 정책방향과 과제

VII. 결론

1. 연구요약과 시사점

가. 연구요약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된 3개년 연속사업의 제2차년도 연구이다. 2008년의 청소년들의 세대관·교육관, 정보이용 실태 조사에 이어서, 올해에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정치 의식과 참여의 측면에서 청소년과 성인세대 또한 청소년층 내부의 유사상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고교생과 대학생, 일반성인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자계식(自計式)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고교생은 학급 단위의 집단조사, 대학생과 일반성인은 조사원을 통한 개별조사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표본은 중·고교생 6,784명, 대학생 1,363명, 일반성인 1,220명이었다.

조사의 내용은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심리·사회의식, 사회·정치의식과 참여, 국가·사회현실 인식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각 영역별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정치문제 관심도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청소년층의 관심도는 성인세대보다는 낮았지만 그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10대 청소년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20·30대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60대 이상의 노년층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정치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주로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아버지이고,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친구나 선배, 교사(교수)와의 대화빈도는 증가하

는 반면 어머니와의 대화빈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사회·정치문제 관련 보도를 접하는 주된 경로는 청소년과 성인세대 모두 TV였지만 그 다음으로 청소년들은 인터넷, 성인들은 신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보도매체의 신뢰도 평가에서도 청소년들은 인터넷, 성인들은 신문의 신뢰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매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사회의식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성인이었으며 중·고교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인별로는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개인주의적 요인의 자존감은 감소하는 반면, 집단주의적 요인 자존감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중·고교생의 낮은 자존감은 성장기의 심리적 특성과 학업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권위주의적 성격의 척도점수는 일반성인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생, 고교생, 중학생의 순으로서 연령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사회·정치의식과 참여

민주주의적 태도의 척도점수는 중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고교생, 대학생의 순이었고 일반성인이 가장 낮았다. 학교교육을 통해 내면화된 민주주의적 태도가 나이가 들어 사회·정치 현실을 접하게 되면서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정치의식을 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청소년들은 성인세대와 비해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 물질주의보다는 탈물질주의, 자유주의보다는 평등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식을 “국가주의”(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 “국제주의”(다른나라와의 협력과 평화적인 공존을 중시), “애국심”(자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의 세가지 요인별로 조사한 결과, 성인은 국가주의, 대학생은 국제주의, 애국심은 중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

타내었다.

정치사회적 통제감에 대한 척도점수를 비교하면 고교생과 대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다음이 중학생이었으며 일반성인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아직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 단계인 학생청소년들이 일반성인과 비교하여 사회정치적 현실을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더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정치문제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참여활동 경험에 있어서는 중·고교생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참여율(글 올리기, 서명 참여)이 대학생과 성인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거리서명, 집회·모임의 경우에도 중·고교생의 참여율이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의 사회·정치적 환경요인(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촛불시위 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국가사회 현실 인식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빈부격차” “학력차별” “일부계층 특혜” “집안/뒷배경 중시”)에 대하여 고교생들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교생들이 졸업 후 겪게 될 학력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학생의 가정/계층 배경을 둘러싼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발전수준을 “경제적 발전수준” “국민 생활수준” “정치적 민주화수준” “국민 정치참여 수준”의 네가지 항목에 걸쳐 평가하게 한 결과, 네 가지 측면 모두에 걸쳐 일반성인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대학생과 중학생이 중간이었으며, 고교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가장 연소집단인 중·고교생, 그중에서도 고교생의 만족도가 대학생과 일반성인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교생이 아직 사회진출하기 이전 단계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높은 불만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특징인 심리적 불안감과 더불어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향후 예상되는 사회변화의 전망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성인세대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사회현실에 대해서는 만족보다 불만을 느끼는 비율이 높지만, 장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현실에 대하여 가장 많은 불만을 나타내었던 고교생의 경우에도 장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비관적인 전망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나.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층을 단일한 특성을 지닌 연령집단으로 가정하는 이른바 “청소년주의”(원용진 외, 2006: 2) 신화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세대문제와 관련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층을 유사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사회적 범주 또는 세대단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세대문제를 역사적·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정치의식과 참여의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청소년층 내부에서 연령층(교급)과 거주지역 또는 가정배경(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교육정도)별로 다양한 분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³⁸.

따라서 청소년층을 단일집단을 가정하는 이론적 시각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X세대론에서 강

³⁸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사회현실 만족도의 측면에서 중학생과 대학생, 일반성인이 유사한 응답경향을 나타낸 반면 고교생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현격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점, 자아존중감의 측면에서 대학생과 다른 세 집단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점, 사회·정치적 참여의 측면에서 일반성인과는 달리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층 내부에서 지역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 등을 단적인 예로 지적할 수 있다.

조하는 청년의 “소비지향성”은 대도시 지역, 중·상층 청소년층의 두드러진 특성으로서 세대 특성이라기보다는 계층현상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책의 측면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타당할 것이다. 정책의 측면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성인과는 구분되는 “청소년” 정책이 아닌 성이나 지역, 계층의 문제로 접근할 때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우리사회의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즉, 중·고교생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20·30대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60대 이상의 노년층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율에서 중·고교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더불어 청소년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던 전통적인 매체들과는 달리 중·고교생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생과 성인과 대등한 수준에서 우리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 논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니며, 실제로 많은 문제점(허위정보 유포, 비방성 게시물 등)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법률적·제도적인 측면의 완전한 규제가 불가능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기초한 현실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발언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건전한 토론과 논쟁을 유도하는 유연한 대응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적 태도를 내면화하고 높은 정치사회적 통제감을 갖고 있지만, 성인집단의 민주주의적 태도와 정치사회적 통제감은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우리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제도교육의 관념적 이상주의와 현실사회의 왜곡된 관행의 이중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중구조하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벗

어나 사회 현실에 직면할 경우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사회불만층 또는 정치적 무관심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학생청소년집단과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매개하는 30대 연령층의 독특한 의식성향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³⁹. 학교현장의 이상주의와 현실사회의 괴리감은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사회의 경우 점진적인 발전단계를 밟아온 서구사회와는 달리 유례 없는 압축성장으로 보다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국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거시적인 차원의 과제이기도 하다.

넷째, 고교생들은 중학생이나 대학생, 일반성인과 비교하여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이 높은 수준이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교생이 아직 사회진출하기 이전 단계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높은 불만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특징인 심리적 불안감과 더불어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권위주의적인 교육환경,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중·고교생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이 된 시점의 사회·정치적 상황(2008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촛불시위 등)과 더불어 그들을 둘러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누적된 불만의 우회적인 표출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입시의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활동체험을 통해 건강한 심성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³⁹ 30대 연령층은 20대 이하 연령층과 4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비교하여 자아 존중감,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거리서명 참여율, 정치사회 통제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정치의식에 있어서도 대학생과 중장년층에 비해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30대가 성인초기의 단계로서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성공을 위해 몰입하는 생애주기적 특징(황상민, 김도환, 2004)과 더불어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진입하면서 겪게 되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정책방향과 과제

가.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합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적 경로를 통한 정책참여, 선거참여 외에도 집회와 결사, 사회갈등, 시민사회, 인터넷공간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발언하고 있다. 이런 참여를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을 스스로 확인하고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과 쟁점에 대해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길 원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정제되지 않은 열정과 에너지, 미숙한 생각 등에 입각한 참여가 청소년 자신은 물론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시민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분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나 실증적 연구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참여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선진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의 국내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참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청소년참여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참여가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 경로와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시민교육적 차원에서 청소년참여가 안내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 하에 청소년참여의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의 추진주체가 자주 바뀔으로써 청소년

* 집필 : 김영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년정책의 기조도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 참여정부 들어서 청소년정책을 종합하여 일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폐지되고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된 것은 청소년참여 측면에서 볼 때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들어 다시 청소년정책의 주관부서를 여성가족부로 옮긴다는 논의는 청소년정책의 취약성, 청소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의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차제에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서의 명칭을 여성청소년부로 확정하고 청소년정책의 책임단위를 분명히 하여 청소년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입시교육 구조와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입시교육 구조와 풍토가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려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를 개선하기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입시교육에 의해서 청소년들의 삶 전체가 황폐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교육 구조와 풍토의 근본적인 개선 노력과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입시교육의 역기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청소년이 참여를 통해서 입시를 지향한 교실 속의 지식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시민생활의 모습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유기적인 결합과 소통이 필요하다.

셋째, 기성세대 일각에 존재하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과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만 보아 청소년참여를 시기상조로 보거나 청소년을 문제아로 보아 청소년참여를 불순한 것으로 보는 기성세대의 인식이나 문화는 불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인식과 문화를 전환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참여에 있어서 성인과 청소년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참여라고 해서 청소년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보다 더 많은 세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성인과 협력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은 참여를 통해서 보다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에 대한 참여교육, 건전한 소비교육, 여가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참여의 중요성과 참여방법, 향락주의적인 소비생활과 여가활동을 지양할 수 있는 건전한 소비교육과 여가교육을 해야 한다. 참여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참여가 이성적인 숙고와 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자칫 청소년참여가 피상적인 흥미와 감각 위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상적인 흥미와 감각 위주로 청소년참여가 이루어질 때,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의 깊이 있는 시민성함양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피상적인 참여에 있어서는 선동과 감정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피상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에 이성적인 숙고와 대화가 필수적이다. 청소년참여프로그램이나 지도자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참여를 설계하거나 안내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청소년시설과 단체 등이 연계하여 다양한 청소년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국가, 세계적 차원의 참여도 활성화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의 무대인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과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국제사회의 청소년참여 사례와 정책을 부단히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함과 동시에 선진국·국제사회와 다양한 교류를 모색해야 한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오래 된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선진국은 청소년참여에서 있어 우리보다 나은 점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의 청소년참여가 모든 점에서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 맥락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참여프로그램과 경험을 도입해 우리 청소년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세대통합과 청소년 사회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세대별 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정책과 제도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검토·분석하는 성별 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의 행동강령에 기초한 것으로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그 근거조항⁴⁰이 마련되었고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성별 영향평가제도는 국가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여성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표적인 소수집단으로는 청소년과 노인세대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제도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복지의 시혜대상으로 간주될 뿐 시민적 권리의 주체로서의 측면은 간과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년층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가 정책과 제도가 세대별로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검토하는 세대별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대별 영향평가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별 영향평가제도가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려하여 먼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여성, 청소년, 노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소수집단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배려하는 사회적 소수자 영향평가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세대별 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예시하면 다음과

⁴⁰ 성별 영향평가제도의 근거조항(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같다.

① 해외 각국의 정책, 제도 및 입법 사례 검토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를 위한 선진각국의 정책, 제도, 법령 현황 및 운영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한국사회의 적용가능성 검토

② 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여론 수렴 : 일반국민 및 관계전문가, 정책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조사, 의견조사 및 공청회 등 실시

③ 세대별 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제·개정 방안, 부처별 업무분담 계획 및 추진체계,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시행

세대공동체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과거 대가족 제도하에서는 가정내에서 일상적인 세대간 교류와 접촉이 가능했지만 핵가족화의 진전과 더불어 청소년과 중·장년세대, 특히 노인세대와의 접촉기회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대간 교류와 대화 부족으로 인한 세대갈등 현상이 주요한 사회현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세대간 상호이해와 통합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세대공동체 교육 또는 세대공동체 활동(최상민, 한정란, 2007). 세대공동체란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McClusky, 1990). 각 세대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활동을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공동체 활동의 효과는 지역사회, 청소년세대, 중·장년세대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최상민, 한정란, 2007: 165-166).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원 시스템을 형성을 통해 관련 조직이나 단체들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청소년세대는 다른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형성함으로써 비행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지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장년, 노인세대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독감과 소외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세대공동체 활동은 학습이나 레크리에이션, 이벤트나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현재 일부 시설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세대공동체 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머물고 있다. 세대공동체 활동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대공동체 활동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지역사회내의 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세대공동체 활동 유관기관간의 상호 연계·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프로그램 공동 기획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② 활동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및 보급 : 선진각국의 관련정책 및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우리 실정에 맞는 유형별 활동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실시.

③ 세대공동체 활동 운영사례집 제작·보급 : 시설·단체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외국의 사례와 함께 수집·정리하여 프로그램 매뉴얼의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청소년단체·시설 중심의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청소년들의 사회·정치의식 형성에 있어서 매스미디어는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전통적 사회화기관을 능가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상업주의화 경향과 일부 매체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고려할 때 미디어 보도내용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청소년들에게 사회현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소통능력을 길러주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얻는 비판적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학습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학습”이란 교

사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교사라는 조력자의 도움 아래 학습자들이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미디어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구하며 미디어 제작실험에 뛰어 들어야 한다. 즉, 학습자들이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참여적 학습을 의미한다(이미나, 2009).

현재 미디어 교육은 제7차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인 실천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 학교의 미디어 교육은 대부분 신문활용 교육(NIE: Newspapers in Education)에 편중되어 청소년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는 영상매체 교육은 드물고, 읽기 능력 함양에 치중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보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입시준비 위주의 학교교육의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환경과 여건을 구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청소년단체·시설에서는 전문인력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인터넷방송국이나 미디어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미디어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이들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성 있는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와 청소년단체·시설의 역할분담 : 현재 미디어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나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 중심의 미디어 교육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는 미디어교육의 이론적 부분을 담당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청소년단체·시설에서 미디어관련 토론/실습/제작 등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

② 지역 단위 미디어교육(프로그램) 거점 시설 지정·운영 : 전담인력/장비를 구비한 단체·시설을 지역별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관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지역내 각급 학교가 특별활동/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해당 시설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

③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전담인력 양성체제 구축 :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단체·시설의 미디어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도사자격 취득시 해당시설에 우선 임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대학과 협력하에 청소년지도자 대상 미디어교육 연수·재교육과정 운영 등.

④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가이드북 및 사례집 제작·보급 : 미디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용/단체·시설용 사례집 및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보급

온라인 토론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토론과 참여가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참여(글 올리기, 서명 등) 빈도가 중·고교생이 대학생이나 일반성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통적인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토론과 참여는 익명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온라인상의 게시글과 토론에 대한 현행 정책은 규제에 편중되어(사이버모욕죄 등) 이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온라인 토론 참여가 사회·정치적 함양에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온라인 토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토론집단 구성방식, 학습자 특성에 따른 효과, 교수자 및 운영자의 역할, 토론학습 촉진전략 등 주로 교육·학습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한안나, 2008: 130).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일부분으로서,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표현의 주된 경로로 자리잡고 있음을 고려하여 온라인 토론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시론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토론 참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정책 기초연구 : 사회·정치문

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온라인 토론 참여의 실태와 유형, 온라인 토론 참여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온라인 토론이 집회/시위 등 현실적 참여로 유도되는 과정과 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② 건전한 온라인 토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보급 : 온라인 토론이 청소년들의 사회·정치의식 함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과 매너를 가이드북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시설의 민주시민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③ 청소년정책 관련 온라인 토론 경진대회 개최 : 청소년정책에 관한 정책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토론 학습의 장으로서 온라인 토론 경진대회 개최. 토론 내용의 논리성·현실성, 어휘선택의 적절성, 토론상대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토론자를 선정하여 포상.

참고문헌

- 곽진영 (1990).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민주적 태도의 형성에 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곽한영 (2004). 촛불시위참여가 청소년의 정치의식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미래예측을 위한 청소년참여 인권 환경 및 정책 분석.
- 김광웅, 방은령 (2001). 한국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형성요인. 서울: 집문당.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문화비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영 (1999). 한국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환 (1997).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 비평사. 15-48.
- 김명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명정 (2009). 청소년참여가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 김신영, 오성배, 이명진 (2007). 한국청소년 가치관 조사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인 (1999). 정치참여의 시민교육효과에 관한 시론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29, 43-65.
- 김영인 (2002). 정치참여의 시민교육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인 (2003). 정치참여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고찰. 시민교육연구, 35(1), 39-68.
- 김영인 (2003). 제 16 대 대선이 청소년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과 청소년 정치교육. 청소년학연구, 10(2), 73-105.
- 김영인 (2004). 청소년의 참여적 시민성함양을 위한 NGO활용방안 연구. 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4년 국제심포지움 발표자료집, 195-217.
- 김영인 (2005). 청소년의 불안 핵폐기장갈등 참여와 시민의식형성의 관련성 고찰. 청소년학연구 12(1),
- 김영인 (2007). 청소년의 참여와 시민성 함양. 서울:한국학술정보.

- 김영태 (2003). 16대 대선 후보선정 및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한 분석. 한국 정치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2년 대선 평가와 차기 행정부의 과제, 3-22.
- 김원태 (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3집, 49-88.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재신, 한성열 (2004). 권위주의 성격에 따른 공정과 인정의 갈등상황에서의 판단: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97-114.
- 김형준 (2003). 미디어와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평가. 한국정치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2년 대선 평가와 차기 행정부의 과제, 94-114.
- 김희성 (2002).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4, 91-113.
- 김희성 (2005). 청소년의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에 대한 참여의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2(1), 326-346.
- 남채봉 (2002).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정치의식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2004). 2003 대한민국청소년의회보고서. 서울: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2005). 2004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활동보고서. 서울: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문병준, 나운봉 (2008). 인터넷 쇼핑행동에 대한 개인주의자와 집단주의자간 비교연구. 마케팅관리연구, 13(3), 37-56.
-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4(2), 146-168.
- 박가나 (2001). 학생 자치활동 참여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가나 (2007).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39(2), 63-92.
- 박가나 (2008).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 박경숙 (2004). 노령화와 세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길자 (2006). 청소년의 정치문화 의식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모색. 청소년학연구, 13(4), 73-101.
- 박상철 외 (1994).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박세일 (2003). "왜 청소년 참여인가?". 청소년정책연구 세미나 자료집.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문화갈등 요인분석 및 문화소통 증진방안. 한국여성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영신, 윤영진, 김의철 (2006). 한국사회와 정치에 대한 인식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심리차이 분석. 아동교육, 15(2), 257-270.
- 박영신, 윤영진, 김의철 (2006). 한국사회와 정치에 대한 인식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심리차이 분석. 아동교육, 15(2), 257-270.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7(3), 1-24.
- 박재홍. (2005) 한국의 세대문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서울: 나남.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81), 10-34.
- 박종남. (1997)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효종. (2006)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의 중요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참여중심의 민주시민교육, 179~218.
- 박희봉, 이희창. (2006) 세대별 정치 이데올로기 차이: 한,중,일 3 국의 시민 의식 비교.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1), 125-151.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 아동 청소년백서.
- 서영석, 이정립, 차주환 (2006). 성역할태도, 종교성향, 권위주의 및 문화적 가치가 대학생의 동성애혐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77-199.
- 심성섭, 황의룡 (1999).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가치 의식 비교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2, 39-49.

- 이동신 (1986). 매스컴-정치사회화 연구와 사회화이론. 신문학보 제21집, 103-115.
- 이미나 (2009). 미디어 리터러시로서의 미디어교육 수업사례 제안. 시민교육 연구, 41(3), 139-181.
- 이순형 (1992). 철거촌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권위대상에 대한 인지. 아동 학회지, 13, 65-79.
- 이순형 (1994). 정치사회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승중 (1997).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삼영사
-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69-84.
- 이종렬 (1997). 한국 중·고등학생의 정치의식의 성장과 변화. 사회와 교육, 24, 65-91.
- 이창호, 김종길, 이항우 (2008).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 사회 변동전망 I: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숙 (2005). 학교 공동체의 참여의 시민교육 모색 - 참여민주주의의 시민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발전연구, 21(2), 21-41.
- 장우영 (2003). 사이버공간과 시민의 임파워먼트 ; 인터넷 정치참여와 시민 임파워먼트. 시민사회와 NGO, 1(2), 41-67.
- 전병건 (2007). 고등학교 학생선거참여활동정도가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상진 (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학회 2002 추계 특별 심포지움 자료집, 3-28.
- 전상진 (2004). 세대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5), 31-52.
- 정명숙, 김혜리 (2005).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15-135.
- 조선영, 이누미야, 한성열, 기무라 (2005). 한일대학생의 대인불안 규정요인의 비교: 공적 자기의식, 자아존중감, 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12.
- 조영달 편 (1997). 한국 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 교육과학사.

- 최상민, 한정란 (2007). 세대공동체 봉사학습 프로그램의 효과 - 청소년과 시설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163-177.
- 한국사회학회 (2004).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나남.
- 한안나 (2008). 온라인 토론학습의 영향요인에 대한 학습자의 중요도 및 실행도 인식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4(2), 129-158.
- 한완상 (1991).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관한 한 연구. *사상*, 3(1), 248-309.
- 한유화, 정진경 (2007). 2 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7-131.
- 한정란, 이금룡, 원영희 (2006). 청소년과 노년 세대간 태도 분석: 상호지향성 및 중요도-실행도 분석모형을 기초로. *한국노년학*, 26(2), 381-402.
- 함인희 (2002).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임희섭 교수 정년퇴임기념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 함인희 (2007). 세대분화와 세대충돌의 현주소.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인간사랑, 241-272.
- 홍덕률 (2003). 한국사회의 세대연구. *역사비평*, 2003년(가을), 150-191.
- 황상민, 김도환 (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 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 황상민, 양진영, 강영주 (2003). 세대집단의 가치로 구분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 성향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17-33.
- Adorno, T. W., Frenkel-Brunswi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Y: Harper.
- Almond, G. A., & Verba, S.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yto, John (1990). *Dictionary of Word Origins*. NY: Arcade Publishing.
- Bachrach, Peter (1967). *The Theory of Democratic Elitism- A Critiqu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Bar-Tal, Daniel and Saxe, Leonard (1990). Acquisition of Political Knowledge: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in Ichilov, O.(ed.), *Political Socialization, Citizenship Education, and Democracy*.

- NY: Teachers College Press. 116-134.
- Barber, Benjamin R. (1984). *Strong Democrac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Baumeister, R. F., Tice, D. M., & Hutton, D. G. (1989).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s and Personality Differences i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7(3), 547-579.
- Bengtson, V. L. (1975).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3), 358-371.
- Bengtson, V. L. (1993). Is The "Contract across Generations" Changing?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across Age Groups. In V. L. Bengtson & A. W. A. (eds.),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3-23. NY: Aldine De Gruyter.
- Bengtson, V. L., Cutler, N. E., Mangen, D. J., & Marshall, V. W. (1985). Generations, Cohorts, and Relations between Age Groups. In R. H.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 NY: VNR.
-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N. McPhee (1954). *Vot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ock, J., & Block, J. (1951). An Investigation of Ambiguity as an Emotional and Perceptual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19, 303-311.
- Brown, J. D. (1993). Self-esteem and Self-evaluation: Feeling is believing. In J. Suls(ed.),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Self*, Hillsdale, NJ: Erlbaum.
- Cohen, C. (1971). *Democracy*. London: The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Conger, J. A. & Kanungo, R. N. (1988). The Empowerment Proces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 Conover, P. J. and Searing, D. D.(1994). Democracy, Citizenship and the Study of Political Socialization. In Budge, I. and McKay, D. (ed.), *Developing Democracy*. London: Sage. 24-55.
- Conrad, Dan (1992). School-Community Participation for Social Studies,

- In James P. Shaver (ed.) *Handbook of Research on Social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Conrad, Dan and Diane Hedin (1977). "Learning and Earning Citizenship Through Participation," In James Shaver (ed.) *Building Rationales for Citizenship Education*. Arlington: VA.
- Conrad, Daniel and Diane Hedin(1982). "The Impact of Experiential Education on Adolescent Development." in Daniel Conrad and Diane Hedin (eds) *Youth Participation & Experiential Education*. NY: The Haworth Press. 57-76.
- Crocker, J., Luhtanen, R., Blaine, B., & Broadnax, S. (1994). Collective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White, Black, and Asia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 Dahl, R. A. (1976). *Modern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Daly, M. J., & Burton, R. L. (1983). Self-esteem and Irrational Belief: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with Implication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361-366.
- Dawson, R. E., Prewitt, K. and Dawson, K. S.(1977).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Ferguson, Patrick (1992). "Impacts on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James P. Shaver (ed.) *Handbook of Research on Social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N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Finkel, Steven E. (1985). "Reciprocal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fficacy: A pane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4), 891-913.
- Finkel, Steven E. (1987).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o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Support: Evidence from a West German Panel. *Journal of Politics*, 49(2), 441-464.

- Glenn, N. D. (1977). *Cohort Analysis*. Beverly Hills/London: Sage.
- Greenberg, Edward S. (1986). *Workplace Democra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NY: UNICEF.
- Hess, R. D. and J. V. Torney(1967).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in Children*. Chicago: Aldine.
- Higgins, J., & Kuhlman, D. M. (1965). Authoritarianism and Candidate Preference. *Psychological Reports*,16, 603-604.
- Hofstede, G. H.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ui, C. H. (198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1), 17-36.
- Hui, C. H.,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2), 225.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zzett, R. R. (1971). Authoritarianism and Attitudes toward the Vietnam War as Reflected in Behavioral and Self-Report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2), 145-148.
- Kasasawa, M. (1994). Nationalism, Internationalism, and Patriotism among Japanese College Students: A Factor-Analytic Approach. *Bulletin of the Faculty of Humanities of Aichigakuin University*, 23, 25-33.
- Kaufman, Arnold S. (1969). "Human Natur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William Connolly (ed.) *The Bias of Pluralism*. NY: Atherton Press Inc, 178-200.
- Kertzer, 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1), 125-149.
- Kolb, Davi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NJ: Prentice-Hall, Inc.

- Kosterman, R., & Feshbach, S. (1989). Toward a Measure of Patriotic and Nationalistic Attitudes. *Political Psychology*, 10, 257-274.
- Lasswell, H. D. (1951). *Political Writings*. Glencoe, Ill: The Free Press.
- Lea, James F. (1982). *Political Consciousness and American Democracy*. Jackson: Univ. press of Mississippi.
- Leighley, Jan (1991). "Participation as a stimulus of political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Politics*, 53(1), 198-211.
- Lord, J., & Hutchison, P. (1993). The Process of Empowerment: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12, 5-15.
- Luhtanen, R.,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3), 302.
- Mannheim, K. (1952).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rshall, V. W. (1980). State of the Art Lecture: The Sociology of Aging. Paper presented at the the IX Annual Meeting of Canadian Association of Gerontology, Quebec, Canada.
- McClosky, H. (1968). "Political Participation", In 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2. NY: Macmillan Free Press.
- McClusky, H. Y. (1990). The Community of Generations: A Goal and a Context for the Education of Persons in the Later Years. In R. Sherron & D. B. Lumsden (eds.), *Introduction to Educational Gerontology*. NY: Hemishere Publishing Co.
- McMillan, B., & Florin, P. (1995). Empowerment Praxis in Community Coali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 (5), 699.
- Milbrath, Lester W. (1981). "Political Participation." In Samuel L. Long (ed.) *The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vol. 4. NY: Plenum

- Press, 197-240.
- Mill, John S. (1948). *On Liberty and Consideration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Oxford: Basil Blackwell.
- Miller, David(1992). Deliberative Democracy and Social Choice. *Political Studies*, 11, Special Issues, 54-67.
- Morrell, Michael E. (1998). *Broadening Horizons: Can Participation make better citizens?*. A Dissertation for Degree Doctor of Philosophy. Arizona State University.
- Mulgan, Richard. (1990). Aristotle and the Value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Theory*, 18(2), 195-215.
- Nagel, Jack H. (1987). *Participation*. NJ: The Prentice-Hall, Inc.
- Nakane, C. (1970). *Japanese Society*.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ash, L. L. (1978). Concepts of Existence: Greek Origins of Generational Thought. *Daedalus*, 107, 1-21.
- Nie, Norman H. and Sidney Verba (1975). Political Participation. In Fred I. Greenstein,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4 Nongovernmental Politics*, C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Ortiz-Torres, B. (1994). *The Ecology of Empowerment for at-Risk Youth*. New Yor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
- Parry, Geraint, George Moyser and Neil Day (199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Britai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Pateman, Carole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Pedersen, Johannes T. (1982). On the Educational Func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John Stuart Mill's Theory and Contemporary Survey Research Findings. *Political Studies*, 30(4), 557-568.
- Pilcher, J. (1994). Mannheim's Sociology of Generations: An Undervalued Legac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5(3), 481-495.
- Richardson, A. (1983). *Particip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Riley, M., A. Foner and J. Waring (1988). Sociology of Age. In N. J. Smelser(ed.), *Handbook of sociology*, Newbury Park, CA: Sage, 249-29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der, 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861.
- Scaff, Lawrence A. (1975). Two Concep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28, 447-462.
- Schuman, H., & Scott, J. (1989).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359-381.
- Sears, David O.(1990). Whither Political Socialization Research? The Question of Persistence. In Ichilov, O.(ed.), *Political Socialization, Citizenship Education, and Democracy*. NY: Teachers College Press. 69-97.
- Sigel, Roberta S.(1989). Adult Political Learning - A Lifelong Process. In Roberta S. Sigel(ed.), *Political Learning in Adulthood*.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458-471.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Research*, 240.
- Spitzer, A. B. (1973). The Historical Problem of Generation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78, 1353-1385.
- Sullivan, John L., George E. Marcus, Stanley Feldman and James E. Piereson (1981). The Sources of Political Tolerance: A Multivariat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1), 92-106.
- Sullivan, John L., James E. Piereson and George E. Marcus (1979).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Political Tolerance: Illusory Increase 1950s-1970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3), 781-794.
-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London: Academic Press.

- Thomas, N. (2007). Towards a Theory of Children's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5(2), 199-218.
- Thompson, Dennis F. (1970). *The Democratic Citize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2), 323-338.
- UNICEF(2002).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3*. NY: Editorial and Publication Section of UNICEF.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Y: Harper & Row, Publishers.
- Walker, Jack L.(1966). A Critique of the Elitist Theory of Democracy, *A.P.S.R.* 60(2), 285-295.
- Warren, Mark E. (1992). Democratic Theory and Self-Trans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86(1), 8-22.
- Winter, Michade (1997). *Children as Fellow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Radcliffe Medical Press.
- Zimmerman, M. A. (1990). Toward a Theory of Learned Hopefulness: A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4 (1), 71-86.
- Zimmerman, M. A., & Zahniser, J. H. (1991). Refinements of Sphere-Specific Measures of Perceived Control: Development of a Sociopolitical Control Scal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2), 189-204.

부록: 조사표

청소년 사회의식 실태조사 조사표

- 중·고교생용 -

[문 1] 당신은 우리나라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가족분들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보통수준 이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이 있다
1) 본인(나)	1	2	3	4	5
2) 아버지	1	2	3	4	5
3) 어머니	1	2	3	4	5
4) 형제 또는 자매	1	2	3	4	5

참고: 1.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형제/자매가 없으면 해당란을 공란으로
2.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자신을 제외하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문 2] 평소에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을 하시는 편입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매우 드물게 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1) 아버지와	1	2	3	4	5
2) 어머니와	1	2	3	4	5
3) 형제 또는 자매와	1	2	3	4	5
4) 친구 또는 선배와	1	2	3	4	5
5) 학교 선생님과	1	2	3	4	5

참고: 1.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형제/자매가 없으면 해당란을 공란으로
2.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자신을 제외하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문 3]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소식/정보를 어느 정도 자주 보거나 듣는 편입니까? 다음의 매체에 대하여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보지(듣지) 않는다	보지(듣지) 않는 편이다	보통수준 이다	자주 보는(듣는) 편이다	매우 자주 본다 (듣는다)
1) TV	1	2	3	4	5
2) 라디오	1	2	3	4	5
3) 신문	1	2	3	4	5
4) 시사주간지/잡지	1	2	3	4	5
5) 인터넷	1	2	3	4	5

[문 4]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되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다음 매체에 대하여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수준이다	신뢰하는 편이다	매우 신뢰하고 있다
1) TV	1	2	3	4	5
2) 라디오	1	2	3	4	5
3) 신문	1	2	3	4	5
4) 시사주간지/잡지	1	2	3	4	5
5) 인터넷	1	2	3	4	5

[문 5] 작년부터 지금까지(2008년 1월~현재) 다음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자주 하셨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없다	있다			
		1번	2번	3~4번	5번 이상
1) TV/라디오 프로그램에 사회·정치문제에 관한 의견을 보낸 적이 있다.	1	2	3	4	5
2) 신문이나 잡지 등에 사회·정치문제에 관한 글을 투고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인터넷상으로 사회·정치문제에 관한 글(댓글 포함)을 써서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다.	1	2	3	4	5
4) 인터넷상으로 사회·정치문제와 관련된 서명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1	2	3	4	5
5) 길거리에서 사회·정치문제와 관련된 서명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사회·정치문제와 관련된 집회나 모임(촛불시위 등)에 참석한 적이 있다.	1	2	3	4	5

[문 6]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목표한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	2	3	4
2) 나는 남과 경쟁을 하면 대체로 이기는 편이다.	1	2	3	4
3) 나는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가끔 해낸다.	1	2	3	4
4)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행동으로 잘 옮긴다.	1	2	3	4
5)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할 말을 한다.	1	2	3	4
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을 스스로 한다.				
7)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1	2	3	4
8)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다.	1	2	3	4
9) 나와 가까운 사람들(가족, 친구, 동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1	2	3	4
10)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2	3	4
11) 나는 남들을 잘 배려한다.	1	2	3	4
12)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이 화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	2	3	4

[문 7] 다음과 같은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상에 빠지기 보다는 아무 일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	1	2	3	4
2)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그가 노력했기 때문이기 보다는 배경이 좋았기 때문이다.	1	2	3	4
3) 너무 친밀하게 대하면 업신여김을 받는다.	1	2	3	4
4) 사람은 모두 천성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1	2	3	4
5) 사람들은 팔자에 따라 살게 마련이다.	1	2	3	4
6) 인간의 본성 때문에 전쟁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	2	3	4
7)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	1	2	3	4
8) 여자가 술마시고 담배피우는 것은 꼴사납다.	1	2	3	4
9) 사람의 가치는 얼마만한 성취를 이루었느냐에 달려있다.	1	2	3	4
10) 아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은윗 사람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1	2	3	4
11) 가정이나 학교나 권위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1	2	3	4
12) 사회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법이 충분치 못하다면 비상조치라도 사용해야 한다.	1	2	3	4
13) 원래 나쁜 사람은 아무리 잘해주어도 소용이 없다.	1	2	3	4
14)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보다는 어떻게든 헐뜯으려고만 하는 것 같다.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요즘은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1	2	3	4
16) 사람은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진다.	1	2	3	4
17) 남이 알아주지 않는 생각은 공상에 불과하다.	1	2	3	4
18)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직업의 귀천을 나눌 수 있다.	1	2	3	4
19)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1	2	3	4
20) 상사의 말에 잘 따르는 사람이 좋은 사원이다.	1	2	3	4
21)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1	2	3	4

[문 8] 다음과 같은 의견이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1	2	3	4
2)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1	2	3	4
3) 사람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1	2	3	4
4) 반대의견을 가진 자들과 타협하는 것은 우리 편을 배반하는 것이다.	1	2	3	4
5) 인생관이나 종교에 있어서는 하나의 진실만이 존재하므로 타협은 불가능하다.	1	2	3	4
6) 어떤 사람들이 나와 반대의견을 주장할 때 그들이 미워진다.	1	2	3	4
7)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생각이면 대중 앞에서 그 의견을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8)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소수가 비판해서는 안된다.	1	2	3	4
9) 다수에 의해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소수가 다시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된다.	1	2	3	4
10) 윗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1	2	3	4
11)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받아들여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1	2	3	4
12) 수많은 정치인보다는 몇사람의 뛰어난 지도자가 국가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다.	1	2	3	4
13) 권력 있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것이 현명하다.	1	2	3	4

[문 9] 다음과 같은 의견이나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장 또는 사회에서 개인적 친분관계가 배려될 필요가 있다.	1	2	3	4
2)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전통은 보존되어야 한다.	1	2	3	4
3) 우리 국가, 사회가 발전하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1	2	3	4
4) 학교나 직장의 선배는 항상 각뚱이 모셔야 한다.	1	2	3	4
5) 내가 필요할 때 이웃이 나를 돕는 것은 당연한 미덕이다.	1	2	3	4
6)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집안 어른의 체면 깎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7) 경제성장이 늦어지더라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경제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1	2	3	4
8) 국방예산을 줄여서 자연·환경 보존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1	2	3	4
9) 경제성장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10) 언론은 국가이익보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우선시 해야 한다.	1	2	3	4
11) 경제적인 발전보다 인간적인 사회 추구가 더 중요하다.	1	2	3	4
12)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1	2	3	4
13) 세금을 더 걷더라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1	2	3	4
14) 국가경쟁력이 다소 약화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은 보호되어야 한다.	1	2	3	4
15) 공평한 소득분배를 위해서라면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어도 무방하다.	1	2	3	4
16) 가난은 본인 능력보다 정치사회체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1	2	3	4
17) 우리사회에서 근로자는 기업가로부터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1	2	3	4

[문 10] 다음은 국가와 국제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UN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더욱 커져야 한다.	1	2	3	4
2)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1	2	3	4
3)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중 하나이다.	1	2	3	4
4) 아시아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중국, 일본 등 강대국과 동등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1	2	3	4
5) 한국이 전쟁을 겪고서도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우수한 자질때문이다.	1	2	3	4
6) 해외원조를 할 경우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1	2	3	4
7) 한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	1	2	3	4
8) 한국은 외국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1	2	3	4
9) 외래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	2	3	4
10) 한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전쟁,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와주어야 한다.	1	2	3	4
11)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1	2	3	4
12) 나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하여 별로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13) 모든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공헌할 필요는 없다.	1	2	3	4
14) 우리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1	2	3	4
15) 외국에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나는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다.	1	2	3	4

[문 11] 다음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룹이나 모임의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1	2	3	4
2) 나는 추종자가 되기보다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3) 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다른 누군가가 지도자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란다.	1	2	3	4
4) 나는 여러 사람들을 조직하여 일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다.	1	2	3	4
6)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다.	1	2	3	4
7) 나는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도록 다른 사람이 일을 해결할때까지 기다리는 편이다.	1	2	3	4
8) 나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시도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9) 나는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에 꼭 참여할 생각이다.	1	2	3	4
10) 정치적인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11) 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1	2	3	4
12) 우리사회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치적 활동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1	2	3	4
13) 선거를 통해 누가 선출되던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	1	2	3	4
14) 우리사회에서는 나 같이 평범한 사람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2	3	4
15)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1	2	3	4
16) 지역사회 단위의 선거(시장/군수, 시/군 의원 선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1	2	3	4

[문 12] 우리사회의 현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1	2	3	4
2) 잘 살고 못 사는 사람간의 격차가 심하다.	1	2	3	4
3)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1	2	3	4
4)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1	2	3	4
5) 집안이나 뒷 배경이 중시된다.	1	2	3	4

[문 13] 세계의 여러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현재 다음과 같은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뒤처져 있다	뒤처져 있다	중간정도이다	앞서 있다	매우 앞서 있다
1) 경제적인 발전 수준	1	2	3	4	5
2) 정치적인 민주화 수준	1	2	3	4	5
3) 국민들의 정치참여 수준	1	2	3	4	5
4) 국민들의 생활 수준	1	2	3	4	5

[문 14]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까 ?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문 15] 앞으로 4~5년 뒤에 우리사회는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훨씬 나빠질 것이다 2. 나빠질 것이다 3. 지금과 다를없을 것이다
4. 좋아질 것이다 5. 훨씬 좋아질 것이다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결과에 대한 비밀은 완벽하게 보장되며, 통계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오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6] 당신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문 17] 반에서 학업성적(2009년 1학기)은 다음 중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성적과 과목별 성적으로 구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1) 전체 성적	1	2	3	4	5
2) 국어	1	2	3	4	5
3) 영어	1	2	3	4	5
4) 수학	1	2	3	4	5
5) 사회영역	1	2	3	4	5
6) 과학영역	1	2	3	4	5

[문 18]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박사)
1) 아버지	1	2	3	4	5	6	7
2) 어머니	1	2	3	4	5	6	7

[문 19] 부모님께서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1	2
2) 어머니	1	2

[문 20]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대략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매우 못산다 ←-----보통수준-----> 매우 잘산다						
1	2	3	4	5	6	7

[문 21]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학교가 아닌 자택을 기준으로)은 어디입니까?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 5. 대전 | 6. 광주 | 7. 울산 | 8. 경기도 |
| 9. 강원도 | 10. 충청북도 | 11. 충청남도 | 12. 전라북도 |
| 13. 전라남도 | 14. 경상북도 | 15. 경상남도 | 16. 제주도 |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
- 09-R02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김영애·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김성연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송병국·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이용교·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김영인
- 09-R10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설수영·원형중·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최인재·김봉환·황매향·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임지연·김정주·김신영·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천정웅·신승배·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 · 김진호 · 임성택 · 주등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 · 임영식 · 문호영 · 김남정 · 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 · 김동일 · 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 · 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 · 윤옥경 · 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 · 오해섭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 · 박은혜 · 이상훈 · 최은영 · 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 · 조홍식 · 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 · 정대영 · 황순영 · 김영미 · 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 · 박현옥 · 이경숙 · 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 · 김원경 · 고정욱 · 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 · 이근매 · 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 · 김나라 · 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 · 김정희 · 설현수 · 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운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운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증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운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수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비행 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니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재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II
- 사회정치 의식 및 참여를 중심으로 -

인 쇄 2009년 12월 28일

발 행 2009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 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기획팀)

ISBN 978-89-7816-783-3(9330)